

PRSR STD
U.S. Postage
PAID
Elk Grove VLG. IL
Permit #1320



美 京 大 同 窓 會 報

서로 돕고 사랑하는 우리 서울대학교의 자랑스런 동문들

재미서울대학교총동창회
사무국 및 편집국
790 Busse Rd.,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Tel. (847)981-1464, Fax. (847)981-1465
e-mail : snuaausa@snuaa.org
website : http://www.snuaa.org

발행인 : 李龍洛
편집위원회총무 : 具璟會
편집인 : 金正守

월간 100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in the U.S. A.

2002년 6월 28일

제11차 정기 평의원회 성황리 개최 母校 音大 미주 순회단 공연일정 확정

총동창회 새 航路모색 위한 論壇
牽引車의 機關 점검한 평의원회

서울 총동창회와 母校가 공동 지원

재미동문들의 적극적인 성원 요망

2002년 6월14일(금)~16일(일)
Oak Brook Hills Hotel(Oak Brook, IL)

◇연주단의 공연 일정

- 8월 15일(목) - 연주단 시키고 도착
- 8월 16일(금) - 시키고 공연 (1회)
- 8월 17일(토) - 캔ساس 공연 (2회)
- 8월 19일(월) - 뉴욕 공연 (3회)
- 8월 21일(수) - 필라델피아 공연 (4회)
- 8월 23일(금) - 워싱턴 1차 공연 (5회)
- 8월 24일(토) - 워싱턴 2차 공연 (6회)
- 8월 27일(화) - 이틀런타 공연 (7회)
- 8월 28일(수) - 미네아폴리스 공연 (8회)
- 8월 30일(금) - 로스앤젤레스 공연 (9회)
- 8월 31일(토) - 연주단 귀국

7천여 동문들이 소속한 18개 지역 동창회의 대표자인 66명의 評議員들로 구성된 재미 총동창회 제 11차 정기 평의원회 및 관련 행사가 지난 14일(금)부터 16일(일)까지 3일 동안, 시카고 근교의 Oak Brook Hills Hotel (3500 Midwest Road, Oak Brook, IL)에서 열려 전미주에서 26명의 평의원이 직접 참석하고(2명의 평의원 대행 포함)12명의 평의원이 서면위원장 또는 투표권 위임이사를 밝혀와 총 38명의 평의원으로 이번 회의의 成員을 이루어 재미총동창회의 사업전반을 심히 의결하고 관련행사등과 함께 이번 평의원회는 성황리에 끝났다(그 진행 경과는 제 4면과 5면의 평의원회 회의초록 보도 참조).

이번 평의원회와 그 관련행사는 재미총동창회 창설 10주년 기념

심포지움, 제 11차 평의원 회의, 평의원 및 총동창회 순방단 및 시카고 지역 관악 후원 이사들을 초청한 환영만찬 그리고 시카고 지역 동창회가 주최한 평의원회의 참석자를 초청한 친선 골프대회로 진행되었다.

또한 관악 후원의 밤에는 高秉喆 동문(법대 59년 졸, UIC 정치학과 명예교수)을 초청한 南北韓 관계의 현황과 전망이란 특별 주제 강연에 이어 재미 총동창회와 본국 총동창회에서 수여하는 감사패가 有功 동문들에게 수여되었고, 이번 행사의 마지막은 세 동문 음악교수들이 테너 김영석(음대 78년졸), 소프라노 이수정(음대 92년졸), 피아노 이소정(음대 88년졸)이 출연하여 동서양의 가곡으로 격조높은 和音을 동문들에게 선사하여 동문들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는데 크게 기여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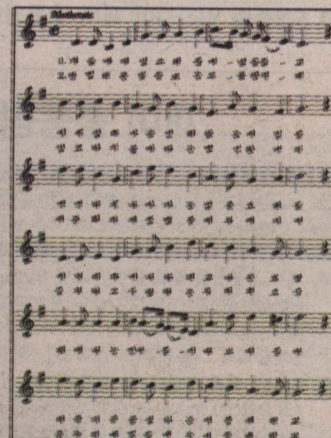
母校 음악대학 동문들로 구성된 연주단이 8월15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9개도시에서 9회의 공연을 하게 되었다(오른쪽 일정표 참조). 원래 이 연주단의 공연은 서울대학교 발전 기금으로부터 전액 예산지원으로 진행될 계획이었으나, 母校의 “학내 사태”와 이기준 총장의 사퇴와 후임 총장의 선출 때까지 생긴 대학 본부의 “행정공백”에 따라 그 예산집행이 어렵게 된 것을 林光洙 총동창회장(공대 52년졸)의 결단에 따라, 총동창회의 제한된 예산내에서도 순방단의 항공료 및 미국내의 이동에 따른 경비의 2/3인 이천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이번 공연이 계획대로 실행되게 되었다.

이 음악회는 母校 음대와 대학원에 재학중인 후배 동문들이 그간 연마한 기량으로써 연주할 서양고전음악과 傳統 國樂의 동서양의 和音을, 성악(정호원, 손지혜), 피아노(김윤경) 바이올린(송윤신), 첼로(문주원), 오보에(조환희), 판소리(이자람), 대금(김희

곤) 및 거문고(김형섭)에 실어, 미주 동문들께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연주단에 선발된 동문 음악도들은 모두 국내외의 저명 음악경연대회에서 탁월한 수상 경력을 자랑하고 있다. 각 지역 동창회에 연주단의 순방계획에 관한 공문이 나간 후 각지역 동창회로부터 공연 주최 신청이 쇄도하여 원래 6개 지역 공연계획을 확대하였음에도, 전 미주지역 동창회로부터의 수요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였다. 금년에 연주단은 음악대학의 김형배 교수를 단장으로하고 10명의 단원들로 구성되어 그 일정이 슬림 없이 짜여진 강행군이므로, 우리 재미 총동창회 동문들은 후배 음악도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하여 이번 개최되는 음악회에 많이 나오셔서 적극적으로 성원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 이 연주회의 성공적인 공연을 위하여서는 공연을 주관하는 지역동창회의 많은 동문들의 협찬, 광고게재 및 행사 진행을 위한 자원봉사 등의 참여가 요청되고 있다.

목 차

- 제 1부 : 총동창회 소식
- 제 2부 : 문필과 논고 - 7면
- 제 3부 : 동문 및 지역동창회 소식 - 19면



조여름에 北太平洋을 누비는 힘찬 成年 고래들 (“SNUAAUSA” dancing to SNU alma mater song)처럼 5시간의 마라톤 회의를 진행중인 제 11차 재미총동창회 정기 평의원회 전경.

재미총동창회 창설 10주년 기념 심포지움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창설 10주년 기념 심포지움

◇일시: 2002년 6월 14일(금요일) 오후 7:00 - 9:00
 ◇장소: Court A-C Room, Oak Brook Hills Hotel
 ◇주제: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의 미래에 대한 소망과 제언**

발제논고:

1. 재미총동창회(SNUAAUSA) 창립경과와 제언 / 박윤수 초대회장
2. Korean-American의 새로운 위상 정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동창회 / 강수상 2대 회장
3. 동창회보의 귀속과 동문총합 발간과 제언/이병준 3대 회장<추후 회보에 발표>
4. 母校와 後進을 위한 基金 / 오인석 4, 5대 회장
5. 활성화된 지역동창회와 재미총동창회 / 김호원 전 하트랜드 지역회장

의장: 이용락 재미총동창회 회장

발제자 소개: 오홍조 재미총동창회 수석 부회장

주제발표 후 참석자 전원이 참석하는 공개토론

※ 발제논문은 재미동창회보에 순차적으로 게재 예정입니다

제11차 정기 평의원회는 그 전야인 금요일 밤에는 작년에 창립 10주년을 맞은 재미총동창회가 지난 10년간의 역사를 돌아보며 미래의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論壇을 마련하여, "재미 총동창회(SNUAAUSA)의 장래와 제언"이란 주제의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이날 예정된 5명의 발제자 가운데 4명(박윤수 초대회장, 강수상 2대 회장, 오인석 4, 5대 회장 및 하트랜드 지역 전임회장 김호원 평의원)이 참석하였고, 이병준 3대회장은 선약된 고국에의 여행일정으로 참석치 못하여, 재미총동창회보 지면을 통하여 발제 논고를 추후 발표하기로 하였다. 심포지움은 이용락 회장의 사회로 7시 반부터 2시간여에 걸쳐, 평의원회의장인 Oak Brook Hills Hotel의 Court A-C room에서 31명의 동문들이 참석하여 발표와 토론이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이용락 회장은 개막사에서, "溫故知新의 정신으로 지난 10년간의 재미총동창회 역사를 돌아보며 재임 중 재미총동창회의 중요과제를 추진하신 선대 회장님들의 경험과 광활한 미중부내륙의 6개주를 망라하여 재미총동창회의



축소판인 하트랜드 지역 동창회장을 역임한 김호원 동문의 지혜와 지도력으로부터, 재미총동창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문재들을 토론하여 내일 열리는 평의원회의에서 검토 의결하여, 母校를 고양하고, 재미동문들의 자체 발전사업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고자 이 심포지움의 논단을 구성하였다"고 하였다. 이어서 발제자 소개를, 불순한 일기와 비행기 연착사정으로 참석이 지연된 오홍조 수석 부회장을 대신하여, 구경희 사무 총장이 하였다.

첫 발제자인 박윤수 동문(초대회장 역임, 현재 총동창회 고문)이 "재미 총동창회(SNUAA-USA)의 창립 경과와 제언"이란 발표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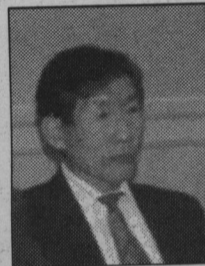


박동문은 재미총동창회의 발족 유래가 1990년 10월 12일 모교 44주년 개교 기념식에 초대되어 모교를 방문하고 돌아온 미주내 대도시 동창회장단을 중심으로한 뜻있는 동문들이 모교 발전기금 조성에 재미동문들의 노력을 모으고자 총동창회의 창설이 논의되었고 이해 11월에 정관기초위원회가 조직되어 다음해 4월에 회칙을 기초하여 1991년 6월 1일에 워싱턴에서 재미총동창회의 창립대회(박윤수 동문이 초대회장

으로 선출됨)가 이루어졌고, 그 설립목적은 동문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모교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고 회고하였다. 또, 그는 재미총동창회의 발족과 병행하여 재단 이사회(이사장 남가주의 김영기동문, 공대 51년 졸)를 별도로 조직하였고, 1993년 6월 15일 재미동창회보 첫 호가 발간되었다고 회고하였다.

박 고문은 재미총동창회의 미래와 관련하여 이제 창립 11년을 넘어서는 이 시점에서 재미총동창회는 우리 동문들이 미주 이민 사회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친목도모의 범위를 넓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그 개념을 "우리끼리"라는 통상적인 친목의 개념에서 "이웃끼리"라는 개념으로 확대하여야 하며, 장학사업 등으로 미주 이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총동창회의 적립될 기금은 후진들의 학문적 발전을 지원하는 데에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현재 자연적으로 노령화 해가는 재미총동창회를 역동적인 조직으로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신세대와 이민 2세 세대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 등단한 두번째 발제자인 강수상 동문(제 2대 회장 역임, 현 총동창회 고문)은 "KOREAN-AMERICAN의 새로운 位相定立에 主導的인 역할을 하는 동창회"란 발제 논고에서, 미주내 각 지역 동창회의 자생적인 친목과 상부상조의 조직으로써 역사가 재미총동창회의 발족에 선행한 것을 상기한 후 재미총동창회의 발족 유래가 모교의 발전기금조성에 참여가 목적이었으나 10여 년이 경과한 지금에는 발족 초기에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이원적 기구로 조직된 재미총동창회와 재단 이사회가 힘든 노력 끝에 하나로 통합이 이루어졌음을 상기하고, 당면 과제로 재미총동창회의 지속적인 발전사업을 추진할 재정 기반이 취약한 실정에 주목하면서 장차 지역동창회와 총동창회는 有機的으로 연결된 獨立的인 조직으로서의 正體性을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미래의 과제로 재미총동창회는, 우리 동문들간의 친목 도모의 수준을 넘어서서 미주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한 지도력과 젊은 인재들을 키워 조국과 미주 한인사회를 위하여 主導的인 역할을



하여 "KOREAN-AMERICAN 位相定立"에 기여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어 세번째 등단한 오인석 동문(제 4, 5대 회장 역임, 현 총동창회 명예회장)은 지난 4월의 뇌수술 이후 아직도 완쾌되지 못한 건강상태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渾身의 精力으로 쓴 원고를 바탕으로 母校와 後進을 위한 基金의 유래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다. 오 동문은 제 4대 회장을 역임한 후 5대 회장을 연임함에 따라, 제 5대 집행부는 지난 8년간 재미총동창회가 상부상조하는 지역 동창회 조직을 지원하는 독자적인 단체로서 그 기간 사업인 회보 발간이 본 궤도로 정착되어가고,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일반 회원들 구독료 납부 부족분을 補填하기 위하여 동문독지가들로서 구성된 관악후원회의 조직도 본 궤도에 오르게 됨에 따라 그 다음단계의 사업으로서 재미총동창회의 조직기반을 활용하여, 母校를 세계적인 선진 고등교육기관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재미 동문들의 기여를 모으기 위하여 우선 백만불 모금을 목표로, "母校와 後進을 위한 基金"을 창설하였으며, 이 기금의 계속성과 모금과 관리를 투명하고 경제적으로 하며 미국 조세법에 의한 면세혜택이 出捐者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재미 동창회의 제 2차 정관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그 배경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KOREAN-AMERICAN 位相定立"에 기여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어 세번째 등단한 오인석 동문(제 4, 5대 회장 역임, 현 총동창회 명예회장)은 지난 4월의 뇌수술 이후 아직도 완쾌되지 못한 건



건강상태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渾身의 精力으로 쓴 원고를 바탕으로 母校와 後進을 위한 基金의 유래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다. 오 동문은 제 4대 회장을 역임한 후 5대 회장을 연임함에 따라, 제 5대 집행부는 지난 8년간 재미총동창회가 상부상조하는 지역 동창회 조직을 지원하는 독자적인 단체로서 그 기간 사업인 회보 발간이 본 궤도로 정착되어가고,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일반 회원들 구독료 납부 부족분을 補填하기 위하여 동문독지가들로서 구성된 관악후원회의 조직도 본 궤도에 오르게 됨에 따라 그 다음단계의 사업으로서 재미총동창회의 조직기반을 활용하여, 母校를 세계적인 선진 고등교육기관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재미 동문들의 기여를 모으기 위하여 우선 백만불 모금을 목표로, "母校와 後進을 위한 基金"을 창설하였으며, 이 기금의 계속성과 모금과 관리를 투명하고 경제적으로 하며 미국 조세법에 의한 면세혜택이 出捐者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재미 동창회의 제 2차 정관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그 배경을 설명하였다.

오인석 기금관리위원장은, 현재의 기금관리위원회는 당분간 백만불을 목표로 기금을 적립한 후에 전체 동문들의 뜻을 모아 후진들의 학술 연구를 지원하고 장학사업 등을 시행할 계획을 밝히고, 이 기금에 동문들의 많은 관심과 모교를 위한 誠心어린 出捐을 적극 권장하였다.



이날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김호원 평의원(하트랜드 지역 전임회장)은 현재의 재미총동창회가 당면한 조직과 재정 및 미래의 발전 사업에 관하여 "지역동창회의 활성화와 재미총동창회 발전을 위한 몇가지 제언"이란 논제로, 6개주의 광활한 지역에 산재한 동문들을 발굴하여 67명의 회원 숫자를 278명으로 늘이고 1999년부터 장학위원회를 구성하여 12명에게 \$10,500을 수여한 하트랜드 지역동창회를 이끈 그의 경험을 바탕으로 총동창회의 미래의 발전을 위한 靑寫眞을 제시하였다.

그는 우선 지역동창회가 활성화하여 적극적으로 총동창회의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지역 동창회를 조직하여야 하며, 현재의 대도시를 중심으로한 광역동창회를 분할하여 하부조직 구성의 規模의 經濟를 달성하여야 하며, 캐나다 지역 등으로 지부확대, 재미 과학 기술자 협회, 의사회, 치과의사회, 수의사회, 약사회 등 많은 동문들을 포함한 전문인 조직과 자원을 총동창회에 접목시켜야 할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3면에 계속>

재미 총동창회 제11차 정기 평의원회(評議員會) 개최 공고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는 7,000여 동문회원들이 母校를 高揚하고 동문들의 상호발전을 위한 견인차가 되게 하는 조직입니다. 우리 재미총동창회의 발전을 위하여 재민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오신 동문들과 이를 대표하는 전미주 19개 지역동창회의 평의원회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재미 총동창회 집행부는 재미 총동창회의 자체발전을 위한 관악후원회의 사업, 母校의 後進을 위한 基金 모금과 관리, 동문들간의 友誼를 交流하는 場인 재미 동창회보의 질적 수준 향상, 새로운 동문들의 발굴과 각 지역 동창회간의 협력의 활성화를 기하여, 전체동문들의 복지 증진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러한 재민 사업에 관한 기본 방침은 평의원회의 토론과 결의에 따라 수립됩니다. 2001년 평의원회의 결의와 서면 투표결과에 의거 재미 총동창회 회칙 제 14조에 따라 2002년 정기 평의원회의를 다음과 같이 소집 공고합니다.

가. 재미 총동창회 창설 10주년 기념 Symposium

6월 14일(금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평의원회의의 전야에 재미 총동창회의 지난 10년을 회고하며 미래의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일 재미총동창회의 회장님들을 포함한 발제자와 전체 평의원들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가집니다. 장소: Court A-C Room

나. 평의원 회의: 6월 15일(토) 아침 9시 - 오후 3시 Oakbrook Hill Resort Hotel, Oakbrook, Illinois (전화번호: 800-445-3315) 장소: Kennsing Room

다. 평의원, 본국 순방단, 재 시카고 지역 임원 및 관악 후원이사 초청 만찬

6월 15일(토) 오후 6시 - 오후 10시 Oakbrook Hill Resort Hotel, 장소: Prince of Wales Room
 고병철 교수(UIC 정치학과)의 南北韓 관계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특별강연: 7시-8시

라. 평의원 및 본국 순방단 초청 시카고 지부 동창회 골프대회 및 만찬 6월 16일(일) 오전 10시 - 오후 9시 Willow Crest Golf Course, Oakbrook Hill Resort Hotel

◇평의원회 정기총회는 이러한 재미 총동창회의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재미 총동창회의 재민 사업의 평가와 신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이번 평의원회에는 신임 임광수 본국 총동창회 회장님 일행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가하여 재미 동문들을 위하여 일부러 멀리서 오시는 본국 순방단을 환영하여 주시고 모교 및 동창회 발전을 위한 격의 없는 토론이 이루어지는 평의원회가 되기를 앙망합니다.

◇평의원님 가족들을 위한 Chicago 시내 관광 및 Shopping 안내를 준비할 예정이오니 부부 동반 참석 자리를 더욱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6월 10일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李龍洛

재미총동창회 창설 10주년 기념 심포지움

<2면 심포지움에서 계속>

지금까지 대도시 중심으로 개최되고 있는 재미 총동창회의 큰 행사인 평의원회나 별도로 개최할 수 있는 총회 등을 중소도시에서도 개최하게 된다면, 이 행사로 인하여 지역 동창회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당면한 조직상의 문제인 기존회원의 老齡化와 신입회원의 등록이 부족한 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 주목하여 미주 내의 동문 자녀들과 모국과 미국의 두개의 문화권 영향아래 있는 "1.5세대"들과 재미총동창회가 어떤 관계를 정립할 것인가란 문제도 앞으로의 연구 과제가 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앞으로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초 구조물로서, 재미 동창회관 건립을 제창하고, 현재 구상단계에 있는 母校를 위한 "知的 奉仕團" 案을 구체화하기 위한 試案으로서, 교환연구와 특별 강연 등의 기회를 활발히 할 것도 제안하였다.

김호원 동문은 그 결론으로서 현재 단계로서는 재미총동창회가 대외적인 사업의 확대보다는 자체 조직과 활동의 내실화에 주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어 있는 발제자들과 방청석을 포함한 공개토론에 앞서 이용락 회장은, 현재의 정관에도 母校와 後進을 위한 基金이 총동창회 바깥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미주 관악회와의 관계는 제한된 인적자원 하에서 재미총동창회의 대외적인 사업과 자체 발전 사업이란 두가지 목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업원칙에 의한 운영 전략"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어 청중들로부터 발제논고들에 대한 논평과 간단한 토론이 있었다. 한 청중은 친목도모와 상부상조 사업은 재정적인 지원 문제일 뿐 아니라, 근경에 처한 동문들을 정신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문제도 포함되므로 이런 문제에 대한 총동창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상문 동문(하트랜드 지역동창회장)은 회원간의 친목과 복지를 넘어서 모교가 세계적인 굴지의 대학으로 발전하기에는 현재 상태로는 많이 부족하고 많은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하며, 금전적 지원 외에도 미주 동문들이 경험을 살려 연구, 교육 및 대학 경영 전반에 관하여 조언을 하여 정책

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번의 모교 음대 연주단 순방과 같은 행사 진행에도 충분한 홍보를 통해 중소 도시의 공연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NY의 한창섭 회장은, "오늘 문제는 많이 제기되었는데 과연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있는가? 또 재미동창회가 아직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형편인데 모국과 모교에 보내는 모금에 치중할 것인가?"라고 질문하면서, "募金에 너무 치중하

의 안정적 운영이 안되는 상황에서 사업의 확대 설정이 제기할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고 하였다.

발제자인 김호원 동문은 미국에서 성장한 자녀세대와 총동창회와의 관계정립과 관련하여, "장학금지급시의 수혜자의 기준을 1.5세대로 확대할 경우 이들을 우리 동창회 회원으로 간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하였다.

발제자인 강수상 동문은, "앞으로의 재미총동창회의 발전사업이

의 지속적인 발전에 달려있다"고 하였다.

시카고의 임의섭 동문은, "총동창회의 중심은 동창회보가 될 수 밖에 없고 현 김정수 편집인의 노력으로 많이 개선되었으나 전국적으로 동문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될지의 여부가 차후 발전의 관건"이라고 하였다.

비행기 연착으로 후에 도착한 오홍조 차기 회장은 결론적 논평에서, "우리 모두가 자립 할 수 있



창설 10주년 심포지움 발제자와 청중들 기념촬영 뒷줄 좌로부터 한창섭, 임희섭, 정호, 한재은, 이상문, 박영규, 전현일, 소진문, 오홍조, 방석훈, 임낙규, 곽철, 구경희, 김정주, 앞줄 좌로부터 방은호, 김호원, 박윤수, 강수상, 이용락, 박경림, 송순영 동문

입안에 반영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NC지역 김기현 동문(문리대 56년 졸, NC지역 동창회

발기위원장)은 모교의 학사행정대 대한 동문들의 참여 방안의 예로서 (신입생 선발 과정 중 지원자 면접등에 참여함으로써 우수 학생 선발을 도울 수 있을 것이며, 현재 한국대학내에서 교수들의 강의 (teaching)에 대한 열의가 부족함을 감안하여 우수 교수상 (Distinguished Teaching Award) 등을 제안하고 지역동창

다보면 회원들의 지지를 얻기가 더욱 어렵다"고 NY지역 동창회의 경험을 토로하였다.

DC의 방은호 평의원은, "권위 있는 강사를 초빙하여 각 지역을 순회하며 특별 강연등을 개최하면 우리 동창회의 활동이 그 범위를 넘어서서 韓人 社會에도 접근해 가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발제자인 오인석 동문은 이상과 같은 논평에 답하여, "친목도모만이 목적이라면 지역동창회로 충분하며, 총동창회는 전국적 사업으로서 새로운 동문의 발굴, 새로운 지부조직의 확대와 발전 및 모교를 위한 지원 사업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논평에서 이용락 회장은 "방청석의 우려는 조직 자체

성공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지역동창회로부터의 재정적 뒷받침과 기여가 절대 필요하며 총동창회와 지역동창회는 유기적으로 통합 운영되어야 함"을 다시 강조하였다.

뉴잉글랜드의 박경민 동문은 논평을 통하여, 오늘 제기된 재미동창회의 自體 內實化와 外向의인 事業 擴大라는 일견 상반되는 재미총동창회의 앞으로의 활동방향의 갈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5년 전에 비하여 총동창회가 많이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동창회의 노령화는 분명하고도 전반적인 추세이므로 재미동창회의 조직속에 1.5세대를 영입하는 문제가 적극 고려되어야 함에 동의하였고, 또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동창회의 재원조달 문제해결의 관건은, 역시 가장 중요한 媒體인 동창회보

는 동창회를 이루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자"고 하였다.

이용락 회장은 심포지움 폐회인사에서 "오늘 論壇의 발제자와 청중들의 논평에서 제기된 큰문제는 결국 재미동창회 자체 발전 사업과 균형유지 문제, 동창회원들의 노령화 추세를 상쇄할 대책으로서 신규회원의 충원, 母校를 세계적인 선진 고등 연구교육 기관으로 발전시키는데 재미 동문들의 지혜와 경험을 활용할 기회가 될 수 있는 知的봉사단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등이 내일 평의원에서 논의되고 나아가 母校와 서울의 총동창회와, 재미동창회가 협조하여 체계적인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하면서 이번 심포지움에 폐막사에 대하여



심포지움 발제자들과 진지한 방청석의 동문들.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제 11차 정기 평의원회 抄錄

2002년 6월 15일 토요일 9:00 a.m. - 3:00 p.m.
Oak Brook Hills Hotel, Kensington Room,
3500 Midwest Road, Oak Brook, IL
- 행사본부 Suite #610 - 전화 847-846-2118

< 회의순서 >

- ① 개회선언 이용락 재미 총동창회 회장
- ② 별세동문 및 가족에 대한 묵념 이용락 회장
- ③ 성원보고 구경희 재미 총동창회 사무총장
- ④ 본국 순방단 및 평의원 소개 이용락 회장
- ⑤ 본국 총동창회장 격려사 임광수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 ⑥ 공로패 수상자 발표 및 증정 이용락회장/임광수 회장
- ⑦ 전 회의록 낭독 김정주 총무국장
- ⑧ 사업보고 구경희 사무총장
- ⑨ 미주 관악후원회 사업보고 송순영 관악후원회부회장
- ⑩ 결산보고 전현일 재무국장
- ⑪ 감사보고 박영규 감사
- ⑫ 모교와 후진을 위한 기금보고 오인석 기금위원장
- ⑬ 동창회보 발행현황 김정수 편집인
- ⑭ 2003년도 예산안 및 사업계획 심의 이용락 회장

< 심의 안건 >

- 1. 신입 평의원 추인 2. 회칙 위원회 위원 선출
- 3. 예산안 및 사업 계획 4. 음대순회 연주단 미주공연 개최 (정호 특별사업 국장)
- 5. 구독료 인상안 6. 미주 총동창회 2003년 보조금 책정안
- 7. 모국 총동창회 2003년 분담금 책정안
- 8. 지역동창회 Tax Exemption status에 관한 건
- 9. 신입 회원등록에 관한 안내를 각 지역 일간 신문에 연 2회 광고 게재하는 건
- 10. 재미 총동창회 웹사이트 활성화(각 지역동창회 웹사이트 개발과 연결) 추진
- 11. 관악 후원회 종신이사비 분할 납부와 경상 예산 재원으로 사용에 관한 안
- 12. 미주 이민 백주년 기념 사업회에 관한 재미 총동창회의 지지 성명 발표 안
- 13. 김재순 서울대 총동창회 명예회장(제 15-18대 회장 역임)의 재임중 재미 동창회 발전에 기여한데 대한 재미 총동창회의 감사문 발표안
- ⑭ 각 지역 동창회 현황보고 각 지역 동창회 대표 인사 및 폐회선언 이용락 회장

재미서울대학교 제11차 정기 평의원회 평의원 명단(2002년 6월 15일)

◇동창회 본부 당연직 평의원: 명예회장 **吳仁錫**(법대 62년 졸), 재미 총동창회장 **李龍洛**(공대 53년 졸), 수석부회장 **吳興祚**(치대 61년 졸), 미주관악후원회 부회장 **宋順英**(문리대 56년 졸), 사무총장 **具瓊會**(의대 65년 졸), 직전 사무총장 **金容學**(법대 75년 졸), 미주 관악후원회 직전 부회장 **金基泰**(법대 74년 졸) ◇뉴욕 지부 회장 **韓昌燮**(문리대 62년 졸), **金鐘律**(사범대 55년 졸), **金榮德**(공대 58년 졸), **崔洙容**(상대 60년 졸), **權泰興**(사범대 58년 졸), **尹征玉**(약대 54년 졸), **李典九**(농대 64년 졸), ◇남가주 회장 **任洛均**(약대 68년 졸), **李清光**(상대 68년 졸), **徐永錫**(의대 61년 졸), **곽철**(법대 68년 졸), **李名相**(문리대 63년 졸), **方錫勳**(농대 61년 졸), **全熙澤**(의대 64년 졸), ◇시카고 회장 **韓在殷**(의대 65년 졸), **張基南**(문리대 62년 입), **宋宰鉉**(의대 52년 졸), **崔日柱**(공대 55년 졸), **蘇鐵文**(치대 62년 졸), ◇워싱턴 DC 회장 **陳今燮**(약대 63년 졸), **李英默**(공대 63년 졸), **方恩鎬**(약대 45년 졸), **郭 洪**(의대 51년 졸), **白 梅**(법대 62년 졸), 필라델피아 회장 **姜英培**(수의대 63년 졸), 직전회장 **李惠媛**(의대 61년 졸), **徐重民**(공대 72년 졸), **金溶植**(약대 70년 졸), ◇뉴잉글랜드 회장 **李在新**(공대 62년 졸), **姜慶植**(문리대 59년 졸), **鄭正旭**(의대 66년 졸), 평의원 **朴京民**(의대 59년 졸), ◇워싱턴주 회장 **許允行**(사대 57년 입), **黃秀澤**(의대 71년 졸), ◇휴스턴 회장 **金榮昌**(공대 64년 입), **李郁培**(문리대 66년 졸), ◇미네소타 회장 **金泰煥**(의대 64년 졸), **金畢珠**(농대 60년 졸), ◇조지아 회장 **金在喆**(공대 69년 졸), **趙德盛**(공대 78년 졸), ◇샌프란시스코 회장 **鄭助雄**(공대 60년 입) **林承快**(문리대 70년 졸), **鄭地善**(상대 64년 졸), ◇오레곤 회장 **羅濟寬**(공대 76년 졸), **朴昌成**(사대 76년 졸), ◇유타 회장 **韓成洋**(문리대 69년 졸), **孫洪鏞**(공대 62년 졸), ◇하와이 회장 **鄭在勳**(농대 59년 졸), **具海根**(문리대 66년 졸), ◇하트랜드 회장 **李相文**(상대 61년 졸), **金好元**(치대 56년 졸), **鄭東鶴**(공대 55년 입), ◇아리조나 회장 **尹成洙**(공대 51입), **崔允根**(공대 63년 졸), ◇달라스 회장 **李秉規**(약대 61년 졸), **崔權子**(약대 68년 졸), ◇중부펜실바니아 회장 **宋在勳**(공대 87년 졸) **李秀京**(자연대 85년 졸), ◇캐롤라이나 지부 발기위원장 **金祺鉉**(문리대 56년 졸) <워싱턴 DC의 **朴允洙**(문리대 52년졸) 총동창회 고문과 조지아 지역 **朴熙昌**(문리대 60년졸) 전회장이 평의원 대행으로 참석하였으며 **볼드체로 표시된 분은 이번 평의원회에 참석한 분임**>

▼아래 사진 첫째줄 좌로부터 모국 순방단의 윤근한, 명태현, 한두진 동문과 임광수 총동창회 회장, 이용락 재미총동창회 회장, 오인석 명예회장, 오홍조 수석 부회장, 박윤수 총동창회 고문, 송순영 관악부회장, 둘째줄 좌로부터 서있는이가 구경희 사무총장(밖의 사진), 남가주의 이청광, 임낙균, 서영석, 곽철 및 방석훈 평의원, 시카고의 한재은, 소진문, 송재현, 최일주 평의원, 하트랜드의 이상문, 김호원 평의원과 김기현 캐롤라이나 지부 준비위원장, 셋째줄 좌로부터 남가주 동창회의 백옥자 동문, 워싱턴 DC의 이명욱, 방은호 평의원, 조지아의 김재철, 박희창, 뉴욕의 한창섭, 뉴잉글랜드의 박경민, 강경식 평의원, 모국 순방단의 박영준, 우인성, 공대시 동문, 박영규 총동창회 감사, 전현일 재무국장, 김정주 총무국장, 기록원 최진백 동문, 뒤에 행사 촬영중인 김중준 총동창회 기획 관리부장과 기록원 이형준 동문(사진 밖에 김정수 회보 편집인), 오른쪽 위에 워싱턴 DC의 전금섭 평의원이며 아래쪽이 시카고의 장기남 평의원.



평의원회 진행경과 抄錄

재미총동창회 제 11차 정기평의원회는 7시부터 일찌기 아침 (林光洙 총동창회장 초청)을 마친 평의원들이 회의장인 Kennington Room에 입장하여 예정된 9시에 李龍洛(공대 53년졸) 재미 총동창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되었다.

<개회인사>

李회장은 간단한 개회인사에서, "불순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미주 각지에서 참석하신 평의원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재미총동창회 발전을 격려하기 위하여 본국에서 오신 임광수 회장을 비롯한 서울총동창 순방단의 내방을 환영한다"고 하였다.



또한 李會長은, "오늘 제 11차 정기 평의원회는 母校를 世界的인 先進高等教育機關으로 발전시키는 牽引車의 役을 담당하고자 하며, 光輝한 福이대륙에서 지리적으로 멀리 산재해 있지만 同門修學의 인연으로 한 가족을 구성하는 우리 7000여 재미동문들의 발전을 성원하는 조직으로 성장한 재미총동창회의 한해의 살림살이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또 어제의 심포지움에서 네분의 발제자들이 제기하고 토론한 문제는 1)이제 전국적인 조직으로서 존재를 확립한 재미총동창회의 존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떻게 對外的인 사업과 對內的인 사업의 추진에 있는 적절한 均衡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2)또 이러한 목표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떻게 제한된 財源을 조달하여 효과적인 집행을 할 것인가? 3)재미총동창회가 당면한 문제는 자연적으로 老齡化해가는 재미총동창회의 회원들을 이어갈 새로운 회원의 충원 부족이나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人的 物的 교류의 시간과 공간이 급격하게 축약되는 세계화의 추세 하에서도 여러가지 사회 경제 법적인 제약 요인이어서 어떻게 새로운 회원을 영입할 것인가? 4)이를 위하여 한국과는 다른 미주땅의 생활 교육 환경에서 자라난 우리 동문들의 자녀세대인 '1.5세대와 2세대'의 관계를 우리 동창회가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5)동문들간의 친목과 우정의 가교인 재미총동창회보 발행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할 것인가? 6)지역동창회의 활성화를 통하여 재미총동창회의 발전의 동력과 활력소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역 동창회 조직을 재정비하고 총동창회관을 마련하는 등의 未來의 靑寫眞도 이번 평의원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그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라고 하였다.

<別世동문 가족에 대한 묵념>

이어서 별세동문과 가족들을 위하여 이용락 회장이, "지난해에도 많은 동문과 가족들이 미주 땅에서 開拓者의 삶을 사시다가 별세하셨다. 이분들을 위해 묵념을 드리자"는 發願으로 평의원과 참관자 일동의 묵념이 있었다.

<성원보고>

평의원회의 의사진행정 성원에 관하여, 회의 진행을 맡은 구경회 사무총장은 그동안 "평의원 66명중 28명이 참석을 통지해왔고 투표권의 위임장(proxy)을 제출한 8명을 포함하여 36명의 평의원으로서 이번 평의원회가 전체 평의원의 과반수를 넘어 의결 정족수의 成員"을 이루었으며 아직 교통편 사정으로 지금 오고 있는 분도 있다고 보고하였다[실제 참석자는 24명과 위임장 제출 12인으로 총 38명으로 성원이 됨].

<본국 순방단 및 평의원 소개>

이용락 회장으로 부터 본국 순방단 소개가 있었는데(예년과 달리 母校로부터는 이번에 참석자가 없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월 11일자로 이현구 부총장은 모교를 대표하여 "학내사태에 따른 후임총장인선"등의 문제로 참석하지 못함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재미총동창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한다는 통신문을 보내왔음), 이번 순방단은 총동창회의 임직원 8명으로만 구성되었는데, 이 일행을 林光洙 총동창회 회장(공대 52년 졸업), 韓斗鎭(의대 56년 졸업), 尹勤煥(농대 54년 졸업) 및 孔大植(공대 60년 졸업), 부회장 明泰鉉(공대 50년 졸업) 관악회 감사, 禹仁性(공대 62년 졸업, 기계회장), 朴英俊 감사(상대 66년 졸업) 동문 및 서울 총동창회 본부의 김종준 기획관리 부장의 순서로 소개하였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중인 구경회 사무총장이 회의를 이도해가며 참석 평의원과 참관자들을 중앙정면 탁자로부터 앉은 순서대로 소개하였다<참석한 평의원과 참관자 명단 4면 참조>.

본국 순방단은 이용락 회장의 우측에서부터 총동창회 회장 임광수, 한두진, 명대현, 윤근환, 우측탁자에 공대식, 우인성, 박영준 동문의 순서로 착석하였다.

<본국 총동창회장 격려사>

林光洙 본국 총동창회장(제 19대 회장, 공대 52년졸)의 격려사가 있었는데, "평소에 母校를 사랑하는 재미 서울대인들의 結束에 값은 감사"를 보내며 여러 동문들의 지혜와 도움으로 맡은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서울대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구호(catch

phrase)아래 주어진 책무를 다할 각오임을 표명하였다. 林회장은 재임중 중요과제를 "獎學 사업확대" 및 "母校지원 사업"이라 하고, "장학사업 확대와 더불어", 20만 서울대인을 위한 동문회관 新館 건립추진, 대학 발전 사업의 내용(contents)개발, 논의되고 있는 母校를 위한 知的 奉仕團 활동지원, 현재 작업중인 서울대 人名錄 발간 등을 추진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 林회장은 "서울대인이 있는 곳에 조국의 장래가 있다"는 자긍심과, 봉사하는 Elite로서의 의식인 "도덕적 책무(Noblesse Oblige)"정신을 강조하고 "월드컵 16強 진출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國家 位相이 높아진 지금, 재미동문들의 矜持 및 母校의 校格도 높아 지기를 바란다는 요지의 격려사를 하였다(격려사 전문 7면 참조).

<공로패 수상자 발표>

공로패 증정의 순서에 들어가 본국 총동창회와 재미 총동창회가 수여하는 공로패 수상자로 NY남가주 지역 동창회의 동문들이 발표되었는데 본회에서는 시간관계로 임광수 총동창회장이 시카고 지부 회장을 지낸 조대현 동문을 대신하여 한재은 시카고 지역 동창회장(의대 65년 졸)에게 수여하고 나머지는 관악후원의 밤 만찬장에서 수여하기로 하였다.

<공로패 수상자>

이번 평의원회 공로패 증정순서에서는 재미총동창회에서 수여하는 공로패 수상자로 재미총동창회 발전에 기여한

- 吳仁錫 동문 (법대 62년졸, 총동창회 제 4대 및 5대 회장)
- 金基泰 동문 (법대 74년졸, 총동창회 5대 관악부회장)
- 金容學 동문 (법대 75년졸, 총동창회 5대 사무총장)
- 李慶林 동문 (상대 64년입, 총동창회 5대 재무국장)
- 金好元 동문 (차대 56년졸, 전 하트랜드 지역 동창회장)
- 文成吉 동문 (의대 70년대졸, 전 워싱턴DC 회장, 지역동창)
- 李清光 동문 (상대 68년졸, 전 남가주 동창회장)이 발표되었다. (개인별 수상공적 사항은 다음호에 보도 예정)
- 또 본국 총동창회에서 해외 동창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로 시카고 지역 동창회에서 曹大鉉(공대 61년졸), 崔順分(간호대 60년졸), 李勝子(사대 64년졸), 金虎範(상대 73년졸) 동문, 남가주 동창회에서 李清光(상대 68년졸), 成周慶(상대 72년졸), 金知榮(사대 73년졸) 동문, 뉴욕지구 동창회에서 崔澈容(농대 63년졸), 鄭澤洙(문리대 51년졸), 金世中(공대 57년졸), 成善魯(약대 61년졸), 秋載玉(의대 63년졸) 동문을 선정 발표하였다.

그 개인별 시상식은 이날 저녁에 개최되는 관악후원의 밤과 林光洙 총동창 회장의 각지역 동창회 순방시에 하기로 하였다.

<전 회의록 낭독>

김정주 총무국장이 회의록 낭독 순서에 들어가, 작년도의 제 10차 평의원회의록을 시간 관계상 서면 보고로 대처하자고 하여 평의원회는 이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사업보고>

구경회 사무총장으로 부터 사업보고가 있었다.

1)회보발간 사업에 관하여, 자료은행에 7천여명이 원대 등재되었으나, 현재 주소이동 등으로 회보발송이 4200부까지 내려갔다가 현재는 4600부정도 개별 발송되며 별도로 본국(60부), 캐나다 3개 지역에, 밴쿠버(50부), 토론토(30부), 에드민턴(30부), 온타리오(30부) 및 주미 대사관(25부) 및 NY의 유엔 대사관에(225부) LA총영사관(5부)에 별도 발송하고 있으며, 각 지역동창회와 전문직인인 협회(professional societies)와 접촉하여 신규 등록 회원을 확대하며, 회원을 증가시키는 과제가 중요하다고 하고 2)회보 발간재원의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년에 회보구독료 납부 숫자의 증가에도(회의 당일 현재 1318명 납부)불구하고 동문들의 관악후원회 이사 추대가 계속필요시 되며 지역동창회의 노력이 요청된다고 하였다.

끝으로 김 사무총장은 현재 총동창회에 소속한 지역 동창회가 18곳인데, 지금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동창회조직이 진행중이라고 보고하였다.

<관악후원회 사업보고>

송수영 관악후원회 부회장이 관악후원회 사업 보고에 있어, 제 5대 집행부때는 후원회원 178명이 가입하여 \$123,812 납입되었던 반면에, 제 6대 집행부 첫해인 금년에는, 130명이 (\$67,370) 납부하였는데, 이중 재미총동창회의 기초재원 적립을 위하여 네 분의 동문-전희택(의대 64년 졸), 윤정욱(약대 54년 졸), 한홍택(공대 64년 졸), 조시호(문리대 63년 졸)-이 각 3000불씩의 종신 이사비를 납부하였으며, 이정광(상대 68년 졸) 동문이 종신이사비 약속 잔여분인 \$1,500을 납부하여 총액 \$13,500을 금년에 추가 적립하게 되어 전체 적립금은 NY로부터 이관분 \$43,500을 합하여 \$57,000이 된다고 하였다.

宋관악부회장은 지역별로 대비할 때에 후원회비 납입에 있어 시카고 지역만이 크게 증가하고 타지역 동창회는 감소한 추세를 보였다고 하며 이 관악후원회비는 전체 동문들에게 배포되는 "재미 총동창회보" 간행과 앞으로 구상중인 사업들의 재원이므로 각 모든 지역동창회에서 地域의식을 초월하여 참여해 줄

것과 각 평의원들이 거주 지역에 돌아가 동문들의 후원회 가입을 적극 권장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결산보고>

전현일 재무국장으로부터 지난 7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의 예산집행에 관한 假決算 보고가 있었는데 세입이 \$125,908이며 세출 총액은 서울의 총동창회 기여금 \$11,000을 제외하고는 거의 회보발간에 들어간 직접 간접 비용으로 이 보고서에는 \$114,805로 현재 黑字이나, 여기에는 아직 5월, 6월의 회보발간 및 이번 평의원회 행사비용의 예산 집행이 안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 결산에는 기타 지출 항목으로 재미총동창회가 지역동창회로부터 모금한 금액 \$8,683을 합하여 \$11,000을 본국 총동창회에 기여한 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언급하였다.

<새해 예산안 편성>

全재무국장은 내년도 豫算案의 제안 설명을 하였는데, 2003년 7월 1일부터 남가주 총동창회 본부와 회보발행지가 移轉되나 7월호 회보발간 비용을 포함한 13개월 동안의 예산으로 \$167,590의 지출이 예상되므로, 이를 조달하기 위하여 1만불의 黑字 예산 총액 \$177,800을 편성하였음을 보고하였다. 현재 구독료 수입이 회보발행예산(월 \$10,000이상)전체의 반을 밑돌며, 관악후원 회원 증가의 한계 등에 비추어, 발간 비용 증가와 인건비 인상요인 등으로 구독료의 인상이 불가피하며, 이 예산에는 \$60로 인상된 구독료 납입 회원 숫자 1600명을 목표로 편성한 것이라고 하였다.

<감사보고>

이 결산 보고에 대하여 박영규 감사는, "수입 지출에 이상이 없고 잔고는 은행 보고서와 비교하여 이상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또 차 감사는 6월 말 회계년도 종결 후 IRS보고서에 정식 감사 보고서 첨부할 예정이라고 하였고 평의원회는 위의 결산안과 예산안을 추가 토론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모교와 후진을 위한 기금>

母校와 後進을 위한 基金 보고서에서 吳仁錫 기금위원장(법대 62년졸)은 지난해에 총액 \$24,190이 모금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이 모금액에는 기금위원회에서 직접 접수한 방은호동문(약대 45년졸)의 약정금 \$10,000과 총동창회 본부에서 접수한 워싱턴 DC 지역 동창회에서 제작 기여한 조수미 음악회 CD 266장의 판매액과 20명의 동문들의 기여금 \$14,190이 포함되어있었다고 하였다.

吳 위원장은 출연자 명단에 회보에 게재되어 있으며 이번 모금액은 회계년도 종료 직후에 기금 적립 구좌에 즉시 적립 될 것이라고 하였다.

<6면에 계속>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제11차 정기 평의원 회의 抄錄

<5면에서 계속>

<2003년도 사업계획 심의>

평의원회는 통상적인 고유업무의 심의를 끝내고, 금년 평의원회의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였는데, 내년의 제 12차 평의원회(2003. 5. 31(토)~6.2(월) 남가주에서 개최됨)의 평의원 명단은 앞으로 지역 동창회에서 보내오는 명단을 종합하여 후에 추진하기로 하였다.

<회칙의원 선출>

작년에 개정된 재미 총동창회 정관에 따라 회칙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회칙위원을 선출하였는데, 이날 회칙위원으로는 이용락 회장이 추천한 뉴욕의 김용학(법대 75년 졸)평의원, 워싱턴 DC의 진금섭(약대 63년 졸)평의원, 뉴잉글랜드의 강경식(문리대 59년 졸)평의원, 시카고의 문병훈(사대 47년 입, 전 시카고 지역 동창회장) 및 남가주의 방석훈(농대 61년 졸)평의원을 만장일치로 선출하였다. 이어 각 지역 동창회의 현황 보고에서 참석한 지부 대표로부터 뉴잉글랜드(강경식), 뉴욕(한창섭 회장), 조지아(김재철 회장), 워싱턴(이영목 차기회장), 하트랜드(이상문 회장), 시카고(한재은 회장), 남가주(임낙균 회장과 백옥자 사업국장)의 지금까지 회보상에 보도된 내용들과 같은 현황과 사업 보고가 있었다.

이 중 특기할 것은 남가주의 임낙균 평의원이 기존의 총동창회 website를 활성화하여 각 지역 동창회의 Home Page들을 연결하면 현대적인 통신수단으로 각지역 동창회와 총동창회를 활성화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추진 할 것을 제안하였고 평의원회는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캐롤라이나 지역동창회 인준>

노스 캐롤라이나에서 지부발기 준비위위원장으로서 이번 평의원회에 참가자로 특별 초청된 김기현 동문으로부터, 그 지역 30명의 동문들로서 동창회 발기위원회가 구성되

어 있으며 지역동문들의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의 한국학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평의원들은 노스 캐롤라이나 지부의 설립을 인준하고 그 지부 명을, 조지아 지역동창회의 반대에 따라, “남부지부 동창회” 대신에 “재미 서울대학교 동창회 캐롤라이나 지부”로 명명하였다.

<회보구독료 60불로 인상>

동창회보 구독료 인상을 상정하여, 60불 인상안(재무국장)에 추가하여 65불 (방은호 평의원), 광고를 활용하지는 인상보류안(방석훈 평의원) 및 100불안(소진문 평의원)을 두고 논의한 끝에, 참석 평의원 24명중 15명이 찬성한 \$60로 구독료 인상안이 통과되었다.

<지역동창회 기여금>

서울 총동창회에 보낼 재미 총동창회 기여금을 금년에도 작년과 같은 금액인 \$11,000로 하자는 案이 17명이 찬성하고 반대자 2명으로 가결되었으며 총동창회는 이를 각 지역 동창회 별로 예년과 같이 배당하여 모금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에는 지역동창회로부터의 재미총동창회 지원금 \$10,000이 가결 예상 책정되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시카고 지역동창회 (\$4,000), 하트랜드 지역동창회 (\$1,000), 뉴욕지구 약대동창회 (\$1,000), 뉴잉글랜드 지역동창회 (\$500)등 총 \$6,500의 지원이 있어 재미동창회보의 발간사업을 지원한 바 있다.

<지역동창회와 총동창회 IRS 통합보고와 면세지위>

총동창회가 미 연방 조세청에서 인가받은 면세지위(Tax exemption status)를 이용하여 각 지역 동창회가 확보한 기여금과 지출등의 결산에 활용 가능하게 한바 있다. 이 면세 지위의 유지를 위하여 그 필요조건으로 각 지부도 총동창회와 통합하여 연방 재정 회계연도인 6월 30일 종료 후 IRS 보고서를 8월말까지 제출해야 되는 바, 총동창회에서 통일된 표준 재무 보

고서 양식(template)을 마련하여 지역 동창회에 보내기로 하였다. 이 면세지위의 유지를 위하여서는 총동창회 뿐 아니라 지역 동창회의 IRS 재무보고서 統合報告가 義務 조항임을 명심하고, 각 지역 동창회는 준비를 하기로 하였다.

<새로운 동문찾기>

이번 평의원회의 심의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충분한 토의를 하지 못한 안건으로 '신입회원 등록 발급'을 위하여 각 지역동창회가 지역 일간 신문에 매년 두번째 신규 동문 등록을 안내하는 광고의 게재를 권장하였으므로, 일반 동문들께서는 이우에 온 새 동문들을 찾기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고있다.

<관악후원회 종신이사비 납부와 사용에 관한 건>

이번 회의에서는, 매년 당면하는 재미총동창회의 재정적인 애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재은 평의원(시카고 지역동창회장)으로부터 두개의 긴급 동의안이 상정되어 가결되었다. 즉 첫째 제안은 관악후원회비 종신이사비 2년 분할 납입할 수 있다는 案이며 둘째 안은 (한국적인 정서 상 총동창회 본부가 있는 지역동창회의 특별지원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총동창회 본부 소재 지역 동창회원들로부터 종신 이사회비 납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미주총동창회의 안정적 재정이 확보됐다고 인정될 때까지는 본부소재 지역 동창회에서 납입된 종신이사비는 그 \$3,000중 2/3만 적립하고, 1/3인 \$1,000은 당해 년도의 총동창회의 경예산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동의안이 장시간의 격론 끝에 표결에 붙여 9:9의 가부 동수였으나 이를 재투표 끝에 총동창회 7대 집행부가 소재 할 남가주지역 평의원들이 이 동의 안에 찬성하여 13:9로 가결되었다.

<미주 이민 100주년 기념하는 재미 총동창회 성명과 김재순 총동창회 명예회장에 대한 재미 총동창회의 감사문 결의>

이번 평의원회는 두개의 결의안이 발안되어 채택되었다. 그 첫째는 내년이 한국인의 미주이민 100

덕유산 휴게소 詩碑

희망의 새길을 가리라

김용태

꽃이 핀다.
꽃이 진다.
한반도 복판을 달린다.
푸른 산맥들이 솟아게 달려오고,
들판을 질러가던 강물이
산굽이 돌며 출렁인다.
해가 뜨고
해가 진다.
달리는 차창에 그리운 얼굴들이 별처럼 박힌다. 오 정다워라
고향마을 언덕에 노타나무야
환한 달이 뜨던 동산아
산 넘어 저녁이 오고
강을 건너 아침이 온다.
반도 복판 새 세상을 달리며 보아라
하늘 아래 길들을 모두 그대 뒀을 따르고
이 세상 길이란 길들은 모두
그대 앞에 펼쳐 지나니
이제 여기 덕유의 푸른 산자락 아래
가쁜 숨결 고르고
그리운 얼굴들을 찾아 달려가리라
희망의 새 땅을 찾아 달려 가리라

(2001. 11. 21)
대전 - 진주간 고속도로 연장 16Km
덕유산 휴게소에서

주년이 되는 해이므로 서울대 동창회명으로 선문언이라도 낼 것을 박경민, 뉴잉글랜드 이민 백주년 기념 사업위원장 및 박윤수, 워싱턴 DC 기념사업위원장이 제안하여 참석 평의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그 두번째의 동의안은 방은호 평의원(워싱턴 DC)이 발안한 “지난 8년간 서울의 총동창회의 제 15~18대 회장을 역임한 김재순 현 명예회장의 재미 총동창회 발전에 기여한 노고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재미 총동창회의 이름으로 이를 전하자”고 하여 참석 평의원들이 전원 박수로 채택하였다.

<평의원회 회의 종료>

이날 평의원회는 오후 2시경 상정안건을 전부 심의하고 회의를 일찌기 종료하게 되었는데 평의원회의 종료직전에, 평의원회 진행 및 발집 때문에 이석하여 생각된 회보 편집인의 보고순서에서 “수고하는 회보편집인 10분 이상 발언해도 좋다” (남가주 이청광 평의원)는 평의원들의 요청에 등단한 金正守 편집인은, “재미 총동창회 편집인은 동문 독자와 함께 하는 집행부와는

별개의 독립된 존재”라고 하며, 여러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회보 발간을 지원하는 특별성금(미주 관악 후원회비)을 내는 동문들의 성의 보답하여, 재미총동창회 발간위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서는 이를 모두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 적립하는 종신이사회비 뿐만 아니라 “관악후원회비는 납입된 금액의 많고 적음과는 상관없이 미래를 위하여 모두 적립하고”, 각 지역동창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얻어 “동문 전원의 구독료 납부운동을 전개함”이 모두가 수궁할 수 있는 일관적 원칙과 방향일 것이라 하여 관악후원회 종신이사회비의 일부 사용에 관한 결의에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였다. 강경식 평의원의 동의로, 평의원회 아침 9시에 개최되어 오후 2시에 점심도 도시락으로 대처한 채 5시간 동안의 연속 회의후에 이용락 회장의 폐회선언으로 끝났다.

또한 내년의 제 12차 평의원회의는 제 7대 집행부의 소재지가 될 남가주의 Los Angeles에서 5월 31일(토)에서 6월 2일(월)에 개최된다.

평의원 및 순방단 환영만찬

평의원회의를 마친후 오후 6시 55분부터 Prince of Wales룸에서 총동창회 순방단과 평의원을 비롯해서 시카고지부 동문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진문 평의원의 제의로 교가 제창으로 환영만찬을 가졌다.

李龍洛 회장은 환영사에서 "14일과 15일 양일간에 걸쳐서 재미 총동창회의 존재목적과 당면한 문제들을 점검하는 창설 10주년 심포지움과 5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

의로 진행되어 재미총동창회의 살림살이를 점검하는 평의원회의가 성공적으로 완결된 것을 감사하며 전미주와 모국에서 재미총동창회의 발전을 위하여 내방하신 평의원과 모국순방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하였다.

林光洙회장은 만찬사를 통해 "우리 서울대인이, 또 우리 서울대 동창회는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서울대인의 人格이, 우리 모교인 서울대학교의 校格

이,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의 國格이 바로고 당당함에 있어 책임 있는 자세와 부단한 자기 연마를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林회장이 재미동창회 관악후원회에 5천달러를 출연했으며, 또한 관악회 明泰鉉이사가 순방단 전원이 모은 2천달러를 관악후원회에 전달했다. 한편 시카고지부 활성화를 위해 공헌한 崔順分(60년 看護大卒)·曹大鉉(61년 工大卒)·李勝子(64년 師大卒)·金虎範(73년 商大卒)동문에게 총동창회 林光洙회장이 공로패를 증정했다.

재미 총동창회 李龍洛회장은 및

仁錫 명예회장, 文成吉 前워싱턴 DC지부회장, 金好元 前하트랜드 지부 회장, 李清光 前 LA지부 회장, 金容學 前시무총장, 李慶林 前 재무국장, 金基泰 前관악후원회 부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어 UIC 명예 교수인 高秉喆(59년 法大卒)동문이 「남북한 관계의 현황과 전망」이란 주제의 특별강연을 통하여 6·15남북공동성명의 이행과정을 조목조목 남북한 관계를 사례별로 점검하여, 남북한 경제협력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체제보존과 자주사상, 악화된 북한경제 상황에 비추어

ush행정부의 강경노선 등으로 북한의 전술적인 대화정책의 가능성은 있으나, 여전히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한 상태에 주목하여 高동문은 조심스러운 관측자의 자세로 남북관계를 전망하였다. (강연내용은 이번 회보 10면과 11면 참조). 마지막으로 李昭姬(88년 音大卒)동문의 피아노 연주로 테너 金榮錫(78년 音大卒)동문과 소프라노 李修鼎(92년 音大卒)동문이 프치니의 라 보옌 「O Soave Fanciulla」와 동서양의 가곡을 열창했다 (동문음악회의 자세한 보도는 다음호에).

林光洙 서울대 총동창회 회장의 재미총동창회 제11차 정기평의원회 격려사

<全文>

◇일시 : 2002년 6월15일 9시30분

◇장소 : Oak Brook Hills Hotel, Kennington Room.

尊敬하는 在美總同窓會 李龍洛 會長님과 朴允洙 顧問님, 姜洙祥 顧問님, 李丙俊 顧問님, 吳仁錫 名譽會長님, 吳興祚 首席副會長님을 비롯한 美洲 각 支部를 대표하여 이 자리를 빛내 주신 評議員 여러분! 그리고 先後輩 同門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정녕 반갑습니다.

지난해 바로 이곳, 우리 韓國人 이라면 항상 知的 憧憬을 불러 일으키는 시카고에서 열린 第10次 評議員會議에는 제가 서울大 總同窓會 首席副會長으로 參席했습니다. 올해는 總同窓會 會長으로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感懷가 새롭습니다. 지난 3월 15일 서울에서 열린 總同窓會 定期總會에서 저는 在美同門들의 以心傳心은 勿論, 國內 各界各層 同門들의 聲援에 힘입어 서울大 總同窓會 第19代 會長에 選任되었습니다. 不足한 點들은 國內外 高名하신 여러 同門들이 채워 주시리라 굳게 믿고 「서울대가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는 Catch Phrase 아래 總同窓會會長에게 주어진 責務를 다할 생각입니다.

平素 先後輩 同門 여러분의 母校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바가 있어 바쁘신 日程에도 不拘하시고, 또 遠近을 마다 않고 美國 各地에서 枉臨하시어 우리 在美 서울大의 結束과 紐帶를 보여 주신 데 대하여 서울大 總同窓會會長으로서 感謝의 人事를 드립니다.

그동안 在美總同窓會에서는 「冠岳後援會」를 結成하여 同窓會의 財政自立 및 同窓會報의 持續的인 發刊·配布에 커다란 精誠과 努力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再昨年부터는 「母校와 後進을 위한 1百萬불 基金」募金運動을 펼쳐면서 母校와 本國 同窓會를 後援하는 等 獻身的이고도 積極的인 活

動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우리 在美 서울大의 壯한 偉業이라 믿어 기쁘고 가슴 뭉뚱하기 이루 말할 데가 없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在美同窓會 活性化를 爲해 盡力하고 계신 李龍洛 會長님을 비롯, 宋舜英 冠岳後援會 副會長, 具瓊會 事務總長, 金正周 總務局長, 全鉉一 財務局長, 張基南 涉外局長, 丁浩 出版局長, 在美同窓會報 金正守 編輯人等 在美同窓會 本部 任員 여러분과 시카고 支部 同門에게 感謝드리면서, 우리 모두 뜨거운 激勵의 拍手를 이분들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拍手)

感謝합니다. 敬愛하는 在美同窓會 評議員 여러분! 先後輩 同門 여러분!

同窓會長 就任辭를 통해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앞으로 우리 母校와 同窓會의 밝은 來日을 尙해 率先垂範하면서 힘차게 前進해 나아갈 生覺입니다. 이를 위한 當面한 課題로서는, 무엇보다도 獎學事業을 擴大하고 母校發展을 爲한 支援을 劃期的으로 擴充해 나가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첫째, 獎學金을 大幅 誘致하여 優秀하고 經濟的으로 어려운 後輩들을 積極 支援하겠습니다.

둘째, 母校의 切實한 要望과 同門들의 念願을 充分히 受容하여 20萬 서울大 同門의 요람이 될 수 있는 同窓會館 新館 建立을 推進하겠습니다.

세째, 母校가 世界水準의 綜合大學으로 발돋움하는데 各界同門들의 協助를 구하면서, 大學發展을 爲한 콘텐츠(Contents)를 가꾸는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이는 在美同門들께서 發意하여 推進中인 「서울大 學校 知的自願奉仕團」의 構成과 活動을 具體化하면



서, 國內 各界各層 同門의 參與를 誘導해 가는데 必須不可缺하기 때 문입니다.

올해 6月末 頃 선보일 「서울大 人名錄」亦是 서울大의 휴먼네트워킹(Human Network)를 통한 母校發展의 基礎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못할 것도 없습니다. 國內外 20萬餘 同門이 舍心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으리라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在美 同門은 勿論, 海外 各地域에서 活動하고 계시는 多才多能한 同門들의 參與와 協力을 期待해 마지 않습니다.

親愛하는 同門 여러분!

어느 나라건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主導勢力이 있는 法입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우리 나라에서는 그런 主導勢力이 形成되지 못한 가운데 地域主義와 情實主義에 얽혀 彷徨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달리 生覺하면 主導勢力을 이루지 못한 우리 서울大들은 스스로 責任感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Elite 集團이라고 할 수 있는 大學이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主導勢力이 되는 것은 새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는 事實입니다. 조금 늦기는 했지만 어느 分野에 있든지 간에 서울大인이

있는곳에 祖國의 將來가 있다는 自矜心과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즉 높은 身分에 따른 道德上의 義務와 公人的 責務를 透徹하게 認識하고 實踐하는 扎实的 Elite 意識을 가져야 합니다. 즉 君臨하는 엘리트가 아니라 獻身하고 奉仕하는 엘리트로서의 리더십을 涵養하고 具現해야 할 때입니다. 서울大이 다시 한번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法과 原則이 通하는 社會를 責任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奮發하여야겠습니다. 이러한 實踐은 結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자기 分野에서 最高의 專門能力, 健康한 職業倫理 意識, 世界化·情報化時代를 Lead할 수 있는 유연한 思考, 어떠한 狀況도 突破할 수 있는 推進力과 實踐力을 함께 갖춘 21世紀의 서울大人像을 다함께 定立해 나가는데서 出發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激變하는 狀況속에서 未來에 對한 希望과 勇氣를 찾아 在美 同門 여러분께서 뜻과 힘을 합하여 前進하는 큰 걸음을 내디딭시다. 아직도 不足한 點이 많은 사람으로서 母校와 同窓會를 爲해 얼마만한 實績을 쌓아갈 수 있을 것인지는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여러 同門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베풀어주시는 것과 같은 사랑과 鞭撻이 뒷받침된다면, 제가 맡은 任期동안 여러분의 期待에 조금이라도 報답할 수 있도록 最善을 다할 覺悟를 分明히 밝히는 바입니다.

尊敬하는 評議員 여러분!

우리 祖國 大韓民國에는 21世紀 들어 60億 人類의 한마당 大祝祭인 월드컵 蹴球競技大會가 지난 5월 31日 開幕되었고 유럽의 강호 폴란드를 2:0으로, 포르투갈을 1:0으로 擊破하여 48年만에 월드컵 첫 勝과 16強 進出의 快舉를 올렸습니다. 이러한 世界的인 行事가 國民의 自矜心과 國家 이미지 提

高로 異域萬里에서 苦生하시는 우리 同胞들을 한데 묶으면서, 勇氣를 줄 것입니다. 이를 契機로 우리의 母校도 校格을 한껏 높이고, 우리나라의 國格도 한층 높아지길 다함께 期待하십니다.

더불어 現在 母校에서는 前任 李基俊 總長의 退任으로 「새 總長候補選定委員會」가 結成되어 候補者 審査가 完了되고 6月 20日 投票를 거쳐 7月初末 新任 總長이 就任하리라 봅니다. 여러분께서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母校의 國際 科學論文引用索引(SCI)指數가 98年 世界 大學中 94位에서 2000年 55位로 浮上한데 이어 지난해는 世界 40位로 Rank됨으로써 母校가 名實相符한 世界的 競爭力을 갖춘 綜合研究大學으로 跳躍하는 발판을 마련했음을 자랑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이는 前任 李基俊 總長을 비롯하여 母校 教職員 여러분께서 渾身の 努力을 기울여오신 功勞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母校發展을 主導하고 後援하신 教授님과 教職員 여러분에게 感謝와 激勵을 드리기 위해 지난 5월 26日 서울에서는 母校 謝恩行事의 一環으로 第4回 母校·同窓會 親善골프大會를 開催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尹烜玉 會長님께서도 貴한 時間을 함께 내주셨지만, 世界水準의 綜合研究大學으로서 서울大의 正體性과 그 位相을 올바르게 定立하고, 또 母校의 發展方向을 構築해 가는데 教職員은 勿論 同窓會 任員 여러분의 役割과 聲援이 함께함을 確認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祖國 大韓民國의 國運이 더욱 隆盛하면서, 自由民主主義와 市場經濟 秩序가 더욱 鞏固되기를 祈願하면서, 또 우리 母校와 同窓會가 더욱 發展하고 隆盛하는데 美洲地域 同門 여러분의 持續的인 關心과 愛情도 늘 함께 하기를 祈願합니다. 끝으로 이번 第11次 評議員會議을 爲하여 手筈을 아끼지 않으신 在美總同窓會 任員 여러분과 시카고支部 同門 여러분에게 뜨거운 感謝와 敬意를 표하면서 오늘의 人事 말씀으로 代身합니다. 感謝합니다. 2002年 6月 15日 서울大學教總同窓會 會長 林光洙

2부 文筆과 論考 目次

1. 덕유산/ 詩	6
2. 평의원회 격려사/ 임광수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장	7
3. 재미총동창회의 창립의 경과와 제언/박윤수	8
4. 재미 서울대 동창회보100호 간행에 즈음하여/ 이종도	13
5. 우리의 결승골은 통일이다/ 이태상	15
6. 생명의 존엄성과 의학 클로닝/ 김수상	9
7. 남북한 관계의 현황과 전망/ 고병철	10
8. 전시 서울대학교/ 변만식	17
9. 심장마비 예방법/ 정구영	12
10. 대학중의 대학/최희수	15
11. 나의 인생, 나의 삶/ 강경식	16
12. 우리가 선진국이 되려면/ 최경홍	18
13. 사람의 동반자: 지능 로봇의 등장/ 정우진	14
14. 서울대학교의 평가와 세계 굴지의 대학/이기억	25

溫故知新

우리는 과거와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의미를 특정한 시점에서 검토하여 우리 삶의 과거를 점검하고 미래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그 사건의 의미들을 새롭게 반추한다. 이번 달에는 많은 사건들이 문필과 논고란을 지향하고 있다.

우선 한국 축구가 세계 4강의 반열에 진입한 기쁨을 나누었으나 반면 아직도 미해결로 남아있는 분단 조국의 상처가 깊이 각인 되어있는 한국 전쟁의 달이기도 하나 광활한 북미 대륙에 산재하였으나 同門修學의 인연으로 맺어진 7천여 동문들을 연결하는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가 발족한지 어언 11년을 경과하여 이제 조직의 骨格은 갖추었으나, 앞으로 지속적인 자체 발전과 母校를 세계적인 선진고등교육기관으로 高揚하고자 하는 牽引車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일년에 한번씩 자체점검을 하는 재미총동창회 제 11차 평의원회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서로 돕고 사랑하는 우리 동문들이 知性의 友情을 글로써 나누고자 하는 架橋인 재미 동창회보가 100호를 내게 되었다. 이번호에는 이민 1세들로서 미주지역의 각분야에서 開拓者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동문들이 지난날의 학창생활, 건강, 학문, 특히 급변하는 生命工學의 발전의 와중에서 간과하기 쉬운 생명의 존엄성에 관한 가치 문제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또한 떠나는 모국을 발전시키기 위한 미주동문들의 지혜의 논단을 개설하고자 한다. 서울동창회로부터 정우진 동문의 인공지능 로봇에 관한 글을 전제한다. 많은 동문들께서 100호발간을 축하하여 창의적인 욕구를 투고하셨으나, 시의성을 따질 수 밖에 없는 평의원회의 행사보도상 지면부족으로 다음호까지 게재를 미루게 됨을 아쉽게 생각한다.

SNUAA-USA의 창립 經過와 提言

朴允洙(문리대52졸, 재미총동창회 초대회장)



I. 총회 창립 과정

A. 창립동기

1990년 10월 12일에 있었던 서울대학교 개교 44주년 기념식에 조완규 총장의 초청으로 미국 대도시의 동창회장단 5명이 참석하여 한국에 있는 동창회 본부가 새 면목을 갖추고 모교의 발전을 위해서 급격히 기여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대표단의 마음구석에는 우리 미주동창회도 전국적인 조직을 형성하고 모교의 발전을 기여해야겠다는 욕망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B. 재미총동창회 결성 준비위원회

대표단이 귀국 후 곧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 결성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준비위원회는 각 지역동창회의 회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준비위원회는 손수웅(남가주), 진봉일(뉴욕), 배영섭(시카고), 임승쾌(샌프란시스코), 박윤수(워싱턴)의 5명으로 구성되었고 1990년 11월 4일에 개최된 워싱턴지역 동창회 이사회에서는 박윤수(문리대52졸), 조성윤(법대52졸), 김정현(문리대56졸)으로 구성된 재미총동창회 회칙기초 위원회를 인정하였습니다. 회칙기초위원회는 곧 회칙기초에 들어가 1991년 4월 25일에는 회칙초안을 완성하였습니다.

C. 창립총회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창립총회는 1991년 6월 1일 오후 6시 30분 버지니아주 McLean에 소재한 Sheraton Premiere 호텔에서 제18대 조완규 총장(1987.8.14-1991.8.12)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전 미국지역에 산재한 동문들을 한 조직 속에 묶어 보겠다는 의욕으로 창립총회에 모여든 워싱턴, 남가주,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등지의 동문 50여명의 열성을想起하게 됩니다.

창립총회 결성의 직접적인 계기는 전 미국 각처의 동문들의 친목을 촉진하자는 뜻과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난 86년 서울대 개교 40주년을 맞이하여 착수된 서울대 발전기금 조성 사업에 미주지역 동문들도 동참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는 의욕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재미서울대학교 재단" 도 총동창회 산하기구로 함께 창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사업을 뜻하게 된 것은 고국을 떠나 미국주류사회 각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 동문들이 서울대학교 출신의 긍지를 갖고 단순한 친목을 위한 동창회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母校의 발전과 後輩양성과 복지를 위한 사업에 공헌하자는 숭고한 이념에 불탄 결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총회에서 제가 제1대 회장으로 추대되었고 재미 서울대학교 재단 이사장으로 로스 엔젤레스의 김영기(공대 51입) 동문이 선출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정말 힘든 직책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초대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총동창회 이념과 사업을 위해 한 일꾼으로 봉사할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해 왔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토로하고 싶습니다. 우선 각처에 있는 동문들을 방문하면서 총동창회의 목적과 이념을 설명하고 그 존재가치와 필요성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것이 큰 과제였습니다. 지금에 비하면 불과 5개 지역으로 구성된 총동창회였지만 초기의 고초와 어려움도 다양하였습니다.

제 임기동안 서울동창회본부 최후호 회장단의 방비도 있었고, 母校의 제18대 조완규, 제19대 김중운(1991.8.14-1995.2.28) 총장들의 방문으로 총동창회 방향과 사업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또 저의 수차례에 걸친 방한을 통해서 서울대학교 당국과 동창회본부 관계자와 우리들의 할 일을 의논하고 그들로부터 많은 격려를 받으며 일을 해왔습니다.

1993년 7월에는 김영기 재단이사장의 수고로 재미서울대 동창회보를 발간하게 되어 총동창회가 2년만에 겨우 눈에 띄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D. 2대 회장단 출범

1993년 10월 30일 토요일 오후 4시에 Chicago 근교에 있는 Raddisson Hotel-Lincolnwood에서 제 1차 평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수상 동문(의대)이 제 2대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2년 3개월만에 총동창회 본부가 워싱턴에서 시카고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II. 총동창회 활성화에 대한 노력



초기 총동창회에 비해 제3대 이병준 회장 제4, 5대 오인석 회장의 그야말로 영웅적인 희생과 노력으로 총동창회 회보 기금확보도 증가되었고, 총동창회 산하에 가입한 지역 동창회도 점차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2대 강수상 회장 때 구상된 총 동창회원 총람도 이병준 회장의 개인자산의 투자로 완료를 이루었고, 오인석회장의 "관악 후원회비" 설립 "母校와 後進을 위한 100만불 기금" 설치 등으로 경제적인 자립을 위한 노력이 전개되었습니다. 이에 역대 회장님들의 노고를 치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III. 총동창회미래에 대한 Vision과 과제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창립 10주년 기념 論壇 "재미서울대학교총동창회의 미래에 대한 소망과 제언" 2002. 6. 14 (금) 7시, Oak Brook Hills Hotel, Court A-C Room.

(편집자 주)

재미 총동창회는 지난 해에 맞이한 창설 10주년을 기념하여 금년 제 11차 정기 평의원의 全夜에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의 未來에 대한 所望과 提言"이라는 주제로 31명의 동문들이 참여한

가운데 선정된 5명의 발제자 (박윤수, 강수상, 이병준, 오인석 및 김호원 동문) 중 4명이 발제노고를 발표한 바

있다. 회보는 發題論攷 전체를 순차적으로 全文 게재할 예정인데 이 논문은 그 논단의 첫 발제노고로서 재미총동창회의 초대회장을 역임한 筆者가 재미총동창회의 성립역사와 미래의 방향을 다루고 있다.

동창회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동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촉진하는데 있고 둘째는 모금을 통해 基金을 조성해서 母校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문들이 친목을 통해서 동창회의 존재가치를 느끼고 동창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A. "이웃끼리 문화"를 통한 친목의 육성

친목을 촉진시키는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 사교적 행사를 통해서 친목을 촉진 할 수 있으나 한편 이웃 봉사사업에 참여하면서 서로의 우정을 길러 가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서울대동창회는 좀더 그 자부심과 우월성을 초월해서 "끼리끼리"의 울타리에서 벗어 이웃을 위해서 같이 봉사하는 길을 모색하여야 할 줄 압니다. 장학 사업이나 이웃 돕기 운동 등 여러 가지 사회사업을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선택 참여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봉사 사업 외에도 음악회나 여러 문화 사업 등 또 일반에게 공개하는 세미나 같은 사업도 동창회 주최로 시도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지역단체들이 하고있는 여러 문화사업에 참여 또는 공동주체로 서울대동창회가 다양한 각도에서 community involvement를 통해서 일반사회의 서울대에 대한 심리적인 반감을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오는 "우리끼리의 문화"를 떠나서 "이웃끼리의 문화"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B. 동창회 기금을 어떻게 활용 할 것인가?

동창회 존재의 목적은 모교를 돕는데 있습니다. 처음 동창회가 창설 될 때는 확실히 "母校 발전기금 조성"에 참여한다는 뜻이 있었습니다. 발전기금에는 여러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재미 동창회가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택해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겠습니다. 창설당시 제안된 안건 중에는 미국에 연수하러 오는 교수나, 박사후 연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연구원을 도와주었던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장학사업을 시작하든가, 한인들의 미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 조성하는 기금을 확립하든가, 젊은 차세대 단체를 후원하는 사업 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C. 젊은 세대 동문들의 참여유도

우리 동문들의 참여 연령을 보면 젊은 연배의 동문들이 결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공백을 메우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동창회가 "노인회"가 아니라는 인상을 주도록 해야겠습니다.

III. 결론

우리는 가장 경쟁이 치열한 서울대학에 입학하여 韓國의 頭腦라고 할 수 있는 최고 교육기관을 졸업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母校에서는 변천하는 혼잡한 정치여건 속에서도 학원의 자유와 순수성과 학문의 존엄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르지만 세계의 우수 대학의 계열에 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제도를 개혁하고 있고 새로운 제도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교수와 학생의 수준을 높여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에도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년은 미주이민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다가오는 2003년 1월이면 우리 한국인이 하와이 사탕수수밭 노동자로 이주한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척박한 외지에서 뿌리를 내리기 위한 이민 1세의 눈물겨운 애환과 고난이 접철된 '미주한인 100년'을 정리하고 나아가 이를 기를 삼아 우리 후세들에게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유산 전수하고 향후 100년을 조망해보기 위해서 미주각처에 기념 사업회가 발족되고 있습니다. 과거 100년 동안에 미국 땅에 뿌려진 한인들의 피와 눈물과 땀이 오늘의 미주 한인사회를 이룬 초석이 되었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땀과 노력은 향후 100년 우리 후손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100년이 된 미주 한인사회는 70년대 정점을 이룬 이민주류가 도착한지 30여년이 지나면서 세대교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세기의 전환점에 선 한인사회는 이제 미 주류사회 참여확대와 민족문화의 보존 및 계승 그리고 조국의 통일에 기여 등을 시대적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이 시대적 명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모두 함께 풀어 가야할 과제로서 각 기념사업회가 주안점을 두고있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대 총동창회도 이 100주년 기념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각 지역의 이민 100주년 기념사업회와 함께 미국의 미주 한인들의 발자취를 조명하는 일과 더불어 한인들의 장래를 위한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추진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은 1세와 2세가 함께 어우러져 펼쳐지는 사업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러한 기념사업을 통하여 1.5세, 2세는 피와 땀으로 점철된 이민 1세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국의 광복을 위해 자금을 모아 보냈던 애국애족의 정신을 기릴 것이며 반만년동안 면면이 이어온 아름다운 문화유산과 한민족의 얼이 전수될 것입니다. 2003년은 우리동창회의 도전의 해입니다. 우리가 다같이 손잡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生命의 尊嚴性和 醫學 클로닝

Leon Kass교수의 生命倫理觀에 대하여

강수상 (의대 53졸, Rush 의과대학 유전학 교수)

〈筆者註〉 이 글은 THE PUBLIC INTEREST/WINTER 2002에 게재된 Leon R. Kass의 "The Meaning of life-in the laboratory"를 읽고 그 내용을 소개하면서 클로닝(cloning)과 줄기세포(stem cell) 연구에 대한 필자의 평소 견해를 정리해본 것이다. Kass 교수는 의사이고 본래 생화학을 공부했으나 그 후에 생명 윤리학 교수로 전신하여 시카고 대학에 재직하고 있으며 현재 부시 정부의 생명 윤리 자문회 의장으로 위촉되어 일하고 있다.



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생식클론은 수정란 대신 세포 핵이 제거된 난자에 체 세포핵이 이식되어 생긴 배반포(blastocyst)가 한 완성된 생명체인 사람으로 자라는 것이고 소위 말하는 줄기세포의 문제는 생식과는 관계가 없는 생의학 클로닝에 속한다. 이 과정은 배반포에서 가려낸 줄기세포를 인체의 한 부분인 장기의 한 조직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이다. 장기 전체를 이식하는 외과적 치료방법이 수용되었다면 장기의 일부를 보충하는데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것에 이렇게 논쟁이 생겨야 할 이유가 찾기가 어렵다. 문제는 쓸만한 줄기세포는 사람의 난자를 통해서 생겨난다는데 있다. 인간의 시작은 수정란이라고 주장하는 프로라이프(pro-life) 신봉자들(임신 중절의 합법화 반대주의자)에게는 미수정란이라도 이것을 조작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로 보고 이러한 연구를 반대한다. "생명의 의미-실험실에서"라는 글에서 Kass 교수는 줄기세포가 인간의 생명과는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줄기세포가 한 인간으로 자라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진 것을 고려할 때 인간의 생명과는 다르기는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는 볼 수가 없다는 곤혹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대 생식 생리학이 개척되었기에 이러한 논쟁이 생기기도 했지만 이런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과학의 연구와 발전이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본다. 이 같은 문제가 남자의 정자가 축소인간이라고 생각하던 백 여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지금 우리가 겪고있는 쟁점이 연구의 진전에 따라 생각보다 쉽게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과거 바이러스(virus)가 발견되었을 때 생명체 외부의 시비가 있었지만 지금 그런 것을 가지고 문제삼는 사람은 없다. 이런 의미에서 Kass 교수가 새로운 연구개발에 대한 지침이나 통제가 "가부(可否)의 방식보다는 "언제부터 얼마나 빨리(how soon or how fast) 어느 정도(how much)"라는 방식으로 생각하여야 한다고 한데에는 수긍이 간다. 그의 생각이 현 정부의 줄기세포 연구정책에 잘 반영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그러나 인간의 탄생, 생식, 죽음이라는 자연의 섭리에 특별한 가치를 두고 임신의 중절이나 지나친 생명 연장에서의 노력을 반대할 뿐 아니라 산전 유전 검사도 찬성하지 않는

다는 그의 생각의 테두리에서 즐기 세포와 관계되는 의학 클로닝을 보지 않기를 바란다. 임신 초기에 50 퍼센트 이상의 수정란이 유산으로 끝난다는 사실은 심한 육체 장애나 지능 장애를 가진 아이의 출생을 미리 막아주는 다행한 자연의 섭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의 섭리도 완전하지가 않은데 문제가 있다. 때로는 자연 유산이 되지 않고 현대 의학도 어찌할 수 없는 비극적인 분만이 되는 경우가 있다. 자연의 섭리로 해결되지 못한 불행한 임신을 가려내서 임신을 중절시키는 오늘날의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 것은 사실이다. 이런 한계점을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의 하나는 선천적으로 생긴 신체나 지능의 장애를 의학의 발달로 교정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도 줄기 세포의 연구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연의 섭리를 고집하는 것만이 생명의 존엄성에 가장 충실한 방편인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유한성은 축복"이라고 한 것은 17세기의 철학자 베이컨(Francis Bacon)이 말한 "죽음은 해방의 과정"을 연상시켜준다. Kass 교수는 개인적으로 의학연구에 통제를 가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지만 연구의 진로에 어떤 지침 같은 것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현대 과학 속에 살고 있는 우리도 철학의 선조 오이디푸스(Oedipus)에서 배워야 한다고 그의 글은 끝맺었다. 이 말은 고통이나 수난의 과정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지 그밖에 별 도리가 없다는 뜻이다. 그의 말과 같이 현대 과학이 파헤쳤기에 이제까지 없었던 문제를 맞게되고 이를 뛰어 넘는데 감당해야하는 고난과 수난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해의 세계가 더 넓어지고 우리의 삶이 그만큼 자라나고 풍요해 지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들을 이치에 맞는 도전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Kass 교수는 유전학자들이 환자의 유전자 검사로 모든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는 희망이 인간에게 불행을 가져올지도 모른다고 염려하고 있다. 그는 이 생각을 그리스 神話에 나오는 프로메테우스(Prometheus)의 둘째 선물인 맹목적 희망은 첫째 선물인 불을 쓸 줄 알았기에 가지는 위험에 비유하고 있다. 필자 생각에는 하늘에서 불을 훔쳐 인류에게 주었기 때문에 제우스(Zeus)의 분노를 사서 바위에 묶인 채 독수리에 갇혀 먹이며 끝없는 고통을 받아야 했던 프로메테우스의 경우가 "생명의 유한성이 축복"이라는 Kass 교수의 제의에 가장 알맞게 적용되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그리스의 神들과는 달리 삶을 끝맺는 죽음을 가진 인간에게는 죽음의 축복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당연히 삶의 축복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에 새가 날라 온다는 말로 솔거(率去)스님의 작품을 평가하던 시대의 심미안을 고집하고만 있었다면 피카소나 샤갈의 추상화를 아름답다고 볼 수는 없다. 분석적인 사고의 전개를 바탕으로 한 의식구조 위에 세워진 현대인의 지혜가 그 많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준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직도 불치의 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그들의 가족이나 친지들이 흘린 눈물을 모은다면 강물이 되고도 남을 것이다. 줄기세포의 연구가 결실을 맺어 케보키안(Kevorkian) 같은 분께 폐를 끼치는 일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희망을 버리고 싶지 않다. 역사를 통해서 지금처럼 인간의 권리가 소중하게 다루어지고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생명을 가진 동물, 식물을 가릴 것 없이 분별 없게 마음을 쓴 시대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핵 에너지가 살생을 하는 무기로 시작이 되었지만 지금은 인류의 복지를 위해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줄기세포를 뽑아 내는 배반포가 태아로 자라날 잠재성이 있다고 해서 이 연구를 금지시킨다는 생각은 어차피 해결이 될 일을 지체시키는 결과밖에 안 된다. 사실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십 조의 세포 하나 하나가 다 똑같은 유전자를 가졌다는 사실은 어느 세포나 한 인간으로 자라날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 어떻게 칼을 대어 살을 떼어내는 수술을 할 수 있겠는가? 필자의 생각으로는 세포의 덩어리가 분화(分化, differentiation)를 하여 한 생명체가 갖추어야 할 모든 조직과 장기가 생겨날때 까지는 한 독립된 생명체로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있다고 본다. 과거 시험관 수정(IVF)에 엄청난 논쟁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이 방법으로 태어난 아이가 수십만에 이르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볼 때 두고 보아야 할 일이지만 줄기세포 연구를 오래 묶어 두기는 힘들 것 같다. 자연의 섭리로 풀리지 않는 일에 인간의 지혜가 동원되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노력은 숭고한 인간애의 발로이며 숙연해 지도록 머리가 숙여지는 생명에 대한 존엄성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 追記: 체세포의 핵을 탈핵 난자에 이식해서 세포분열을 시키는 조작을 클로닝이라고 하며 이를 자궁 안에 착상시켜 임신하게 하는 것을 생식 클로닝이라 하는데 한국에서만 "복제"라는 말을 쓴다. 생명체를 뜻할 때 "복제(replica)"라는 어휘는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거친 표현으로 보인다. 같은 한문 문화권인 일본과 중국은 "clone"의 발음을 그대로 따라서 표기하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 하루의 일과는 키우고 있는 세화분의 난초에 물을 뿌리는 것으로 시작된다. 나는 이 의식 속에 생명에 대한 경탄과 보살핌의 마음이 깔려있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보살핌의 마음을 말한다면 흙시라도 땅을 기는 별레를 다칠까하여 털이 긴 직신을 신었다는 옛 스님의 배려와 비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 오늘날에도 채식주의자가 있고 동물애호협회가 있어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동물의 생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종교적인 입장을 떠나서라도 그 의미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자연의 섭리를 생각하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것 같다. 식물은 무생명체인 무기물질로 필요한 영양분을 합성해서 살아갈 수 있지만 동물에는 그런 능력이 없다. 동물은 다른 생명체의 체 성분을 섭취해서 자기 것으로 동화시키는 능력밖에 없다. 그래서 동물은 소위 말하는 약육강식(弱肉強食)의 원리 속에서 동물이면 식물이건 다른 생명체를 희생시켜서 자기 생명을 유지한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에 가지는 친화감과 애착도 우리의 생존이 다른 생명체의 종말과 교환되어야 하는 사실을 그 밑바닥에 두고 있다는 것을 올바르게 이해하여야 할 것 같다. 이것은 엄청난 도전이다. 이런 점에서 신경세포가 없는 식물로만 생존하는 채식주의로 어느 정도의 위안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지닌 갈등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요즈음 화제가 되고 있는 줄기세포(stem cell)나 클론(clone)의 연구를 금지시킨다고, 생명 특히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지켜졌다고 간단히 결론 내릴 수는 없을 것 같다. 현대 과학의 발달로 이제까지 생각지도 않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려운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임신 중절과 시험관 수정(IVF, in vitro fertilization)의 문제에 이어 유전자 검사(genetic screening), 체 세포핵의 난자 내 이식(somatic cell nuclear transfer), 줄기세포를 이용한 질병 치료의 문제 같은 것이 이제까지 화목하게 잘 지내오던 사람들을 찬성과 반대파로 갈라놓

고 있다. 반대파들 가운데는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성 그리고 신에 대한 경외가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무너져 가고 있다고 탄식을 하는 사람까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지구가 셀 수도 없이 많은 별중의 하나이고 만물의 영장인 사람의 유전 정보가 침팬지와 거의 같은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세균의 유전 언어와 사람의 유전 언어가 같은 것을 알게 해준 현대 과학은 세상을 보는 눈과 삶의 지혜를 키워주었으면 주었지, 저해 요소가 되었다는 생각이 수긍이 어렵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형성되는 새로운 정신력(지성)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이나 도덕성 같은 것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 같다. 종교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 세상에 생명의 종말인 죽음이 있는 한 종교적 생각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종교적 사고가 어떠한 형태로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지느냐 하는 것은 시대와 함께 변해 가야 할 것 같다. 이런 시각에서 줄기세포나 클론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한다. 먼저 질병의 치료방법으로 최근에 와서 크게 발달된 장기 이식에서 부딪치는 극단적인 문제부터 예를 들어보자. 가령 A의 신장(콩팥)을 B에 이식을 하면 그때부터 A의 신장은 B의 것이 된다. 마찬가지로 A의 심장이 B에 이식이 되면 그때부터 B의 심장이 된다. 그러나 이식술이 발달되어 A의 뇌를 B의 두개골 속에 이식을 한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그때부터 B의 생명은 구해지겠지만 B는 그의 외모와는 관계 없이 A라는 사람의 사고와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의식이나 정신력이 환원주의적 접근방법을 토대로 한 과학으로 해결되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의식도 정신력도 뇌 세포의 기능을 통하지 않고는 생겨날 수 없다는 사실로 클론이 부딪치는 문제와 비교도 할 수 없는 혼란을 맞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뇌라는 장기 전체가 아니고 그 일부분만을 이식해서 운동장애나 혹은 잃은 청각이나 시각이 회복된다면 그런 치료법의 연구가 큰 시비를 불러올 것 같지는 않다. 이와 비슷한 생각에서 최근 클로닝(cloning)을 생식 클로닝(reproductive cloning)과 생의학 클로닝(biomedical cloning)으로 분류하는 생각은 줄기세포의 연구

南·北韓 關係의 現況과 展望

高秉喆 (법대 59졸 - 일리노이대 시카고 캠퍼스 정치학과 명예교수)

<편집자주> 아래 글은 재미 총동창회의 자체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획으로 이번에 처음 시도된 고병철교수의 특별강연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필자는 아직 미완의 논문이므로 대외 발표 단계는 아니라고 고사하였지만, 한시간 넘어진잔한 분위기에서 여러 동문들과 대화형식으로 발표하고 토론한 내용임으로 이 강연에 함께 하지 못한 동문독자들을 위하여 그 강연 내용을 여기에 수록하며 이와 관련하여 독자들은 회보 #91호(2001-09-28자) 7면과 12면에 기고된 필자의 “頂上會談이후의 南北關係”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한반도 분단이후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이 실현되고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지도 만 2년이 지났다. 남북관계가 과연 적대와 대립을 지양하고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했는가? 6.15 공동선언은 어느 정도 이행되었는가?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1)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실적

남북간에 체결된 수많은 합의문들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 다시 말하면 남북관계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사건으로는 네 개를 들 수 있다. 첫 번째가 1972년 7월 4일에 발표된 “남북공동성명,” 두 번째가 1992년 2월 19일에 발표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기본합의서), 세 번째가 같은 날 발표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그리고 마지막이 “6.15 공동선언”이다. 그런데 이중 6.15 공동선언을 제외하고는 모두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사문화(死文化) 되었으니 이 6.15 공동선언은 가장 “성공”한 남북 합의문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지 모른다.

그러면 이 공동선언의 합의사항들이 지난 2년 동안 어느 정도 실현되었는지를 점검해 보자. 합의사항 중 다섯 항목은 번호가 붙어 있는데 첫 번째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이것은 7.4 공동성명에 천명된 자주통일원칙을 반복한 것이어서 처음부터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1972년에 북한은 자주원칙을 미군철수와 동일시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4시간 15분간 회담하는 과정에서 美軍이 東北亞에서 “勢力均衡者(balancer of power)”와 韓半島 주변국들을 “牽制”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남한에 계속 주둔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김위원장이 이러한 논리를 수긍을 했다고 주장하여 제1항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였다.

그러나 부쉬행정부가 2001년 6월에 북한의 현재 상태의 “재래식 군비태세”(conventional military posture)에 따른 위협감소를 北美대화에서 토론해야 한다고 밝힌데 대하여 북한은 크게 반발하고 미국의 底意는 북한을 완전히 “무장해제”하려는 것인 만큼 남한주둔 미군의 철수가 선결조건이라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에 앞서 2001년 3월에 북한은 南北關係를 北美關係에 실질적으로 종속시킴으로써, 그 스스로 자주원칙을 무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미 정상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부쉬 대통령이 北韓에 대한 “회의”(skepticism)를 표명하고 北韓과의 합의는 성실하게 이행되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힘들기 때문에 효율성이 문제시된다고 말한 뒤, 북한은 北美관계뿐만 아니라 南北對話와 교류도 冷却시켰다.

6.15 공동선언의 제2항은 “남과 북은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천명하고 있다. 南側의 “연합제안”은 1989년 9월에 노태우 대통령이 내놓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통일 이전에 잠정적 단계로 설정한 “남북연합”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정부도 모두 받아들인 方案이다. 평화의 제도화와 민족공동체 형성이 주목적인 이 단계에서는 남북한이 각기 대외적으로 主權을 유지하며, 남북정상회의, 남북평의회, 남북각료회의, 남북공동사무처 등 기구를 만들어 남북협력을 활성화하게 된다고 하였다.

北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은 1980년 10월에 김일성 주석이 제안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수립방안”을 1991년 1월에 수정한 것으로 남쪽에 있는 “지역정부”가 잠정적으로 외교권, 군사권, 내정권 등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보유한 채 “최고민족연방회의”와 “연방상설위원회”등 “연방정부”를 만들어 운영하는 안이다.

이 두 方案이 공통성을 가진 것은 분명하나 北韓은 대내외 선전



에서 남한이 북한의 연방제案 자체를 받아드린 것처럼 주장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남한에도 잘 알려졌기 때문에 지난 5월22일에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가 6.15선언 제2항의 폐기 필요성을 지적했던 것이다. 북한은 5월30일 노동신문에서 제2항이 양쪽 통일방안의 완전 합의를 시사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공통점을 인식한데 기초하여 그것을 적극 살려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했다”는 의미”라고 해명하였다. 제2항은 이처럼 논란의 대상만 되었을 뿐 이행을 위한 아무런 움직임을 도출해 내지 못했다.

제 3항은 이산가족과 친척 방문단의 교환과 비전향장기수 문제 해결 등 人道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한다는 합의를 담았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남북은 세 번 이산가족 방문단을 교환했고 1년 2개월의 공백기간을 거친 후 금년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방문단 교환이 아닌 상봉이 진행되었으니 모두 네 번 이산가족이 서로 만날 기회를 가졌다. 2000년 9월 2일에 北에 가기를 원하는 비전향장기수 전원인 63명이 판문점을 넘어 송환되었는데 그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北에 있는 南韓의 국군포로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문제는 6.15 공동선언에서 누락되었으니 그 합의문의 이행실적과는 무관하다.

제 4항은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고 천명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표현이다. 이것은 남북간의 “경제협력”의 비대칭성(asymmetry)을 쌍방이 묵시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교류와 협력에서 “상호주의”(reciprocity)는 비중이 극히 낮을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協力”은 실질적으로는 援助에 가깝다는 것을 南北은 처음부터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간의 이렇듯 해석을 뒤받침 해준다. 남이 북에게 지원한 것을 몇 가지만 열거해 보면 비료 40만톤 (2001과 2002), 쌀 30만 톤 (2002), 옥수수 10만톤 (2002)이 있고 2001년에 남한은 1억 3천 5백 40만불 상당하는 物資를 지원했으며 이것은 북한이 같은 해에 전세계에서 받은 원조 총액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이제 남북교역량이 年間 4억불 규모로 성장했고 교역품목도 600여종으로 증가한 것도 간과할 수 없다. 위탁가공 교역도 농산물, 섬유, 신발등 단순가공품목에서 color TV, computer monitor, cassette tape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2001년 1월에는 남북합작 자동차 수리개조 공장이 가동했고, 금년 4월에는 南浦市에 남북합작 자동차 조립공장이 완공되어 1500cc의 Sienna승용차 조립이 시작되었다.

남북간의 人的往來도 급증하여 2001년 한해 동안 금강산 관광객 말고도 8,551명이 남한으로부터 북한을 방문했고 북한으로부터도 191명이 남한을 방문했다. 그 밖의 교류가 확대 및 다양화한 것 중에서도 한가지만 언급하면 2000년 Sydney 올림픽 開閉會式에 남북한이 동시 입장한 것을 들 수 있다.

6.15 선언의 제 5항은 합의사항의 조속한 실천을 위하여 “당국사이의 대화를 개최”한다는 약속이다. 이에 따라 南北長官級會談이 여섯 번 개최되었는데 4차 회담까지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5차 회담은 예기치 않았던 사태의 발생으로 무기 연기되었다가 6개월만에 개최되었다. 2001년 3월 13일에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5차 회담을 북한이 회담 당일인 3월 13일 오전 전화통지문으로 무산(霧散)시킨 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3월 7일 Washington에서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쉬대통령이 북한에 적대적인 발언을 한 것과 직결된다.

6개월간 중단되었던 남북대화는 2001년 9월2일 北韓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朝平統) 임동옥 부위원장의 명의로 남한의 임동원 통일부 장관에게 전화통지문을 보냄으로서 再開의 문이 열렸다. 국회의 林장관 불신임안 표결 예정일 하루 전에 북한이 이런 행동을 취한 것은 북한이 林장관의 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가 아니었는지 하는 의문을 낳게 한다. 그러나 林장관의 불신임안은 통과되었고 그는 대통령 특별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지만 5차 장관급 회담은 9월 15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10월 28일 평양에서 열리게 되어 있던 제6차 장관급회담은 9.11 테러사태 이후에 남한이 警戒態勢를 強化한 것을 이유로 북한이 금강산으로 옮기자고 제안함으로써 위기에 봉착한다. 남한에 조성된 “살벌한 분위기”하에서는 회담도 왕래도 할 수 없다면서 북한은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및 태권도 시범단 교환은 연기하였다. 남한이 북한의 회담장소 변경 제안을 받아 들임으로서 제6차 장관급 회담은 11월 9일부터 14일까지 金剛山에서 개최되지만 별로 진전이 없이 제7차 회담 시기 합의도 못하고 종료된 바 있다.

이밖에도 남북국방장관회담, 5차례의 남북군사실무회담과 6차례의 경제분야 회담 개최가 6.15선언 제5항의 이행실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2000년 9월 25일과 26일에 濟州道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담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에 관한 실질적인 토의는 없었고 경의선과 도로연결공사에 관련된 문제들과 철도, 도로 주변의 軍事分界線과 非武裝地帶를 개방하여 남북공동관할지역을 설정하는 문제를 停戰協定에 기초하여 처리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밖에 못 하였다. 그러나 실무회담에서 만들어 낸 남북 군사보장합의서는 2002년 1월 부시대통령의 “惡의軸”발언이후 남북관계가 다시 냉각기로 진입하면서 쌍방 국방장관이 서명한 뒤에 문서를 교환하기로 되어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발효되지 않고 있다.

문서교환이 행해지지 않아 발효되지 않은 것은 4개의 경제관계 합의서도 마찬가지이다. 2000년 12월 중순에 평양에서 열린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양쪽 수석대표가 정식 서명한 투자보장, 이종과세 방지, 분쟁해결절차, 청산결재에 관한 합의서는 하나도 발효되지 못했다. 제4차 장관급회담의 합의에 따라 2000년 12월 말에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북한은 電力지원 문제를 우선 해결하자고 주장하여 남북전력협력 실무협의회가 2001년 2월에 평양에서 열렸는데 南韓이 전력사정 실태 조사 방법을 제시한 것과 달리, 北韓은 電力제공의 양과 시기를 확정하고 실태조사를 진행하자고 주장하며 우선 50만 KW 송전에 필요한 현지조사부터 시행할 것을 요구하여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11면에 계속>



남북관계에 교차하는 明暗. 남북한 頂上이 평양에서 화해와 협력에 瑞光을 열었으나(2000년 6월15일) 이번 서해에서 남북한의 海軍交戰 사태로 휴전과 분단의 暗雲이 民族의 統一 가도에 다시 드리우다(2002년 6월29일).

<10면에서 계속>

“惡의 軸”발언이 가져온 두 번째의 냉각기는 금년 4월초에 임동원 대통령 특보가 평양을 방문하는 것을 계기로 일단 막을 내렸다. 그는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고 김용순 노동당 비서와 협상을 했는데 4월 5일에 발표된 공동보도문은 (1)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동해지구에 새로운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문제등을 토의하기 위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2차 회의를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 (2)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2차 당국사회의 회담을 6월 11일에 금강산에서 개최, (3) 제4차 이산가족 상봉을 4월 28일부터 금강산에서 진행, (4) 북이 경제시찰단을 5월중 남에 파견, (5)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6) 남북 군사당국자 사이의 회담 개최를 “군사당국에 건의,” (7)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서로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중 실현된 것은 이산가족 상봉밖에 없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2차 회의는 南韓의 최성훈 외교통상부장관이 4월 18일 미국 방문기간 중 Washington Post 간부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한 발언을 이유로 北韓이 무산시켰고 나머지 합의사항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崔장관이 Bush 행정부의 對北強硬政策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고, Washington Post 에 보도된후, 北韓은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가겠다”는 4.15 공동발표문에 위배되는 발언이라고 규탄하고 “남측당국”의 사과와 최장관에 대한 “책임적이고 납득할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6.15 공동선언은 또한 상기한 5개 항목 외에 김정일 위원장이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

하기로 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았을뿐 아니라 내년 2월에 종료되는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중에 실현될 확률은 아주 낮다고 말할 수 있다.

위에서 본 것처럼 6개의 합의사항 중 부분적으로나마 이행이 된 것은 3, 4, 5항뿐이고 나머지는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 南北當局間의 대화는 거의 중단된 상태이나 民間차원의 교류 협력은 계속되고 있다.

후자의 예로 7월1일부터 두 달간 한양대 교수 2명이 평양에 있는 김책공업종합대학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관련 강의를 하기로 兩大學間에 합의되어 있는 것과 남북한 최초의 합작 대학원 평양과학기술대학이 설립 추진 1년여만인 6월 10일에 착공된 것을 들 수 있다.

정부차원의 협력이 완전히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은, 남북한이 移動通信事業을 공동추진하는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남한의 정보통신부 기획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8명의 民·官 합동 통신협력단이 6월초에 訪北하여 北韓의 체신성 副相(차관)급 인사를 대표로 하는 팀과 협상을 가진 사실이 말해 준다.

양측은 남한의 KT, SK텔레콤, 삼성전자, LG, 현대시스템즈 5개 민간회사와 北韓의 조선체신사가 참여하는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해, 평양과 남포일대에서 CDMA(미국식 디지털) 방식의 휴대전화사업과 국제전화 회선 증설사업을 공동추진하자는 남측의 제안에 대해 실무검토에 들어갔으며 1개월 내에 2차 협의를 갖기로 합의하였다.

2) 남북관계 개선의 장애요인

南과 北은 상대방의 정책에 서로 영향을 주며 相互依存的인(interactive and interdepen-

dent)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남북관계가 체제와 전략적 목표의 괴리와 갈등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남북한의 異質의인 수령중심의 독재체제와 민주체제—엄격히 말하면 민주주의를 鞏固하는 단계에 있는 체제(system undergoing democratic consolidation)—는 상호협력에 한계가 있다.

北韓의 主體思想의 역할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자주, 민족존엄, 국가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물질적 이득을 포기하는 것은 북한정책의 內面的 논리(internal logic)와 주관적 합리성(subjective rationality)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전략적 환경의 惡化로 北韓에서는 體制維持가 대내외 정책의 최우선순위로 부각된 반면 김대중 정부는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제도화하는 “사실상의 통일상황”(de facto unification)을 추구하고 있다.

頂上會談이후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에 진입한 예를 보면 北韓이 체제에 대한 위협을 인식한 것이 크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주관적인 인식”과 “객관적인 현실”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나 정책에 영향을 주는 것은 前者이지 後者が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北韓은 실용주의적 전술조정(pragmatic adjustment of tactics)을 수시로 해 왔다. 그 예로서 2001년 9월에 임동원 장관에게 대화재개 의사를 통지해 온 것은 이미 지적했으니 금년 4월에 임동원 특보의 방북을 허용한 배경을 생각해 보자. 北韓의 意圖는 경제적 이득으로 요약될 듯 하다. 북한은 남한으로부터 비료 20만 톤, 쌀 30만 톤, 옥수수 10만 톤 제

공을 받아내고 전력지원도 요청했다고 보도되었다. 북한은 산악지대인 북부지역과 강원도는 水力발전이 의존하고 있으나 황해도지역은 火力발전이 의존하는데 발전설비의 노후화 때문에 전력시정이 심각하다고 林특보에게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3) 전망

앞으로 남북관계가 現狀維持, 改善, 惡化의 세 시나리오 중 어떤 쪽으로 전개될지는 (1)북미관계의 진전, (2)남한의 정책, (2)북한 정책의 복합적 상호작용(complex interaction) 결과에 달려 있다고 본다.

북미관계는 잭 푸릿(Jack Pritchett)특사의 訪北이 실현되어야 본격적인 협상이 재개되어 합의도 도출해 낼 수 있으나 樂觀은 不許한다. 푸릿은 국무부 차관보(assistant secretary of state)급이기 때문에 北韓의 重量級 관리와 대화를 못할 확률이 크다. 남한정부는 푸릿을 국무부 서열이 두 번째인 리처드 아미티지(Richard Armitage)차관으로 대체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南韓은 국내정치 사정의 제약으로 북한에게 새로운 誘因(incentive)을 제공하지 못할 확률이 크다.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 말의 정체상태(lame duck), 아들들의 구금 및 대통령 선거 등이 제약요인이다. 만일 大選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남북관계는 小康狀態에서 冷却期로 다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北韓의 경제사정이 악화하면 실용주의적 전술조정을 기대해볼 수 있다. 韓, 美, 日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人道主義的 원조 덕분에 북한은 체제붕괴위기는 면했고, 경제도 1990년부터 1998년까지

inus 성장을 계속하다가 1999년과 2000년에는 plus 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2000년의 北韓 GDP는 南韓의 27분의 1인 168억 달러에 불과했고 1인당 GDP는 757 달러였다. 같은 해 북한은 대외무역 규모는 20억 달러, 즉 남한의 169분의 1이었다. 여기에 電力을 포함한 에너지 부족현상이 持續 내지 惡化되면 北韓이 경제적인 이유로 대외정책을 조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追記> 그러나 6월 29일에 西海에서 일어난 북한의 도발행위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남북관계가 악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북한군 경비정이 남한 고속정 1척을 공격해 탑승하고 있던 해군 27명중 4명이 숨지고, 19명이 부상당하고, 한 명이 실종된 것은 정상회담 이후뿐 아니라 1999년 6월 서해교전 이후 가장 심각한 무력 충돌 사건이다.

이것이 북한의 의도적인 도발이었는지 우발적인 사건이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남북관계에 암운(暗雲)을 던진 것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最惡의 시나리오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章을 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6.15 공동선언도 깊이 뿌리박힌 상호불신과 제도, 이념, 전략적 목표의 葛藤이라는 높은 장벽을 극복하지 못하고 死文化되는 것이다.

만일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民族分斷의 悲劇은 장기화될 것이며 이것은 外勢가 아니고 우리 民族자신밖에 닦할 수 없다.

<끝>



심장마비 예방법 "How To Prevent A Heart Attack"

◎ 鄭求榮 (Edward K. Chung, 의대 57년 졸, 토마스제퍼슨의과대학 명예 석좌교수)

우리 재미 서울대동창회보 100호 발행 기념으로, 심장건강에 대해서 나의 경험 그리고 연구 결과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한다. 40년 가까이 의과대학에서 교수생활을 하는 동안 심장건강에 대해서 여러 환자를 볼 수 있었고 또 많은 것을 느꼈다.

우리 서울대학 동문들이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50대, 60대, 70대가 되었는데 자기 건강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것 같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심장질환이 아니면 암이 원인이 되니까 우리가 좀 더 우리 심장건강에 대해서 지식을 넓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동창회보를 통해서 "How to Prevent A Heart Attack"이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적어 보겠다. 공교롭게도 현재 나의 100번째 저서를 쓰고 있는데 [편집자 주: 관련기사 회보 98호14면 참조] 그 제목이 "Heart Attack And Related Medical Problems"이라서 마치 이 책의 한 부분으로서 그 발췌본(Abtract)을 써 보는 셈이다. 동 저서는 의사, 의과대학생을 상대로 쓴 것이 아니고 일반 대중을 위한 교육용 서적이며, 내년 봄이나 여름에 출판될 예정이다.

우선 50대가 넘은 동문과 그 배우자는 관상동맥 위험 요소(coronary risk factors)가 있으면 40대부터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하며, 기초 혈액검사(basic routine blood tests)와 심전도(Resting electrocardiogram ECG or EKG)를 촬영하여 비정상적인 점이 발견되면(abnormal finding) 더 필요한 진찰(diagnostic tests)을 받아야 된다. 심장병의 증상 특히 어떤 종류의 심장불안(chest discomfort, any kind)나 호흡곤란(dyspnea)이 있으면 treadmill exercise ECG stress test가 필요할 것이고 내과 의사(internist)나, 가능하면 심장전문의(cardiologist)가 진찰한 결과 abnormal findings(예: heart murmur, enlarged heart)가 발견되면 echocardiogram을 찍어야 할 것이다. Treadmill ECG stress test가 비정상적으로 나오면 cardiac catheterization 그리고 coronary angiogram도 필요할 것이다(특히 증상이 있을 때).

우선 기초 혈액검사(Basic

blood tests)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콜레스테롤 수치(cholesterol levels)인데 이것은 관상동맥 주요 위험 요소

(major coronary risk factor)이다 (table 참조). Blood cholesterol 이 높으면 (특히 low density lipoprotein LDL or "bad" c-

holesterol) atherosclerosis (혈관 경화, hardening of artery)가 빨리 진행되어서 심장마비가 젊은 사람한테도 올 수 있다. Cholesterol은 saturated fatty acids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음식 중에 네 발 짐승의 육고기(red meat)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 달걀 노른자, 버터, 전지 우유(whole milk), 치즈, 아이스크림에도 많이 들어있다. 따라서 이러한 음식을 적게 먹어야 하며 cholesterol 수치가 극히 비정상이면 먹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동물성 지방이 많은 돼지고기 베이컨 그리고 눈에 쉽게 보이는 지방은 먹지 않아야 한다. 단백질을 섭취하는 방법은 육류 대신 생선 종류를 많이 먹고 특히 그 중에서도 "omega-3 fatty acids가 많은 연어(salmon)나 고등어(mackerel)가 우리 건강에 좋다. 우리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초밥, 생선회는 우리 심장 건강에 매우 좋다. 생선, 해산물 중 우리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은 深海低(deep sea bottom)에 사는 바닷가재(lobster), 게(crab), 굴(oyster), 새우(shrimp), 조개(clam) 종류인데 여기에는 c-holesterol 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닭고기는 껍질을 버리고, 튀겨지 말고 먹으면 단백질 섭취에 좋고, 달걀은 노른자 대신 흰자를 먹으면 단백질 섭취에 좋다. 달걀 노른자는 콜레스테롤이 많으나 흰자는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다.

콜레스테롤에 대해 좀 더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다. 콜레스테롤을 분석할 때 3가지로 나누는



1998년 KBS가 제정한 해외동포 특별 학술상 시상식장에서 필자와 부인 Dr. 李相仁(Lisa S. Chung, 내과 전문의) 여사

데 total cholesterol, LDL c-holesterol (bad cholesterol—Low density lipoprotein) 그리고 HDL cholesterol (good c-holesterol—high density lipoprotein)이다. total c-holesterol과 LDL cholesterol은 낮을수록 좋고 HDL cholesterol은 높을수록 좋다.

Normal과 abnormal (high) total cholesterol은 다음과 같다.

- less than 200 mg/dl desirable (정상)
- 200-239 mg/dl borderline high (조금 높은 것)
- 240 mg/dl and high high (높은 것)

미국에 사는 성인(adult) 중에 콜레스테롤이 borderline high 한 사람은 심장마비(heart attack)가 오는 위험도가 2배로 높아지고 콜레스테롤 이외의 위험요소(risk factors)가 겹치면(table 참조) 심장마비가 올 위험은 훨씬 더 높아진다 (5-6배).

Desirable versus high LDL 콜레스테롤 levels는 다음과 같다.

- less than 130 mg/dl desirable
- 130-159 mg/dl borderline high
- 160 mg/dl or higher high

다른 위험요소(고혈압, 당뇨병, 흡연 등 table 참조)가 결합 때, 그리고 심장마비(heart attack)를 이미 앓은 사람은 LDL 콜레스테롤이 100mg/dl 이상이 되면 토달 콜레스테롤이 240 mg/dl 이상과 같게 된다. HDL 콜레스테롤

은 fatty deposits가 쌓이는 것을 막는 良性 콜레스테롤("good" cholesterol)이라 흔히 부른다. 적정(desirable) HDL 콜레스테롤은 35mg/dl 이상인데 HDL이 낮은 사람은 규칙적인 운동, 금연 그리고 체중감량으로 높일 수 있다.

Triglyceride는 콜레스테롤과 비슷한 lipids 중 하나인데 coronary risk factors 중에서 콜레스테롤보다는 약한 factor이다.

Desirable versus abnormal triglyceride는 다음과 같다.

- less than 200 mg/dl desirable
- 200 - 400 mg/dl borderline high
- 400 - 1000 mg/dl high
- above 1000mg/dl very high

Triglyceride level을 내리는 방법은 low-saturated fat diet, low cholesterol diet, 규칙적인 운동(regular exercise), 금연 그리고 술을 적게 마시는 것이다.

Cholesterol 그리고 Triglyceride가 식이요법이나 운동 등으로 조절이 되지 않고 특히 수치가 몹시 비정상적이고 더구나 다른 coronary risk factors가 겹쳤거나 또 이미 coronary artery disease(특히 heart attack) 진단을 받는 사람은 여러 가지 좋은 약(lipid-lowering drugs)이 있으니 의사 지시대로 적당한 처방을 받아서 복용해야 한다.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요소 중 coronary risk factors를 조절해야 되는데 (아래에 첨부한 table 참조)

이에 유용한 충고를 몇 가지 강조하고 싶다. 우리 나라 말에 "설마가 사람잡는다"는 말이 있다. "설마" 나한테 심장마비가 올 리가 있나 하는 태도를 누구나 갖고 있는데, 증상이 나타나면 자기 부정(self-denial)을 누구나 하게 된다. 그리고 특히 의사들 중에 자기 자신이 자가진단(self-diagnosis), 더구나 內科를 전공하지 않은 의사가, 혹은 자가치료(self-treatment)를 많이 하게 되는데 몹시 위험한 일이므로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여러 가지 심장마비 증상 중에서 가슴통증(chest discomfort)이 가장 중요한데, 비슷하게 중요한 증상은 호흡곤란이나 기운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증상을 이전에 느낀 적이 없을 때에는 일단 심장마비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응급구조요청 전화(#911)를 하고 근처 병원, 응급실에 가도록 해야 한다. 有備無患(Over-diagnosis)

이 좋고, 의사들이나 응급실 요원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심장마비가 아니라면 더구나 반가운 소식이니까, 서슴지 말고 늦기 전에 의료진료를 받아야 한다. 심장마비에서 회복하려면 몇 분, 몇 초를 다룰 정도로 조기 진단(early diagnosis)과, 조기 치료(early treatment)가 매우 중요하다. 치료가 지연되면 죽지 않고 회복된다 치더라도 합병증도 많이 생기고 심장도 많이 손상되고 일평생 고생하게 된다. 의학이 몹시 발달되어 조기진단하여 조기 치료하면 많은 환자가 잘 회복하고 일평생 삶을 즐길 수 있게 된다 (enjoy second new life after heart attack).

별로 운동을 하지 않는 생활방식(Sedentary life style)은 심장건강에도 나쁘고 흔히 운동(exercise)을 자주 하라고 강조하는데 이때에 몇 가지 조심을 해야 한다. 좋은 운동은 aerobic exercise로, 미국심장학회

(American Heart Association)에서 추천하기를 하루에 30분씩 적어도 1주일에 3번씩 해야 운동하는 효과가 난다고 되어있다. 쉬운 운동으로 경보(fast walking), 조깅(jogging) 그리고 수영이다.

별로 운동을 하지 않고 일평생 지내온 사람이 갑자기 어떤 운동을 시작할 때는 심장능력측정(Treadmill Stress Test)을 해서 자기가 얼마나 운동을 할 수 있는지 심장의 능력을 측정해야 한다. Stress test를 함으로써 몇 분 동안 아무런 증상 없이 그리고 심전도에 아무런 이상증세(abnormal finding 즉 ischemic change)가 심장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cardiac workload)가 결정된다. treadmill test는 3분마다 treadmill의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고 동시에 treadmill의 경사(elevation)가 차차 증가하기 까 점점 운동하는데 힘이 들어간다.

이 treadmill test를 하다가 멈춰야 할 때는, 심장병의 증상(가슴통증이나, 호흡곤란)이 오던지 ECG 변화가 오거나 어지럼증과 같은 다른 증상이 올 때이다. Treadmill test를 하는 동안 계속 관측장비(monitor)를 통해서 보고 진단하게 된다.

그래서 몇 분 동안 몇 단계(stage)까지 treadmill test를 한 결과로 의사가 정확하게 cardiac workload(심장기능)를 수치로 표시할 수가 있다. Metabolic Equivalent*(MET)라는 unit를 써서 모든 우리 육체활동(physical activity)을 표현할 수가 있다. <13면에 계속>

<12면 심장마비 예방에서 계속>

즉 1 MET라는 것은 완전히 우리가 휴식상태(resting state)에 있는 것이고 어떤 physical activity(e.g. 어떤 운동이나 가사노동 등)나 "MET"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 treadmill test를 아무런 문제없이(별다른 증상도 없고 ECG도 정상인 경우) 9-12분 이상 운동할 수 있으면, 보통 가사노동, 정원일, 빨리 걷기, 조깅, 수영 등을 해도 심장기능이 충분한 경우이다.

지금까지는 의학적, 과학적인 내용이었는데 그 위에 더하여 운동하는데는 몇 가지 사항을 더 충고하고 싶다.

식사 후 더구나 술을 먹은 후 1-2시간 내에 갑자기 운동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예를 들면 밥을 많이 먹고 더구나 술도 마시고 곧 테니스를 친다던가 조깅을 한다던가 수영을 한다던가 빠른 박자의 dance를 하는 것은 심장 건강에 좋지 않다.

50대, 60대 더구나 70대 넘은 사람이 스포츠를 그 자체를 즐기려 하지 않고 남과 승부를 겨루는 것은 좋지 않다. 자기보다 훨씬 어린 후배, 더구나 자기 아들 딸 되는 젊은이와 tennis single을 쳐서 경쟁하는 것은 건강에 해가 된다. 더구나 관상동맥위험요소(coronary risk factors)가 2개 이상 있거나(table 첨부 참조), coronary heart disease 특히 심장마비를 앓은 사람은 남과 운동 시합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같은 의미로써 골프를 치면서 즐기지 않고 돈을 걸면서 내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필요 없는 스트레스를 자기가 스스로 유발시키면서 게임을 즐기지 못하고 또 너무 심각해지면 함께 운동하는 상대편에게도 좋지 않다.

관상동맥 위험요소가 2개 있으면 심장마비가 올 확률이 2배로 되는 것이 아니라 5-6배로 되고 위험요소가 3-4개 있으면 몹시 위험하다(Very risky!-이는 간단히 말해서 "자살 행위"이다).

우리 모두가 너그러워지도록 노력을 해야 coronary risk도 줄어들고 스트레스도 적어진다. 우리는 우선 자기 자신한테 관대해야 한다.

위험한 한 예를 들면, 겨울에 차고 진입로나 자동차에 쌓인 눈을 치운다던가, 더운 여름날 씨에 잔디를 깎는다던가 하는 일은 가능하면 피해야 위험이 적어지고 스트레스가 적어진다.

무더운 여름날에 냉방기를 켜지 않는다던가, 온도를 너무 높게 유지한다던가, 또 추운 겨울에 난방기를 너무 쪼개 유지하면 이로 인해 건강에 해가 오고 스트레스가 쌓이게 된다. 좋은 건강을 유지하려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야 한다.

강조하여 부연하면 자기 자신한테 너그러워야 하며 그 다음에는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 선후배, 동문 그리고 형제 자매, 자식들 모두에게 관대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인생이 행복해지는 법이다. 인생하면 친구들 선후배가 모두 점점 멀어지고 결국은 고립상태가 되니 그 자체가 큰 스트레스 요소이다. 마음으로는 경제적으로나 관대해야만 친구들도 환영하고 일가친척들도 환영하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 딸들도 환영하게 된다. 고립상태가 되면 여러 가지 스포츠도 함께 즐길 사람도 없고 인생이 고달파진다. 시간 나는 대로 가까운 친구, 동문, 선후배가 함께 모여서 저녁도 같이 먹고 가라오케에 맞춰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인생을 즐기게 되면,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행복해 지니까 coronary risk factors들도 적어지게 된다. 너무 인색하게 인생을 살면 그 자체가 스트레스이고 혼자서 스포츠(예: 조깅, 수영)하다가 도움이 필요할 때 "911" 불러줄 사람도 없게 된다.

인생을 즐겁게 살도록 노력하면 coronary risk도 적어지고 면역성(immunity)도 높아져서 다른 나쁜 병도 걸릴 확률도 적고, 또 많은 친구, 선후배 일가 친척한테 환영받고 존경받게 된다. 나 자신은 은퇴한 후 위와 같은 생활태도를 지키면서 Orlando 근처 Windermere에서 계속 즐거운 인생을 보내고 있다. 끝으로 나의 임상 및 연구 경험에서 아래와 같은 세 개의 table을 작성하였으니 심장마비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필자 연락처 : 407-876-9494; Fax 407-876-6694)

회보 100호간행에 즈음하여

이종도 (공대 66년 입학, Ph.D., 재미 서울대학교 동창회재단 초대 사무국장)

어렵사리 만들어낸 재미 서울대학교 동창회보의 창간발행이 엇그제의 일 같은데 그 간 10년 가까이 흘러 6월로 100번째 발간을 하게 된다니 그 감회가 깊다.

무엇보다도 그간 편집의 내용이나 발행 부수에 있어 꾸준한 발전을 한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신문이 칠천여 재미 서울대 동문들의 결속에, 그리고 총동회와 모교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음에 결실의 보람과 기쁨을 느낀다.



재미 서울대학교 재단을 십 여년전에 창설하여 봉사하셨던 金永基(공대 화공과 51년 입학)이사장님의 앞을 내다보는 慧眼과 이종만(법대 61년 입학) 편집국장의 不撤晝夜를 가리지 않는 노고와 열정속에 6개월 남짓 작업기간을 거쳐 창간호를 발행할 수 있었다.

본인이 당시 그 사업에 미력이나마 一助 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적 영광으로 오래 기억될 것이다. 신문 편집의 어려움, 보고 또 보아도 생기는 오자, 원고량의 절대부족, mail label과 인쇄작업의 지연 등으로 수 삼개월 연기를 거친 후 간신히 6천부를 인쇄하는데 성공하였지만, 시설 부족으로 일일이 수작업으로 주소 label과 우표를 붙이는데 金이사장님 사업체의 직원들과 가족들이 모여 앉아 며칠에 걸쳐 끝낸 후, truck에 싣고 우체국에 가서 접수를 시키는 마지막 단계에서도 쉽지는 않아 땀을 안했다고 퇴자를 맞기도 했던, 당시의 어려웠던 경험들이 그러나 지금은 보람있는 추억이 된 것은 친애하는 재미 동문들께서 끊임없는 성원, 격려와 사랑으로써 그 창간의 뜻을 기려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기회를 빌어 지금은 故人이 된 金永基(1932.3.23-1999.3.15) 이사장님의 미래를 보는 안목과 확실한 목적의식으로 회보 창간을 추진하였던 그 의지에 존경과 찬사를 보낸다.

아울러 당시 본국 총동창회의 崔主鎬 회장님과 조석 사무처장의 끊임없는 격려와 국내의 여러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본국 동창회보의 미주내의 발취 발행에 대한 出版權을 허용하여 주신등 과감한 도움들이 없었더라면 창간호를 포함한 초창기 회보가 그 초라함을 면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창간 이후 재미 동창회보는 김영기 이사장님이 23회까지로 발간을 끝냈으나 그후 재미 서울대 총동창회 제 3대 李丙俊(상대 55년 입학)회장님의 책임 하에 크게 발전하였고, 그 이후 뉴욕의 제 4·5대 吳仁錫(법대 58년 입학)회장님, 그리고 현재 총동창회장인 시카고의 제 6대 李龍洛(공대 48년 입학)회장님과 임직원들의 봉사와 노력하에, 동창회보가 質과 量적인 면에서 급성장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분들의 탁월한 지도력에 경탄을 금할 수 없다.

우리가 모름지기 血緣을 멀리 할 수 없듯이 우리의 꿈꿨던 젊은 시절을 같은 대학에서 同門수학하며 성장하였음은, 분명 家族에 버금가는 인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母校가 나의 성장의 배경이며 꿈과 낭만의 터전이 되었다면, 그 동문들의 결속으로 母校발전에 일조를 할 수 있었다면 이 또한 감사하고 기쁜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본인이 보관하고 있는 1993년 6월15일자 창간호를 뒤져보며 다시금 그 감회에 젖어 본다.

A) 심장마비 예방수칙

(How To Prevent A Heart Attack)

- General Guideline
- * Eliminate or control all risk factors
- * Avoid self-denial
- * No self-diagnosis and/or self-treatment
- * Request full cooperation and support from spouse
- * Avoid unnecessary stress
- * Avoid sedentary life-style
- * Avoid any vigorous exercise soon after a meal and/or alcohol consumption
- * Avoid snow shoveling or any vigorous physical activity during cold/very hot weather
- * Avoid any vigorous sport 聯 other physical activities alone
- * Medical check-up, exercise(stress) ECG testing
- * Aspirin 81 mg daily
- * Be generous, be sociable and be optimistic!

B) 중요 관상동맥 위험초래 요인

(Major Coronary Risk Factors)

- * Heredity (family history)
- * Stress
- * Male sex
- * Advanced age
- * Hyperlipidemia
- * Hypertension
- * Cigarette smoking
- * Diabetes mellitus
- * Obesity

C) 잘 알려지지 않은 관상동맥 위험요소

(Coronary Risk Factors)

- Less Well Recognized
- * Undereducated people
- * Less educated and/or uncooperative spouses
- * Sedentary life-style
- * Type A personality(?)
- * Stingy and/or anti-social people
- * Low EQ (Emotional Intelligence)
- * Excessive alcohol consumption
- * People living in small towns or countryside

SNUA OPINION LEADER

사람의 동반자 : 지능로봇의 등장

최근 미국 전기전자공학회(IEEE)에서 수여하는 각 분과별 2002년도 최우수 논문상 가운데 鄭宇眞(정우진) 동문이 로봇·자동화분야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다. 한국인으로는 처음 있는 일. 이에 鄭동문으로부터 인간의 지능과 능력을 겸비한 미래형 로봇에 대해 들어보았다.

로봇공학에서 다루는 대상은 크게 산업용 로봇과 비산업용 로봇으로 나눌 수 있다. 이제까지는 주로 자동차, 반도체 등의 생산 현장에서 무거운 차체 프레임 운반한다든지, 차체의 용접을 수행하거나 정밀한 반도체 부품을 조립하는 등 고속, 정밀 또는 중하중 작업을 인간을 대신하여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산업용 로봇이 주된 관심의 대상이었으며, 생산성 향상과 근로조건 개선에 실질적으로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산업용 로봇은 이미 기술적 측면이나 산업적 측면에서 도입, 성장기를 넘어 성숙기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단순히 힘이 세고 동작의 정밀도가 높은 도구로서의 단계를 지나, 사람의 시각과 같은 카메라를 이용한 로봇 비전과 촉감이나 압력을 감지하기 위한 힘 센서 등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더욱 다양한 고난도 현장 수요를 만족시키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한편, 생산 현장의 안전 철책 속에서 단순한 기능을 수행하는 로봇이 아닌, 사람의 실생활에 투입되어 도움을 주는 비산업용 로봇에 관한 연구와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비산업용 로봇은 로봇의 동작이 원활하게끔 특별히 정비되지 않은 환경에서 기능을 수행해야하므로 환경 및 주위 물체의 감지, 감지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어진 목적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동작 계획, 실제 움직임의 행동제어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비산업용 로봇은 목적과 기능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려우나 여기에서는 그러한 로봇을 지능로봇이라고 통칭하고, 필자가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시스템을 중심으로 지능로봇의 기술현황에 대해서 알아본다.

만화영화에 나오는 「아톰」이라는 주인공은 사람과 비슷한 형상을 한 채 사람보다 강한 힘과 동작속도를 가질 뿐만 아니라 뛰어난 판단력과 감성, 심지어 비행능력까지 보유하고 있는 로봇이다. 이러한 상상력을 동원한 로봇 또는 사이보그는 「터미네이터」나 「로보캅」과 같은 영화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로봇을 공부하고 싶다는 학생도 이러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꿈을 가지고 연구에 입문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나, 전세계적으로도 현재의 기술 수준은 이러한 상상력을 구현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것이 많다.

인간의 지능을 로봇공학의 관점에서 분류하면 감지(sensing), 인식(perception), 추론(reasoning), 계획(planning) 및 행동(actuation) 등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작업을 위한 대상물체의 형상이나 위치, 환경 감지를 위해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며, 로봇 자신의 현

재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구동관절의 각도 센서, 본체의 자세를 측정하기 위한 경사각 센서, 바닥으로부터의 반력을 감지하기 위한 힘 센서 등이 사용되며 사람의 음성명령을 듣기 위한 마이크 등이 센싱 지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 청소나 순찰같은 반복적 서비스에서 단계적으로 가정 같은 환경까지 확대될 것이다

이다. 인식 지능은 이러한 센싱 기술로 수집된 물리적인 기초 정보를 바탕으로 로봇에게 의미를 갖는 유용한 정보가 가공되는 과정이다.

예를 들면 대상 물체가 무엇인지, 지금 로봇이 걷다가 넘어지기 직전의 위험한 상태인지, 또는 시급히 대처해야 할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등의 해석이 포함된다. 추론 지능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목적한 기능 또는 의도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을 하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청소를 해야 하는지 이동을 해야 할 것인지, 대기를 해야 하는지 등을 결정하는 단계이다. 계획 지능은 정해진 행동을 취하려면 손과 팔의 자세와 동작은 어떠한지, 다리의 관절은 어떻게 움직여야 걷거나 뛰는 동작을 취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행동 지능은 전기모터와 감속기 등으로 구동되는 로봇 관절을 제어기를 이용하여 실제로 구동하는 기술이다.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인간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휴머노이드(humanoid)를 개발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행해져 왔다. 평면 또는 계단을 안정적으로 보행하는 일본 혼다자동차사의 인간형 로봇 「ASIMO」, 인지과학에 중점을 둔 MIT의 「COG」, 인간 행동의 구현에 초점을 맞춘 KIST의 「CENTAUR」(사진) 등은 그 대표적 예이다. 이러한 로봇에서는 사람답고 자연스러운 걸음새, 행동 기반 제어기술, 블록 쌓기 등의 지능적 조작기술 등 부분적으로는 많은 성과를 축적했다.

그러나 현재 기술의 한계는 「아톰」과 같은 로봇을 만들기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예를 들어 로봇의 뼈대를 만들기 위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알루미늄 합금 또는 마그네슘 합금 수

준의 소재기술과 사람의 근육과 같이 힘을 내기 위한 구동원인 교류 방식 전기 구동 모터와 같은 전기기술, 그리고 Ni-Cd 배터리와 같은 전원장치 기술로는 사람과 비슷한 크기와 무게의 팔을 만들었을 경우, 사람이 들 수 있는 최대 무게의 절반도 들지 못한다.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인식과 추론 등의 지능적 측면으로서, 구겨진 종이 쓰레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을 경우, 로봇이 카메라로 보고 이것이 쓰레기인지, 다른 곳에 정리해 두어야 하는 중요한 대상물체인지, 따라서 청소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자리에 놓는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다. 이것은 하나의 단적인 예이지만 실생활에 로봇이 투입될 경우에 이러한 수많은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신뢰성과 기능이 극도로 저하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러나 결국 사람의 생활환경은 사람에게 편리하도록 최적화 되어있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한다면 인간형 로봇이야말로 사람의 동반자로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될 것이다.

로봇공학에서 주된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크게 첫째 물체를 쥐고, 놓고, 조립하고, 문을 여는 등 사람의 상체에 해당하는 손과 팔을 이용한 조작기술, 둘째 물체를 운반한다든지 순찰을 할 경우 등에 필요한 사람의 하체를 이용한 보행기능에 해당하는 이동기술,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서비스로봇은 다양한 응용분야와 환경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주로 실내환경에서 이동로봇이 자율적으로 건물과 같은 실내를 주회하려고 할 때에 필요한 기술에 대해 이야기한다. 자율적으로 판단 주회하는 기능이 충실히 구현되면 건물 실내에서의 무인 순찰, 우편물 등의 물건 운반, 안내 및 바닥 청소 등의 다양한 서비스 업무를 사람을 대신해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동로봇은 바퀴나 다리, 무한궤도 등을 이용하여 주회하며, 주위의 장애물 감지나 자기위치 인식을 위해 레이저, 적외선, 초음파 등을 이용한 거리 측정 센서, 위치 추정을 위한 관성항법 센서(자이로 센서), 카메라 등의 센



鄭宇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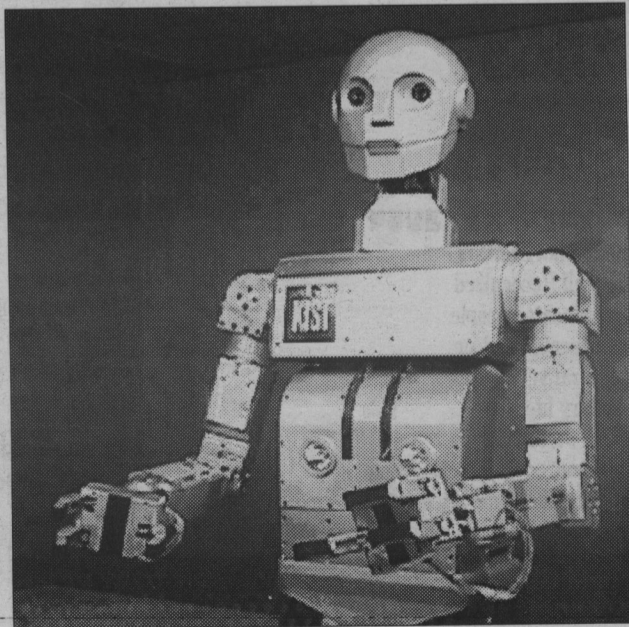
- 1993년 모교 공대 기계설계학과 졸업
- 1995년 일본 동경대 대학원 석사학위
- 1998년 일본 동경대 대학원 박사학위
- 현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휴먼로봇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서를 환경과 작업 목적 등의 필요에 따라 구비한다. 또한 문을 열고, 물건을 집고 나르기 위한 로봇 팔과 로봇 손을 탑재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동로봇의 경우에도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것이 역시 인식과 추론 지능이다. 예를 들어 장애물을 감지했을 경우 대상물체가 의자나 휴지통처럼 치우고 가야 할 대상인지, 사람과 함께 로봇이 잠시 기다려야 하는 대상인지, 또 대상이 사람일 경우에는 로봇의 주행을 위해 비켜주도록 요청해야 하는 것인지를 결정하는 부분이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바퀴의 미끄러짐에 따른 자기위치계산의 불확실성, 조명 조건에 따른 카메라의 대상물체 오인 문제, 충돌회피 제어를 통한 절대적 안전성 보장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사람이 서비스를 담당할 경우에는 혼잡한 환경에서 고객과 다소 신체적 접촉이 일어나도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자율로봇의 경우에는 단 한번이라도 사람과 접촉을 일으키면 사회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대단히 위험하고 복잡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해결방안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은 여러 가지 기술적 난관 때문에 반도체나 통신기술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로봇의 발전 속도가 더딘 감이 있으나, 인간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과학기술의 궁극적 목표에 비추어볼 때 머지 않은 미래에 지능로봇이 일상생활에 다가오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생각된다. 먼저 공공장소의 로비 청소나 순찰과 같은 반복적이며 서비스 작업 부담이 큰 적용대상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발전, 가정과 같은 환경까지 확대될 것이다.

이미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건물 내 순찰로봇, 박물관 안내로봇, 병원 내 식사 운반로봇 등이 현장시험 단계에 돌입해 있으며, 국내에서도 대형 건물 내의 서비스로봇을 비롯해 가정용 흡 서비스로봇, 지뢰나 폭탄제거 등을 위한 위험작업로봇,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복지 로봇 등에 관한 핵심원천기술 개발이 서서히 성과를 얻고 있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특히, 전기전자 및 컴퓨터 기술의 눈부신 발전 속도에 힘입어 지능로봇의 출현 시점은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



大學川 옆 東崇洞

최 희 수 (문리대 기년졸, 시카고 지역 문리대 동창회 萬年總務)

3월 초순에 책 몇권과 이북보따리 싸들고 서울역에서 수유리 미아리 행 시내버스에 오르던 그때 까지도 경부선 기차의 달경거리는 느낌이 남아서 달경거리며 한참을 가다가 이화동을 지나면 법대 교정과 대학전이 오른편 차창에 들어온다.

그제서야 집을 떠나 비로소 서울에 온 느낌을 받는데 그건 순전히 개구쟁이 소년의 소변 즐기마냥 대학전을 향해 긴 가지를 늘어뜨린 긴 행렬의 개나리 꽃망울에서 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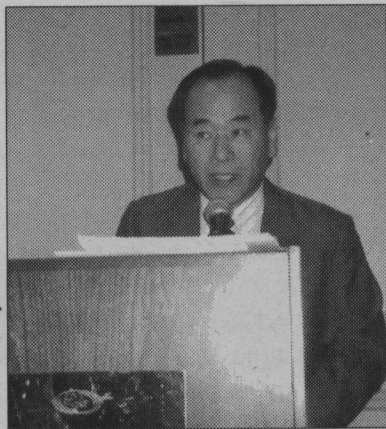
하숙하는 친구들 짐보따리를 여기로 저기로 도와주다가 집에서 갖고 온 향토장학금으로 등록하고, 필수과목외에 선택과목은 이 친구 저 친구의 눈치보이며 수강 신청 끝내고 나면 어느 새 개나리는 줄줄이 셋노릇하게 활짝 피어서 대학전을 온통 뒤덮는다.

정문 앞 다리난간을 방석삼아 앉거나 선 친구 사이를 지나칠 때 세느낌이나, 미라보다리라는 소리를

들으라치면 사진에서 본 그것과는 영 틀리다는 생각에 못 들은 척 정문으로 향한다. 정문에 들어서면 4.19 탑이 살짝 왼편으로 비껴 서 있고, 그 곁에는 라이락 나무가 가지마다 보라색 꽃뭉치를 흔들며 시골 냄새에 젖어있는 코를 깊숙히 간질인다.

정문 오른편으로는 서너그루의 키 큰 마로니에가 큰 잎을 팔팔이며 여름을 부채질하고 그 곁에는 불그레한 본부 건물이 있었다. 정문 왼편으로 난 길로 들어서서 문학부 건물을 오른편으로 뒤로하면 중앙도서관이 대학전을 향해 서쪽을 보고 앉아서는 중국집 진이촌과 학림다방에 들락거리는 친구들을 하나 둘 세고 있었다.

라이락 향기를 온 몸으로 흠뻑 맡으며 4.19 탑을 비껴서 약간 왼편으로 들어가면 고색창연한 문학부 건물이 2층으로 오른편에 길게 누웠고, 조금 더 들어가면 아직도 시멘트 냄새가 나는 듯한 5층 콩크리트의 이학부 건물이 웅장하게



서있었다. 과학관이라 불렀던 이 건물 옥상에는 천문대가 귀여운 크기로 특이한 지붕을 자랑하고 있었다.

과학관을 비껴 나가면 탁 트인 운동장이 가끔씩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철망 울타리 끝까지 퍼져있었다. 대학전을 등지고 앉은 사열대는 운동장 반대편의 여학연구소 지붕 넘어 멀리 낙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운치있는 색채로 치장한 여학연구소는 생물 실험실처럼 느껴졌다. 여학연구소 옆에 밖으로 통하는 작은 철망문이 있었는데 동송동 산 몇번지의 하숙생들이 애용하는 문리대 뒷문이었다. 그 뒷길

에는 “딸각딸이” 선비도를 실천하라고 “우유도 꼭꼭 씹어서 드셨다”는 원로 국어학자 一石 선생께서 90이 지나시고도 산보를 하며 지나시던 그 길이다. 내 하숙집은 그 뒷문을 나가서 오른편으로 이어지는 길에 있었는데 당시 의과대학 학장이셨던 이제구 교수님의 문패를 지나 대여섯번 째 집이었다. 몇해 전에 근 삼십년만에 가보았을 때는 사통 팔달로 길이 나 있어서 겨우겨우 찾았는데 동송동 50-11 번지는 기울어진 한옥대신 빨간 벽돌 이층집이 낱설었고, 바로 옆과 앞집 한옥들은 아직도 나 여기었다 하는 듯 해서 반가웠었다. 법대에서 해화동 로타리 방면으로 가다보면 네개의 다리가 있었는데 문리대 정문 앞의 다리와 해화동 쪽의 다리위에서는 가끔씩 영화 촬영이 있기도 했었다.

일 이학년 시절 교양학부로 수강하려 갈 때 교양학부가 법대 울타리 안에 있는 관계로 대학본부 옆에서 육교를 건너다녔는데 밑이 훤히 보이는 오래되고 낡은 나무 다리가 나중에 생각해보니 유격훈련장의 나무다리와 어찌 그리도

비슷한지 놀라웠다. 당시 여학생들은 삼삼오오 손잡고 건너 다녔었다. 담배 배운담시고 여섯 개피들이 스포츠 한갑 사서 친구랑 나눠 피우며 한모금 빨고는 핑핑 돌면서 그 나무육교 건너던 그 시절이 그리 멀리 느껴지지 않는 건 무슨 병인지 모르겠다.

이제 광활한 북미 대륙의 중앙에 위치하여 한반도가 풍당 들어갈 大湖 미시간 호변에 정착한지 어언 사반세기가 지난 세월이다. 그러나 봄이 오면 나는 종로 5가에서 해화동 로타리까지의 그 거리로 돌아가곤 한다. 낙산의 바위 닳아 씻기운 모래가 맑은 물위에 흘러내리던 그 大學路로 나는 돌아간다.

그곳은 우리 모교의 “大學中的大學”이 있던 곳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의예과, 치의예과를 포함하고 있던 문리과 대학은 모든 학문의 근간을 연구, 발전시켜 나가는 거의 모든 학과를 보유하고 있었던 까닭에 이렇게 불리웠고, 공대, 농대, 사대, 상대, 사관학교등에서 온 청강생으로 항상 붐비던 名講議室이 준비하여 꿈많은 남녀 청년 학도들을 魅了하던 곳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결승골은 통일이다

李 泰 相 (문리대 59년 졸)

어제 우리 한국이 월드컵에서 세 번이나 우승한 독일팀에게 애석하게도 1-0으로 진 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다시 말해 통일 독일팀 대 분단 한국팀의 대결이었으니까.

자, 이제 비록 神話같은 4강전에서 우리가 졌지만 지난 반세기 이상 동서냉전의 제물이 되었던 동족상잔의 악몽에서 깨어나 6·25가 우리 민족의 통일된 새 기원(紀元)이 될 것을 확신하며 북한, 남한과 해외동포 우리 모두 다 함께 분발하여 히딩크식 새로운 단군조선의 천지개벽을 이룩해 보자.

독일작가 헤르만 헤세가 ‘데미안’에서 말하듯 그 어떤 무엇을 절대적으로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아쉬워하다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것을 찾아 얻게 될 때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필연인 것으로 다름 아닌 자신의 절절한 소망과 꿈이 갖다주는 것이리라.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이미 현실’이라고 스페인 출신 프랑수아 가 피카소가 말했듯이 우리는 꿈부터 꺾어야 한다.

그러면 그야말로 말이 씨가 되고 입텃이 되터된다.

본디 낙천주의자에게는 문제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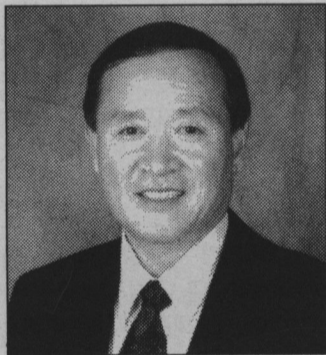
없고 해답만 있을 뿐. 해답중에서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해답만 있을 따름이다. 매사가 난관이나 곤경이 아니고 이는 새로운 또 다른 기회이다.

개논에는 풍만 보인지만 어린 아이 눈에는 별뿔 떨어지는 것이 보이는 법이다.

우리 각자 타고난 천재(天才)를 갖고 인재(人材)가 되어 보자는 뜻이다. 이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하나같이 천재라 할 수 있고 천재의 특징으로 대담무쌍·일편단심을 들 수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미인(美人)과 참 ‘사랑’은 용자(勇者)의 차지이고 예부터 일심불란(一心不亂)·일심전력(一心專力)이면 일심만능(一心萬能)이라 하나보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던 정신과 마음이 목적과 노력이 분산되지 않고 집중집약 통일되어야 한다.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 천재란 99%의 땀과 1%의 행운으로 된 것이라 했다지만 충분히 예비하고 대비한 준비만 되어 있으면 기회란 조만간 오게 마련이고 기회가 나타나는 순간 즉시 놓치지 않고 잡아 최대한으로 활용·선용할 수 있다.

그런즉 사람은 누구나 제 먹는



마음 만큼의 인재·인물이 되고 제 꾸는 꿈만큼의 삶을 살며 제 하는 모험만큼의 기적을 일으키고 쓰는 방법과 수단이 비상하고 파격적일수록 그가 감행하는 만큼 응용하는 만큼 非常하고 파격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 노력하는 즐거움, 예측을 불허하는 미지수의 가능성에 도전하

는 스릴과 흥분, 그 쾌감이야말로 이 세상의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삶의 기쁨일 것이다.

최근 한 아파트에서 임신한 엄마와 단둥이 살던 생후 22개월짜리 女兒가 엄마 사망 뒤 혼자 10일간을 연명한 뒤 구조돼 화제를 낳고 있는데 ‘미라클(기적)’이란 이름의 아이란다.

우리가 생각 좀 해보면 세상엔 기적 아닌 일이란 없지 않는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부터 그렇고 살아온 순간 순간이 다 기적같다. 풀 한 포기, 꽃 한송이, 이슬 한방울, 바람 한점, 햇살 한줄기, 바다, 하늘, 별 등등 모두가 다 기적이다. 한없이 신비하고 슬프도록 아름다운.

‘때때는 결코 치명적일 수 없다. 본인 자신이 자포자기하지 않

는 한 매사가 순조로울 때는 제가 얼마나 강한지 모른다. 역경에 부닥쳐봐야 자기 자신도 갖고 있는 지도 모르던 힘을 발휘하게 된다.

이렇게 전 미국대통령 닉슨은 그의 회고록에서 말한다. 참으로 큰 역경과 난관에 부딪칠 때 이에 걸맞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면 커다란 불행과 위기일수록 그 더욱 큰 축복과 좋은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마치 깊은 골짜기에 내려가야 다시 높은 산을 오를 수 있고 절망의 깊은 밤을 지나야 동트는 희망의 새아침을 맞을 수 있다.

잘 싸웠다. 우리 선수들! 정말 훌륭했다. 우리 7~8천만 韓民族!

우리의 결승골은 통일이다.



월드컵에서 4위를 한 한국팀.

物理學徒의 旅程

나의 人生 나의 學問 <1>

강 경 식 <문리대 59년 졸, Brown University 물리학과>

내가 인디애나 대학교가 있는 블루밍톤에 도착한 날은 1960년 9월 16일로 생각된다.

편도 비행기 요금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멀쩡한 X레이 사진을 가지고 시간을 끈 위생병원의 처사로 미국입국 비자를 받는데 예상외로 늦어져서 가을 학기가 시작되어 두어주나 지나서 도미 유학의 길에 올랐다.

서울대 졸업후 대학원에 입학하였으나 등록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여야 했기때문에 곧 미국유학의 길을 택하기로 했고, 우선 병역의무를 필하여야 했기 때문에 국방부 과학연구소의 연구요원으로 응시 선발되어 낮에는 주어진 연구과제를 다루고 밤에는 연구소의 경비보초를 하면서 일년간의 현역복무를 하고 유학귀후 수속을 밟았다.

그러는 사이 몇몇곳에 대학원 과정 입학지원을 했는바 60년 3월초에 일차로 인디애나 대학교로부터 University Fellowship이라는 학비 및 생활비 전액지원의 특별 장학금을 주겠다는 편지가 도착했다. 눈에 띄는 평화스러운 영화의 한 장면같은 인디애나의 캠퍼스사진에 마음이 끌려 지원했던 이 대학교는 맨하탄 기획에 참가했던 서너명의 노교수들과 아주 활발하게 연구하면서 막 명성이 치솟아 가고 있는 서너명의 소장교수들이 끼어있는 가족적 분위기의 물리학과를 가지고 있었다.

서울대의 당시 C지도 교수님도 나의 장학금 소식을 함께 기뻐하시면서 한국의 대학이 잘 알려지지 않은 당시, 미국중부지방의 중심 주립대학교에서 이런 영광을 서울대 졸업생에게 베풀어 준 것만도 다행한 일이니 즉시 수락회신을 보내라고 하셔서 그렇게 했다.

그런데 3일후에 기대를 걸지 않고 있던 동부지방의 존스홉킨스 대학교로부터 한층 더 빛나는 장학금 Eisenhower Fellowship을 주겠다는 편지가 도착했다. 크고 작은 모든일에 조인을 받아온 C 교수님을 찾아가 상의를 드렸더니, 수학했다가 반복하면 후배들이 차후 인디애나 대학교로 유학가는데 영향이 있으니 처음부터 존스홉킨스의 장학금을 거절하는 회신을 쓰라고 말씀하시며, 스승의 말씀을 전금처럼 여기고 자라온 나는 아쉬웠지만 C 교수님의 충고를 따랐고, 그후 홉킨스로부터 IIE 협정의의하여 4월 15일전에



는 수락을 반복할 수 있다는 해명 편지를 보내왔지만, 그 말씀에 끝까지 따랐다.

그후 인디애나대에서 만난 동급생중 하버드와 예일 출신 미국학생들이 홉킨스의 장학금을 사양하고 내 선생님의 충고를 따라 그곳으로 유학왔다는 내 말을 듣고 어이없다는 듯한 얼굴을 하면서 허를 찾을때를 제하고는 지금까지 한번도 그때의 결정을 후회하거나 아쉬워한적이 없을 정도로 인디애나 대학교는 남부럽지 않은 교육과 성장의 요람을 나에게 제공해주었다.

다음날 아름다운 느릅나무와 씨카모어나무가 뽀뽀하게 들어선 커크우스숲을 등지고 있는 스웨인힐 물리학과 과장실에서 부드러운 할아버지 같은 인상을 가진 알란 C. G 미첼 교수님에게 도착신고를 했고, 자상하고 친절한 과장비서의 설명에 따라 대학원과 장학금 관계 사무실을 두루 둘러 등록절차를 마친 후 다시 미첼교수님의 조언에 따라 첫학기 학과목 등록을 오전중에 다 마치고 오후부터는 수업을 받음으로써 나의 미국 생활이 시작된지 벌써 40년이 지났다.

언어정취능력이 아직 완벽하지 못한데다 늦게 도착한 관계로 다소 긴장된 생활을 처음 학기엔 했지만, 개념설명과 수학적 유도를 체계적으로 자상하게 보여주면서 각자 특색있게 독창적 사고를 하도록 자극하면서 강의하는 교수님들을 생전 처음 대하고 내심으로 경탄도하고 때로는 무슨 영감을 받은듯한 흥분속에서 물리학하는 방법을 터득해갔다. 차차 언어 구사정취의 발전도 시간이 흐르면서 생기고 즐기면서 물리학을 공부하는 안정된 생활로 접어들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신기하고 고마웠던 것은 하고 싶은 학문연구에만 열중하라고 외국학생에게 까지 장학금을 전적으로 보장해 주면서 교

육시켜주는 대학교가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블루밍톤은 학기가 끝나면 외국 유학생인 대학원생만이 남고 약 3만명의 학생인구가 사라지는 남부 인디애나주의 소도시로서, 고작 북쪽으로 약 백킬로 떨어진 곳에 주청소재지 인디애나폴리스가 인근에서 제일 큰 도시이기 때문에 공부이외에는 별로 할게 없는 대학도시이다.

다행히 우수한 음악대학을 가지고 있어서 매주 최정상급의 음악회를 직접 학생 할인가격으로 듣고 볼 수 있는 문화생활을 할 수 있었고, 또한 농구경기에 오랜전통과 열광을 가진 인디애나 대학교인자라 나도 대학농구경기만은 인디애나 주민과 학생들처럼 흥분에 휩싸여 관전하는 후지어 습관을 이때부터 가지게 되었다.

인디애나 초기의 흐뭇한 기억의 하나는 매일 새벽늦게까지 내 연구실에서 공부하던 내가 어느날 치통때문에 하숙방에서 눕게 되어 연구실을 이틀째 비우게 되자 늙은 아저씨 같은 건물 순회 경비원이 혹시 외국학생인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되어 물리학과 과장 사무실에 보고 했던일이다. 사흘후 학교에 나가보니 과장비서가 곧 오는데로 들리라는 메모를 내 우편함에 넣어 두어서 웬일인가하고 찾아들어가 만나니, 매우 걱정스러운 얼굴로 무슨일이 생겼느냐? 아무렇지도 않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매우 가슴이 따듯해지고 흐뭇한 느낌을 맛보았었다.

그러저러 학과목들을 필해야하면서 박사학위 전형시험을 비롯한 필요조건을 해결한지 이년이 넘어가는 어느날 내지도 교수 마크 H. 로스박사가 앤아버의 미시간 대학교의 이론 물리학 책임교수로 옮겨지게 되었다하면서 미시간으로 함께 와서 연구원이 되어달라고 하셨다. 기쁘긴 했지만 귀가 의심스러워 박사학위를 아직 정식으로 받지 않았는데도 연구원이 될 수 있느냐고 반문하니 앤아버에 가서 지금까지 계산한 것들을 천천히 정리하여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하도록 하면서 다른 몇가지 새로운 문제연구를 시작해보도록 하라고 안심시켜주셨다.

이렇게 하여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박사학위를 끝낸 셈이 되었고, 학위를 정식으로 받기전에 유명한 미시간 대학교에서 연구원 생활을 1963년 9월 1일부터 하게 되었다.

당시의 입자물리학은 아직까지 양자장론의 재 규격화 이론이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때라 산란진폭을 해석함수로 취급해서 일반적인 보존법칙을 써서 제한하여 모형이론을 만드는 소위 S-매트릭스 이론이 지배하고 있었다.

나의 박사학위 논문의 중심이 된 "파이 중간자의 산란이론"도 이런 S-매트릭스론을 전개한 것으로 1964년 6월호 미국물리학회지 Physical Review에 발표되었는데 지금은 지적재산권전문 변호사로 샌프란시스코에서 큰 법률회사의 지점장(managing partner)으로 일하고 있는 큰 아들 희석(Peter)이가 태어난지 한달후이고 박사학위수여 졸업식과 같은 달에 생긴 경사였다.

미시간에서의 추운 겨울 생활이 익숙해지고 눈이 녹기 시작한 그해 봄 어느날 로스교수님이 부르셔서 찾아갔더니 브라운대학교의 고에너지 이론 물리학 그룹에서 좋은 연구원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이 왔는데 응도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으셨다. 알고보니 BCS이론으로 후에 노벨상을 받은 리온 쿠퍼교수가 그당시에는 고에너지 입자이론 그룹의 일원으로도 함께 일하면서 연구원 선발을 도와주고 있었다. 이런 인연으로 힘들이지 않고 1964년 9월 1일부터는 브라운 대학교의 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겨 드디어 동부지방 아이비리그 명문대학으로 오는 꿈이 실현되었다.

100일도 안된 희석이와 아내를 데리고 프로비덴스로 이사와 보니 한국에서의 선배나 동급생은 물론 심지어는 서울대 물리학과 조교로 강의하시던 분들까지 브라운에서 대학원학생으로 있었고, 66년에 내가 조교수로 승격된 후에는 이 중에서 여러분이 내가 출제된 박사전형시험을 차르고 나갔다.

助教授로 내정되었던 65년에는 서울대 재학당시 명성을 익히들었던 선배인 진영선 박사가 독일에서 학위를 마치고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의 연구원을 거쳐 브라운 대학교의 조교수로 채용되어와서 나와 함께 연구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로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공지의 논문들을 Physical Review에 발표하게 되었다. 특히 우리 둘이서 쓴 "부분과 산란진폭의 영점들"은 66년 버클리대학에서 열린 고에너지 물리학 국제회의에서 이론 결론 강연을 할 때 MIT의 프랜시스로우 교수가 중요하게 지적 해주어서 주목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나는 콜로라도 하계학교로부터 감사 초청을 받았다.

67년에는 나의 첫 번 박사학위가 배출되었고 그와 함께 쓴 논문 "중성 K-중간자의 질량차" 계산이 물리학 최고 권위지인 Physical Review Letters에 발표되었을 뿐 아니라 이 논문이 마샤등이 마무리 짓고 있던 소립자 교과서인 약작용 물리학에 중요하게 인용되어 다루어지는 영광을 얻었다. 이때부터 나는 적어도 매년 한편은 Physical Review Letters에 발표할 포부로 연구하여 현재까지

0여편이 PRL에 발표되었고, 최근들어서는 유럽학자들과의 공동연구관계로 유럽에서 나오는 학술지 Physics Letter에 더 많이 발표하는 셈이 되었다.

브라운대 초기에 특히 기억나는 일이 두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옆사람들의 자람에 자극되어 브라운대를 버리고 프린스턴 공동연구소 연구원으로 지원하려 했던 일이다. 한국에서부터 명문학교 선호 버릇에 물들어 있던 관계로 내 옆 동료들이 너무도 프린스턴 고등연구소를 거처온 것을 자랑하는 바람에 어느날 저녁 당시 소장인 오펜하이머 교수앞으로 나도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에 오고 싶다고 편지를 내었더니 서류를 보내면서 추천서 두장과 함께 제출하라고 답신이 왔다.

추천서를 부탁하기 위하여 앤아버로 내 스승인 로스 교수께 전화를 하니 "그곳을 거처와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리를 고작 구하는데 너는 그곳을 거치지 않고도 이미 그런 자리에 임명되어있으니 네가 더 훌륭하다는 자긍심을 가져야 할텐데 이게 무슨 짓이나"고 깨우쳐 주셨다.

듣고 보니 정말로 어린아이짓 같아서 부끄러웠고, 그 후부터는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더욱 열심히 일하게 되었는데 몇몇 다른 대학교에서 옮겨오려는 제의도 받은 관계로 69년 7월 1일자로 브라운 대학교의 終身職(tenured) 助教授로 승진 발령도 별로 힘들이지 않고 받았다. 알고보니 210여년이 넘은 역사를 가진 당시의 브라운대학에서는 최초의 아시안계 종신직 교수라고 했다.

둘째는 함께 일하며 인생을 토론하고 물리학을 연구하던 진영선 교수가 갑자기 어느날 심장마비로 인하여 세상을 떠날이다. 1967년 6월 17일 밤으로 생각되는데 학기도 끝내고 한지라 가족들과 주말 동안 뉴욕시를 다녀오겠다고 나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퇴근하지 10시간도 안된 이른 새벽 어떤사가 전화로 나를 깨워 이 기막힌 비보를 전해 주었다.

진영선 교수는 그해 7월 1일자로 종신직 부교수로 승진되기로 이미 내정이 되어있었는데 실제로는 부교수 취임을 몇일 앞두고 서거한 것이다.

진교수의 서거는 그로부터 10년 후 뜻밖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Benjamin Lee(이휘소)교수의 서거와 더불어 내 일생에 가장 충격을 준 일이었다.

64년 브라운으로 오면서 자주 연락을 하며 사귀게 된 이휘소 교수와 함께 진교수는 추모 논문집을 한국 물리학의 새물리지 증보판으로 발간한 바 있다.

<다음호에 계속>

戰時 서울대학교

변만식 (사대 53년 졸)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났던 한국전쟁은 1951년에 이르러 만주로 확장하려는 맥아더 전략에 브레이크를 건 트루만 대통령이 매튜 릿 지웨이장군을 UN 사령관으로 대치하니 戰況은 고착상태로 들어가고 전국은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었다.

부산에 피난 와 있던 한국정부도 즉각 이에 대비하고 문교부로서도 교육공백이 오래될면 안되겠다는 방침 아래 공공 건물에 대한 토지수용령을 내리고 각급 학교의 피난지 개교를 서두르게 하였다. 고등교육의 기간인 서울대학교도 백방으로 대치 건물을 찾아 보았으나 마땅한 건물은 모두 군용으로 징발되어 할 수 없이 열악한 國庫를 짜내 부산 동대신동에 가교사를 짓고 전시 종합대학으로 거듭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이었다. 등록하는 학생들에게는 국방부와 합의하여 병역의무 연기의 혜택을 주기로 하였다.

이리하여 서울대학교가 부산 서북쪽에 있는 동대신동 협곡을 따라 판자교사를 짓고 수업태세에 들어간 것이 그 해 9월, 砲煙이 천지를 뒤덮던 戰亂의 와중에도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 어느덧 학기도 바뀌었고, 입시시험에 합격한 신입생들도 총명한 두 눈동자를 반짝이며 개강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부산 개교의 소식을 들은 재학생들은 삼삼오오 모여 들어 눈물의 포옹으로 각자 겪었던 수난의 얘기를 주고 받으며 보이지 않은 학우들의 공금을 달래는 한편 살아 남아 서로 만날 수 있다는 환희와 새 출발을 다짐하는 감격과 흥분에 들뜨고 있었다.

한편 교수들의 입장도 마찬가지로 여섯 몇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지도 교수들도 있었으니 전쟁이란 냉엄한 현실앞에서는 예외없이 같은 평행선상에 놓여 있는 공동 운명체였다. 다행히도 나는 美星條旗 신문사 부산 지국에 근무하고 있을 때라 쉽게 모교인 사범대학에 가서 등록을 마쳤다.

가교사의 모습: 가교사의 모습은 처량하였다. 미제 상품이 없던 때라 순수 국산 늘판자로 지어진 가옥에 지나지 않아 우리는 그것을 하교방이라 불렀다. 지붕엔 까만 종이 가 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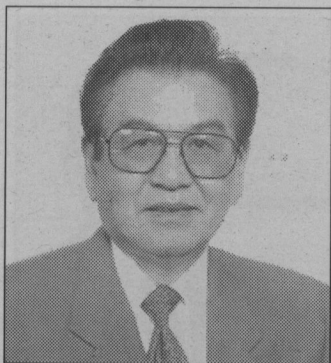
혀있고 그 위에 다시 각목으로 굳 세계 못을 박아놓았다. 항구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다 바람을 막기 위한 보강책이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전쟁을 겪고 있는 초 비상사태에 오직 서울대만이 독자적인 건물을 갖는다는 자체가 우리들에겐 지나친 사치였다.

혼잡한 시내를 벗어나 골목길에 접어들면 바른편 낮은 곳에 사대가 자리잡고 강건너에 공대, 법대, 문리대, 의대 기타 대학의 순서로 갑작스레 신조된 판자 대학촌이 나타나니 좁은 길은 삼시간에 등·하교하는 대학생으로 북비게 되었다. 교사 배열은 대부분 “ㄷ”자형으로 되어있었고 맞은편 양쪽에 각각 3개의 강의실 그리고 두 건물을 연결하여 교무처 학생처가 있어 그곳에 와서 각자 도장을 찍고 출석을 고하였다. 건물 하나는 고작 trailer house 네 개를 장방형으로 놓은 크기에 불과하였으니 그 크기를 짐작할 수 있으리라.

언젠가 교실관계로 공대 강의실을 빌려 국문학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다. 강사는韻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漢詩 하나를 예로 들었다. “바람은 썰썰불고 비는 후다닥 쏟아지는데 문풍지 마저 슬피 우느냐...”(風爽爽 雨落落 一振窓戶聲...) 이는 한 가난한 선비가 비오는 날의 쓸쓸함을 운에 맞춰 읊은 것이다.

그런데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어 風을 板자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내놓았다. 잠시 침묵을 지키던 학생들이 폭소를 터뜨렸다. 남쪽땅이라고는 하지만 부산의 겨울 추위도 만만치 않아 삭풍은 판자 사이로 새어들어 뼈에 사무치고 비 오는 날이면 장대비가 천정에서 새어 내려 비를 피하느라 대 소동이 났었다.

땅에 떨어진 빗물은 삼시간에



새까만 진흙탕으로 변해나갔다. 이웃에서 묻어온 연탄가루가 한 뭉치를 한 것이다. 그러나 이토록 썰렁한 환경 속에 난로도 없었던 강의실 안은 항상 뜨거운 온기에 차 있었다. 불타는 학구열과 서울대생이란 프라이드가 어울려 뿜어대는 열기 때문이었다. 강의실이야말로 격랑의 파도를 헤치고 돌아온 우리들의 안식처요, 방파제이기도 하였다.

사범대학 교수진들: 화제를 바꾸어 잠시 사범대학 강의실문을 열어보기로 한다. 사대 간판교수인 정범모 교수(한림대 총장으로 은퇴)는 그 무렵 시카고 대학에 유학중이고 김기석 교수의 교육철학, 김석묵 교수의 윤리학, 주정일 교수의 일반영어, 김성근 교수의 서양사(피난이 좀 늦었음), 최기철 교수의 생물학, 이병이 교수의 체육학등이 기억에 남는다. 그 중 피전득 교수의 영문학강의는 강의중의 백미라 항상 강의실은 초만원에 이르렀다. 그분 특유의 재치와 유모어가 넘치는 “오-헨리”의 단편 소설 강의는 50년이란 긴 세월이 흘러간 지금에도 어제의 듯 새롭다. 피전득 교수의 90이 넘는 지금에도 아직 건재하여 문필생활을 계속하고 계시며 수년전에는 서울대를 빛낸 교수의 한 분으로 서울대학교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각각 표창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이전에 동창회보에 실렸던 김재순 총동창회장의 “피전득 선생님의 표창 수상을 축하”하는 글에서).

서울대생의 군사훈련: 군사훈련은 병역 연기와 직결되는 필수과

목중의 필수과목이었다. 오전 2시간의 90분 수업과 오후 한시간의 강의가 끝나면 구덕산에 올라가 군사훈련을 받았다.

그때그때 각과에서 모인 인원수에 따라 소대편성이 되면 향도를 선출하고 기초훈련을 생략한 실전 연습으로 들어갔다. 종산개, 황산개, 포북, 팔부능선타기 등등, 언제라도 전투에 들어갈 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었다. 훈련을 마치고 하산할 때에는 군가를 불렀다. “동이 트는 새벽꿈에 고향을 보고...정훈곡에서 보내준 단 하나의 군가였지만 서울대 배례모를 쓰고 선창후창으로 보무도 당당히 걸어 내려오면 몇몇 안되는 여학생들과 동네 아주머니의 박수 갈채를 받았다. 요새말로 오퍼부대의 힘찬 응원이었다.

eues Im Western”의 마지막 報告서를 상부에 올리면서 죽어간 한 독일 자유주의 학도병의 수기는 “우리들 가슴에 진한 감동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가을날 서울대 문학의 밤이란 것도 있었다. 학생하나가 등단하여 이 앓은 소리를 내어가며 시를 읽어나갔다. “내가 죽으면 사랑하는 이여...”로 이어지는 크리스티아로젠의 시였다. 내일을 기약 할 수 없었던 우리들의 긴박한 심경이 메아리되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인양 길게 울려 퍼져나갔다.

졸업식: 일진일퇴의 힘겨운 전쟁을 겪는 동안 어느덧 52년도 가고 53년 7월 27일야 휴전이 되고 유혈이 낭자하던 조국의 산하에서 총성은 멎었다. 그동안 52년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겨울이 가고 구덕산 기슭엔 진달래와 벚꽃은 만발하였건만 春來不似春이라 아직도 일선에서는 김일성 고지나 피의 능선, 마의 삼각지대에서 한치를 뺏고 또 빼앗기는 치열한 전투는 계속되고 모처럼 시내로 나가보면 골목길에는 하얀 상자를 앞세운 장례 행렬이 이어졌다. 가끔씩 들려오는 학부들의 전사소식은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 우울하게 만들었다. 의기 상통한 친구들 몇몇이 어울려 막걸리 한잔에 기쁨을 토할때도 浩然之氣象은 찾을 길 없고 “다뉴브강의 물결”은 어느덧 “광막한 광야에 달리는 인생아...”로 바뀌어 불려가며 허무와 Decadent Mood에 사로잡혀갔다. 개똥철학자(철학하던 친구들의 별명)가 아니더라도 자연 우리는 니이체나 쇼펜하우엘을 벗삼게 되고 “西部戰線 異狀없음”의 일어 번역 소설도 비밀스럽게 돌려가며 읽었다. “Nicht

에는 피난지인 부산 영도에서 졸업식을 갖았고 나는 미수 학점때문에 “서울가는 12월차”에 몸을 싣고 을지로 4가 본 교사로 돌아왔다. 53년 9월 어느 날 폭격을 면했던 문리대 강당에서 7회 졸업식이 거행되었고 졸업식에 입장하기 전 신혼의 나의 내내는 나의 머리 위에 학사모를 얹어 주었다.

명예로운 군기에는 총탄의 흔적이 있듯이 우리들이 받았던 졸업장에는 전쟁과 학업에 얽힌 고난의 반점들로 얼룩지어 있었다.

추기: 이 글을 통하여 자주 나에게 달필로 된 강의 노트를 빌려주던 詩人 金南祚 동문(국어과 51년 졸)에게 감사하오며 당시 대위로 군복무를 마치고 복교하였던 李榮德(교육학과 52년 졸) 및 鄭元植(교육학과 54년 졸) 동문들(두분 모두 후에 국무총리를 역임)의 늘름하였던 그때의 모습도 아울러 전하여 드립니다.



대학본부 (1951. 부산 동대신동)

서울대학교 신임 총장에
정운찬 교수(상대 1970년 졸) 선출
자세한 경과는 서울大學新聞 참조
www.weekly.snu.ac.kr.

한국이 先進國이 되려면

“國費 獎學生”들의 母國에 대한 報恩의 論壇을 열며

최경홍(공대 60년 입학)

한국은 아직도 中進國이다. 그렇게도 지난 30-40년간을 전국민이 바둥바둥 노력을 했건만 아직도 先進國의 대열에 서지 못하고, 後進性을 다분히 가진 中進國에 머물고 있다고들 한다. 왜 그럴까?

한국으로부터 미국으로 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민을 와서 살고 있다. 더욱이 한국인중에서도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미국에 와서 살며, 미국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서울대학에서도 졸업생 중 20-30%가 와있지 않을까? 이렇게 미국에 이민와서 미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사는 많은 한국 교민들은 대다수가 한국에서 국가가 설립하고 국가가 보호하는 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들이다.

한국에서 최고의 국가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최고의 서울대학을 나오기까지, 한국 정부는 국민의 血稅로 만들어진 국고에서 많은 돈을 써가며, 서울대학생들을 교육하고 배양하였다. 어느 면에서 서울대학생들은 국가 장학생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한국에서 국가가 길러낸 존재와 수재들의 많은 부분이 미국에 건너와서, 전 일생을 살며, 미국사회에 공헌하며 일생을 마지막으로 살고있다. 세계의 존재와 수재를 다 데려다가, 미국은 자기네 나라의 이익과, 경제적 부와, 정치 군사적 우위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서울대학 졸업한 분류 중에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을 서로 연결하며 교통하는 서울대학 동창회보가 있는 것이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이제 많은 우리 동창들은 이곳 미국에서 20-30-40년 살다 보니, 이 나라가 우리 나라인지 한국이 우리 나라인지 어렵게 느껴진다. 한국과 미국이 월드컵 시합할 때, 우리 1세들은 대부분 한국을 응원한 것은, 우리가 비록 미국시민이 되었더라도, 한국을 잊지 못하고, 사랑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이제 미국에 와서 살고있는 우리 서울대동창들은 지난 20-30-40년 미국의 각 기관에서 일하며 사는 동안 수없이 좋은 先進國의 철학, 정신, 문물과 제도를 보고 배우고 적용하며 살아왔다. 우리 동창들은 그러나 한편 한국사회는 아직도 수 없는 분야에 걸쳐, 후진성을 갖고 있으며, 선진국이 되지 못하고, 버둥거리고 있음을 보게된다. 우리들은 정치, 경제, 사회, 교

육, 문화 등 각분야에서, 미국 선진사회의 좋은 점들을 너무나 많이 배웠고, 길이 이해하며 알고 있다.

우리를 國費로써 교육시키고 이렇게 선진 미국에 이민 와서 살수 있게 해준 고국 한국이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선진 미국에서 가만히 조용히 우리들의 안위한 생활을 영위하면 그뿐일까? 우리들은 간혹 방문해서 보고 듣고 온 한국에 대한 이해가 있다. 우리들은 또한 한국 신문들과 TV를 통하여 한국의 사정을 잘 알고 있다.

한국은 선진 대열에 끼려고 이제 신음하며,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다. 500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다고 자랑하지만, 진정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선진국이 되기까지는 우리 한국은 아직도 멀리 있는 것 같다. 경제적으로는 년 국민 총생산 GDP가 \$10,000을 넘었다고들 하지만, 한국사람들의 문화적, 철학적 생활은 아직도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 도시에는 고층건물이 즐비하고, 화려한 아파트에 살며, 자동차가 국민 2인당 한대씩 소유하는 나라가 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재미동창들이 보기에는 한국은 아직 선진국이 아니다.

왜 그럴까? 이것은 한국인이 物質적인 면에서도 先進化했다고 하더라도, 哲學的, 정신적, 문화적인 면에서는 너무도 後進性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모르겠다. 국민 개인소득이 년간 10,000불이 넘었다고 해도 빈부의 차이가 격심하기에, 아직도 년간 1,000불-2,000불 소득자가 대량으로 존재하는 鐘(bell) 모양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고 하지 않는가? 부자들은 미국·유럽의 어느 부자 못지 않게 돈더미 속에 살고 있지만, 다량의 국민자들과 저소득층이 하루하루의 생활을 영위하기에 너무도 허덕이며 사는 것이 이 나라가 아닌가.

은 나라가 부정과 부패로 가득 찬 것이 지금의 한국이 아닌가? 정치, 경제계에서도 말할 것 없이 종교계, 교육계까지도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는 것이 한국사회가 아니던가? 일년동안 우리가 읽어 보는 한국의 신문기사를 보자. 계속하여 터져 나오는 대형 부정부패가 위로는 국가 최고 지도자들로부터 아래로는 초등학교 선생님들까지 이르러 매일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며 사는 것이 한국사회가 아니던가? 한국사회는 바야흐



로 부정부패의 흙탕물 속에 허벅거리고 있고 인간의 격투장과 같이 느껴진다. 권력을 잡으면 한탕하여 한가족이 3-4대까지 살수 있는 재산을 거머쥐려고 하지 않는가?

모든 경제적이건 문화적/정신적인 인간의 거래 속에 항상 부정부패의 요소인 뇌물(賂物)이 개입되어야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것이 한국사회가 아닌가? 어느 거래에서도 한국에서는 표면상 있는 그대로 상업(商業)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물다. 항상 거기에는 뇌물(알파)이 작용하여야 한다. 겉으로는 깨끗한 선진국적인 계약이지만, 그 이면에는 항상 검은 알파가 덧붙여야 일이 된다.

회사나 정부기관에서 우리는 팀웍으로 일하고 있다. 어떤 계약을 계약자에게 주게되면 거기에서 들어올 뇌물 때문에 팀웍의 멤버들이 신경을 곤두세운다. 어떤 건축회사에게 계약을 주느라고 큰 회사나 정부기관의 팀들은 열심히 일하고 조사하고 계약서를 쓰고 협상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의 큰 회사와 정부의 직원들은 들어올 뇌물에 대하여 더 큰 신경을 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진정 올바른 계약서 작성에는 관심이 없고, 그후 들어올 뇌물에 더 신경을 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이놈의 뇌물인가 알파인가 때문에 신경을 너무도 쓰게된다. 이렇게 일하는 상급기관, 큰 회사나 정부기관의 일꾼들은 서로 믿고 단결해서 일하기보다는 서로 의심하고, 경계하는 태도가 역역하다. 누가 그 음성적인 뇌물과 알파를 가로채지 않을까? 누가 더 먹지 않을까.. 모두들 마음을 조리며 일하고 있다.

이런不信의 사회에서 어떻게 선진의 문명과 문화가 꽃피울 것인지 한심스럽다. 선진문명과 문화는 상당히 복잡하고, 정교화되어(sophisticated) 되어 있는 것이므로 함께 일하는 조직 구성원들간의 단결이 중요하다. 절대적 신뢰와 단결이다. 그 동안은 군사독재하에서 억압적으로 단결하였다. 후진국에서 중진국이 되기까지는 당장 의식주를 해결해야하는 긴급한 문제 때문에 웬만한 부조리도 참아가며 단결하여 일하였다. 그

러나 이제는 중진국을 넘어 선진국으로 향하는 한국에서 억압이나, 최소한의 의식주 해결을 위한 원시적 단결만으로는 임할 수가 없다. 아니, 이러한 原始的 단결이 이제 우리들 中進國 사회에서는 존재치도 않는다.

이렇게 정치, 경제, 산업, 교육, 문화 모든 분야에서 우리 직업인들이 단결이 안되면 나라의 발전은 減速하지 않을 수 없다. 後進國에서 中進國까지는 그래도 쉽게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진정 어려운 것은 중진국에서 先進國으로 올라가는 길이다. 이것은 억지로 억압되어온 단결로는 안 된다. 이것은 모든 국민과 지도층이 이성적인 이해 속에서 나오는 단결력이 없이는 이를 수가 없다. 시원, 과장, 차장, 그리고 팀장으로 구성된 하나의 프로젝트 팀 속에서 어느 하나가 나머지를 의심하고 신뢰치 못한다면, 어찌 그 프로젝트가 신속히 성공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서로간의不信이 부정부패의 진흙탕 속에 한국사회에 팽배하고 있음을 보고있지 아니한가?

진정 先進國이 되기 위하여서는 국민 하나하나, 그리고 밑에 있는 빈민층에 속한 개인들이 각자가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民主的으로 발표할 수 있고, 이러한 목소리가 정중하게 받아들여지고 의논되는 민주주의의 실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5000년 봉건주의와 유교주의 속에 권력이 누르고 권력에 복종하던 시대는 사라져가고 있다. 과거의 잘못된 권위주의 사회에서 진정 민주주의 사회가 되어야 우리에게 선진국의 꿈을 꾀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우리 미주 서울대 동창들이여! 우리는 너무도 강대하고 자유로운 나라에서 잘 살아왔고, 잘 살고 있다. 그러나 조국의 동포들은 이제 선진국이 못되어 안간힘을 쓰며 숨차하고 있다. 우리가 이 선진국에서 배운 수많은 사상과 태도를 우리만 갖고 있다가 인생의 종말을 맞이 말고, 우리가 배운 좋은 것을 신음하는 한국사회에 알려주자. 우리는 血稅로 세웠던 좋은 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에서, 국비를 써가며 최고의 프라이드를 뽐내며 살아온 우리가 아닌가? 우리는 모두 祖國에 빛진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가 직접 한국에 돌아가서 정치, 경제, 사회, 산업계, 교육 문화계에서 일하고, 조국을 돕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남은 생애에 우리가 미국 생활에서 배웠던 좋은 선진국의 장점들을 동창신문에 발표하고, 그것들이 한국에 있는 총동창회 신문에 실리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 그것들이 한국 주요 신문, 잡지에 발표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우리가 국비로 공부한 빛을 쉽게 갚는 일

이다.

각계 각종 미국 사회에서 경험을 많이 쌓으신 서울대 동문 여러분!

앞으로 6개월에 걸쳐서 재미 동창회 회보는 이 문제를 갖고 동문들의 의견을 담은 글을 모아 함께 토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고(寄稿)를 바라며,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원고를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고 작성 취지와 요령>

1. 모든 분들에게서는 최대한 원고지 5장 이하로 글을 압축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2. 내용은 첫째, 나는 한국의 발전이 저지되고 있는것은 무슨 이유때문이라고 진단한다.

둘째, 한국의 많은 부족한 점들 중 다음의 사항들이 발전에 큰 걸림돌이다.

세째, 이러한 부족한 점(나쁜 점)은 어디서 생겨나고 있다고 생각하나?

네째, 이러한 부족한 점(나쁜 점)을 속히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다섯째, 미국 선진 사회에서는 그런 나쁜점들을 이러한 좋은점들로 대체시켜왔다.

3. 동문중 각 분야에서 종사하신 분들은 특별히 자기 분야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위의 5가지 사항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써주실 분야는

- 정치/경제 부분--
- 교육/문화 부분 |
- 사회/노동 부분 | 등의 5분야를 중심으로
- 종교/철학 부분 |
- 결론/추천사항 --

동문들께서 보내주시는 의견과 발표문을 조직하여 신문에 6개월간 게재하려고 합니다.

투고하실 원고는 진부하고 형식적인 연구소 논문이나 학술 논문 식으로 쓰지 마시고, 韓國의 發展이라는 큰 목표를 향하여, 가능하다면 우리 실생활에서 느끼고 체험하신 것들을 중심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분의 높은 식견을 간명하게 진술하셔서 보내주시면, 가능한 많은 분들의 글을 앞으로 오는 6개월간 우리 동창회보에 싣도록 하여, 수준높은 對話의 廣場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論壇의 결과는 추출하여 모국에 보내 大學新聞과 주간지와 잡지 신문들에 우리 미주동문들이 쓴 글들이 게재되도록 하였습니다. 많은 동문들께서 高見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 김정수(서울대 총동창회 회보 편집인) Fax. 847-981-1465

주관: 최경홍(서울대 공대 60년 입학, 현재 WEECO 환경회사 사장) 714-542-2644

남가주 소식

임광수 총동창회 회장과 미주순방단 남가주 방문

시카고에서 열린 재미 총동창회 제 11차 정기 평의원회에 참석하였던 임광수 서울대총동창회장과 순방단 일행(한두진, 공대식, 우인성, 명태현, 박영준, 윤근한 및 장익용 동문과 총동창회 사무국의 김중준씨)을 환영하는 만찬회가 6월19일 수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J.J Grand Hotel(620 S. Harvard Blvd. L.A. CA

90005에서 개최되었는데 여기에는 50여명의 동문 가족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있었다. 이날 환영식에는 6시 30분부터 리셉션이 있었고 김지영 총무의 개회선언으로 7시에 시작되어 참석자 소개가 있었고 임낙균 회장의 환영사가 있었다. 이에 임광수 총동창회장의 답사후에 만찬이 있었고 총동창회가

수여하는 공로패를 이청광 전회장, 김지영 총무, 성주경 재무가 받았다.

또한 임광수 총동창회장은 남가주 총동창회에 골프대회를 위한 순화배를 증정하였다.

이어서 순방단을 환영하는 음악 연주회가 있었는데 홍옥자 동문이 피아노 연주로 쇼팽의 마주르카와 모차르트의 터키 행진곡을 연주하였고 사업국장인 백옥자 동문이 침향부를 연주하여 동서양의 화음이 어우러져 격조높은 환영회가 되었다.

이어서 참가자들간의 여흥이 있었고 9시 30이 넘어서 폐회되었다.



총동창회 순방단을 환영하는 만찬에 참석한 남가주 동문들 기념촬영.



서울대 총동창회 순방단 L.A 방문 환영 피아노 연주를 하는 홍옥자(음대) 운영위원장



가야금으로 총동창회 순방단 L.A 방문을 환영하는 백옥자(음대) 사업국장.

2002년 남가주 동창회 山岳축제

다음과 같이 등반대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동문들의 참가를 바랍니다.

- ◇일 시 : 7월14일 일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Mt. Islip(편도 2.5마일 / 소요시간 2시간)
- ◇준비물 : 방한복, 스넥, 물 등 점심지참.
- ◇집합장소 : Mt. Islip Saddle Parking Lot에서 오전 10시
- ◇연락처 : 오홍조 재미 총동창회 수석부회장 전화 213-382-8205
김동근 선임이사, 805-499-3191
조경일 진행위원장, 714-703-2824
남가주동창회 사무실, 213-365-9669(오후 4:30-7:30)
- ◇지도는 백옥자 사업국장에게 요청하여 참조.
3700 Wilshire Blvd., Suite 960 L.A. CA 90010
Tel. 213-365-9669/ Fax. 213-365-1686
- *참석여부를 7월5일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대 동창팀 중앙일보 골프대회 16강 진출

지난 6월 20일에 중앙일보 사자 기배 쟁탈 골프대회에 네분의 동문들이 서울대 팀(위 사진)으로 참가하였는데 이 대회에 참가한 32팀 중에서 16강에 진출하였다.

선전한 동문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수의대의 조운하(수의대), 공대의 성민경 동문 및 최재현(수의대 단장), 이재현(수의대), 동문, 사대의 김진호 동문)

모교 복싱팀 LA 방문 시합 예정

모교 재학중인 후배 복싱팀이 오는 8월 15일 (목요일) LA를 방문 시합을 가질예정이다.

(연락처, 남가주 총동창회 사무실 213-365-9669)

남가주 총동창회 평의원단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웹사이트 개발 제안

지난 6월 14일부터 16일 간 시카고에서 열린 재미총동창회 제 11차 평의원회에 남가주를 대표하여 오홍조 총동창회 수석 부회장과 임낙균 회장과 서영석, 이청광, 방석훈 동문과 객절 수석 부회장

이 평의원회 회의에 참석하였고 백옥자 사업국장과 Mrs. 오홍조와 Mrs. 객절께서는 참관단으로 참가하였다. 남가주 총동창회는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웹사이트 개발 준비를

14일 평의원회 본회의에서 정식의안으로 제안하여 평의원회의 동의를 얻었다.

2003년 서울대 총동창회의 웹사이트 개발을 준비하여 그간의 모든 동창회 정보를 인터넷상에 모으고, 지역을 초월하여 동문간의 인적, 문화적, 경제적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웹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 1단계로 서울대 L.A. 커뮤니티 사이트를 개발하고(2002년 6월-2003년 4월), 제 2단계로 서울대 총동창회 커뮤니티 사이트 개발(2002년 11월-2005년 6월)하여 서울대학교 미주 총동창회와 각 지역(New York, Chicago, Washington DC, Los Angeles, San Fran-

cisco, Philadelphia, Georgia 등) 동창회로 확대,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미주 총동창회 웹사이트 구축 기획 위원회를 조직 운영하되, 전국 동창 명단, 업소록 작성, 학교 및 동창회 역사, 인명록, 기타 문화사업, 인터넷 쇼핑센터(기념품, 출판물 등), 예산 수립 및 집행 웹사이트 설립 기금 후원자 명단 작성 사이트에 명단 영구 보존하고 광고 후원자 명단을 작성할 예정이다.

또한 남가주 평의원단은 16일 열린 시카고지역 지역동창회 골프대회에 참가하였는데 오홍조 총동창



시카고지역 Golfer들을 압도한 오홍조 동문이 한재은 시카고 지역동창회장과 기념촬영.

회 수석 부회장(79타)과 Mrs. 오홍조(81타) 내외는 시카고지역 동문들의 압도하는 우수한 성적을 올려 남가주 동문들의 실력을 과시했다.



11차 평의원회 8분 참석자-서영석, 이청광, 임낙균, 백옥자, 방석훈, Mrs. 오홍조, 오홍조, 객절

필라지부 소식

동창회 친선골프 및 교양강좌 개최

신임회장에 김용식 동문(약 70년 졸)

필라 지부 동창회(회장 강영배, 수의대 59입)는 6월 8일 동문 친목 골프대회 및 만찬을 겸한 교양 강좌를 가졌다.

아날 1시부터 Paxon Hollow Country Club 에서 열린, 골프 대회에는 모처럼 좋은 날씨에 20여명의 동문 및 동문 가족이 참여하였고 지부 골프 감사인 김길선 동문께서 주관하여 수고하였다.

이 **골프대회**의 근접상에 **오연각 동문**(수의대 57년 졸), 장타상에 **김길선동문**(문리대 69년 졸), 그리고 영예의 1등상은 **최현태 동문**(문리대 69년 졸- 지회 13대 회장)이 차지하였다.

오후 7시부터 근교에 위치한 August Moon Restaurant에서 열린(유용진-상대 59입, 김명자-음대 63입 부부동문 경영)연회에 50여 동문 및 가족이 모여 만찬을 가진 후 Golf대회 시상식이 있었고 당 회기(2001. 7. 1-2002. 6. 30)의 사업보고(아래의 보고서 참조)와 회계보고가 있었다.

이어서 **송영록 동문**(약대 66년 졸)의 **"생수와 천연소금과 건강"**이란 제목으로 교양 강좌가 시작되었다.

송동문은 교양강좌에서, 天日

(unrefined sea salt)은 83가지 미량 광물질(trace mineral)이 함유되어 우리 몸의 체액 성분과 동일하며 효소의 활성화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여 완전 정제된 시중소금(99% NaCl)과는 질적으로 다름을 강조하였다. 그는 식탁에서 쓰는 소금을 천일염으로 바꾸어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자고 하였으며, 또한 여러 질병의 원인이 몸의 수분부족(chronic dehydration)과 연관되지 않나하는 새로운 발상(Paradigm Shift)을 제안하면서 생수를 충분히 하루 8컵씩 마셔서 건강을 유지하자고 하였다.

충분한 양의 생수를 마시면 청포도와 같은 싱싱한 체세포를 갖게되며, 불충분한 수분의 섭취 혹은 청량 음료나 맥주류의 섭취는 건포도와 같은 체세포를 연상하면 된다면서 천연소금을 탄 생수를 마시면서 약 90분간 지루하지 않게 동문들의 건강을 위하여 유의한 특강을 하였다.

이어서 7월 1일부터 그 임기가 시작되는 17대 **신임회장 김용식 동문**(약대 70년 졸)의 인사가 있었고 기념 촬영으로 회의를 마쳤다.

새로 참석하신 김정산 (법대 60



골프대회와 교양강좌를 마치고 필라지부 동창회원일동. 전열 우측끝이 주기목 총무이고, 그 옆이 강영배 지부회장.



위사진 : 세미나 감사 송영록 약사 (약대 66년 졸) 사진 우측 : 뒷줄 좌측이 강영배 동창 회장이고 뒷줄 오른쪽이 김길선 골프감사이며 골프대회 1등 수상자인 최현태 동문(13대 회장).



년 입-목사)과 전광자(약대 62년 입) 부부동문, 유용진(상대 59년 입)과 김명자(음대 63년 입) 부부동문, 변국한(공대 75년 입)동문을 환영합니다.

<투고자 주기목 총무>

수의대 동부동창회소식

신임회장에 오연각 동문(57년 졸) 총무에 김현영 동문(62년 졸)

수의대 미동부 동창회는 신임 임원진을 선출하였는데 김문소 회장을 선출하였다. 그의 뒤를 이어 오연각 동문(57년

김문소 동부 수의대 동창회장의 이임 인사

동부 동창회원님들께
회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십니까?
2001년 2월 어느 날 오연각 선배님이 전화하셔서 "이제는 Boston에서도 1년 회장을 맡아야겠어"하시는 분부를 이기지 못해서 시작한 임기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주기목 총무님의 헌신적인 봉사와 회원 여러분의 물심 양면에 협조 및 지도 편달로 별첨과 같이 2001년도를 잘 마무리 한 것을 감사드리오며, 특히 모국 동창회와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된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오연각회장님의 지휘하에 더욱 재미있고 활기찬 2002년 동창회가 되도록 회원 여러분께 배전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회원님들 가정과 사업에 하나님의 가호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2년 5월 김문소 올림

재미 서울대학교 동창회 필라지부 사업보고 및 행사일지(2001년 7월-2002년 6월)

1) 6-8-2001(서라벌 식당)

● 제 1차 임원회

임원선임 : 강영배회장, 김용식수석부회장, 김국간 및 조영일부회장, 주기목총무, 윤석희회계 회기중 주요 사업계획 성안: 장학기금 조성, 교양강좌 및 친목 Golf대회, 송년 파티, 회보발간

2) 9-23-2001

● 제 1차 추계 친선 골프 대회(Skipack Golf Club) ● 제 1차 교양강좌(Lai Lai Restaurant)

강사 : 정규병 동문(공대 82년 졸), 제목 : Internet 및 E-Commerce

3) 10-16-2001

● 제 2차 임원회 : 송년 축하 파티를 위한 제반 사항 논의

4) 12-1-2001(Lai Lai Restaurant)

● 송년 축하파티

5) 4-25-2002(종가집)

● 제 3차 임원회 : 춘계 친목 Golf 대회 및 교양 강좌 준비 모임

6) 6-8-2002

● 제 2차 춘계 친목 golf 대회 : Paxon Hollow country Club

● 제 2차 교양강좌(August Moon)

강사 : 송영록 약사(약대 66년 졸), 제목 : 생수와 천연소금과 건강

7) 6-15-2002

● 총동창회 평의회(시카고)

8) 기타

● 서울음대 선교 합창단 공연 찬조(임마누엘 교회) ● 김미순 동문(음대 86-90) 공연 찬조

● 고 김정수 동문(상대) 문상 ● 재미 동창회 회보 기사제공 ● 모국 동창회보에 필라지부 소개

뉴욕지부 소식

뉴욕지구동창회 2002년도 임시총회 개최 차기회장에 김종률 박사(사대 55년 졸)

뉴욕지구 동창회는 6월 1일 한창섭회장의 사회로 임시총회를 열고 현재 수석부회장인 김종률 동문(사대 55 졸)을 차기회장(사진)으로 선출하였다. 김종률차기회장의 임기는 9월 1일부터 1 년간이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또한 차기이사장선출과 결산보고는 단과대학 및 대학원 동창회장으로 구성된 상임이사회에서 하기로 결의하였다.



총동창회 순방단과 뉴욕지구 동문들 기념촬영.

林光洙 서울대 총동창 회장(공대 52년 졸)뉴욕방문 한창섭회장 동문여행자들을 위한 영빈관 'SNU House' 마련 건의

임광수 총동창회장 일행 뉴욕동창회동문들과 간담회 개최, 한창섭회장 임회장에게 뉴욕에 여행하는 동문들을 위한 SNU 하우스 마련 건의, 6월 15-16 일에 시카고에서 있었던 제 11차 재미동창회 평의원회 참석을 마치고 17일 뉴욕에 도착한 모국 동창회 미주 순방단 임광수 총동창회장 일행 7명은 18일 뉴욕 동창회(회장 한창섭)가 뉴저지 대원식당에 마련한 뉴욕동문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약 2시간 동안 모교의 발전 문제, 동창회와 모교간의 유대강화 문제 등에 관하여 폭 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임광수 회장이 뉴욕지구 골프대회 용 순회 우승배 기증.

서울에서 온 일행을 포함하여 40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한창섭 회장은 환영사를 통하여 서울총동창회의 신관건립도 중요하지만 뉴욕동창회가 고정 사무실 없이 매년 회장이 바뀔 때마다 사무실을 옮기는 실정을 설명하였고, 세계의 수도인 뉴욕에 SNU-HOUSE를 마련, 뉴욕을 방문하는 재학생 및 동문들이 실비로 단기간 묵을 수 있도록 하는 뉴욕 "SNU-HOUSE"계획을 건의하여 참석동문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임회장은 "SNU-HOUSE"계획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 동문들로부터 미국에서 은퇴한 동문들의 경험과 지식을 서울대학교 후진들에게 전수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林회장은 NY지구 동문들의 친선 Golf대회용 순회배를 기증하였고, 뉴욕동창회발전에 공헌이 큰 동문들이 추재옥 이사장, 골든클럽 정택수 회장, 김세중 골든 클럽 전회장, 성기로 약대동창회장, 최철용 뉴욕동창회 전회장에게 공로패를 증정하였다. 이날 한창섭 회장은 재미 총동창회 관악후원회장을 역임한 김기태 동문에게 재미동창회 이용락 회장이 수여한 공로패를 전달하였다. 또

한 이 재미총동창회의 공로패 수상자로 오인석, 김용학, 이경림 동문들이 선정되어 지난 15일 총동창회 평의원회에서 수상한바 있다. 이날 오전에 林회장 일행은 뉴욕동창회 임원진과 뉴저지에 있는 리버베일 골프코스에서 골프 아우팅을 가졌다. 林회장 일행은 19일 일찍 케네디 공항을 출발 로스엔젤레스로 떠났다.



유공 동문들에게 공로패를 증정하는 임광수 회장.

뉴욕지구 동창회 춘계 골프대회 성황

메달리스트에 80타를 친 전옥현동문
단과대학 팀 경기에서는 공대가 3년 연속 우승

화창한 날씨에 초원에서 동문들이 백구를 날리며 즐기며 하였다. 뉴욕지구 동창회 (회장 한창섭)는 6월 1일 뉴욕근교에 있는 필립 호텔과 골프코스에서 동문 49명이 참가한 가운데 2002년도 춘계골프대회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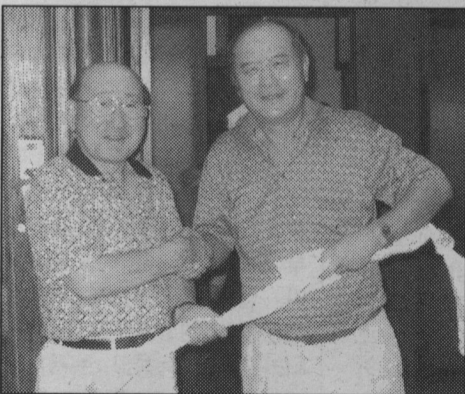
이날 골프대회서 영예의 메달리스트는 80타를 친 전옥현동문(문리대 75년 입학)이 차지하였고 1등은 82타를 친 김광일 동문(사대 81년 입학) 2등은 89타를 친 송용섭 동문(농대 63년 입학) 그리고 3등은 91타를 친 임석태 동문(법대 52년 졸업, 아래사진 왼쪽)에

근접상을 모두 차지하였으나 작년에는 근접상을 그리고 금년에는 장타상을 양보하는 미덕을 보여주었다.

단과대학 팀 대항 경기에서는 오직 공과대학 팀만 출전하여 사실상 무경쟁 우승을 차지한 셈이다. 공대가 금년도 대회 우승으로 3년 연속 우승을 하여 서울대총장배 우승패를 영구히 갖게 되었다. 우승패 증정식은 오는 18일에 임광수 총동창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있을 예정이다.

이번 골프대회는 추재옥 이사장 (의대), 이진구 전회장 (농대), 이문휘 전회장 (문리대), 오인석 전회장(법대) 및 이수호 대학원동창회장의 정성어린 후원으로 성공리에 개최되었다.

이들의 특별 찬조로 참가자들은 회비 100달러로 점심과 푸짐한 저녁식사, 그린 및 카트피, 서울대 로고가 들어간 골프공 3개씩을 참가상으로 받았고 우승자들의 부상으로 고급 퍼터가 각각 기증되었다.



계 각각 돌아갔다.

장타상에는 임호순 동문(공대 56 졸업) 그리고 근접상에는 방수철동문 (공대)이 차지하였다. 방수철 동문은 사실상 이번대회에서도 작년도 대회에 이어 장타상 및

캐나다 밴쿠버 소식

Yard Sale 안내

동창회 장학기금 확충의 일환으로 기획된 뜻있는 행사이오니 동문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장소: Kingsway 한인신용조합 메트로타운 지점 앞 주차장 (Kingsway + Elgin Ave.)

▶일시: 2002년 8월 11일 (일) 오전 10:00~오후 3:00

▶기부 물품 접수는 행사 당일 오전 9시까지며, 물품을 기부해 주실 동문께서는 위의 회장단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관악상 위원회

관악상 위원회 위원이 다음과 같이 위촉되었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공헌하고 모교를 빛낸 후보를 널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영석 (농대 57) 전 화 604-435-5170

위 원 유동성 (공대 58) 604-435-8937

김용국 (공대 84) 604-433-1520

장학 위원회

장학위원회 위원이 위촉되었습니다

니다.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2세들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 훈 (문리대 54) 전 화 604-420-1068

위 원 구자학 (문리대 58) 604-272-0052

최신근 (약 대 59) 604-431-5917

회원동정

신규등록 동문

◆이경원 (상대 경제학과 64졸) 주소: #104 - 15130 Roper Ave. White Rock, BC, V4B 2E7

전화: B. 604-535-9443 Cell. 604-562-9966

E-mail: k_wonlee@yahoo.co.kr

◆조관기 (법대 법학과 61졸) 주소: 117 Dorado Cres., Pitt Meadow, BC, V3Y 2T5

경조사
◆최정일 동문(물리대 54)의 장인 이순성 장로님이 별세하셨습니다.

◆박인자 동문(사대 64, 김형희 동문(치대 55)의 부인)이 별세하셨습니다.

◆조종철 동문(공대 71)이 자외선 온열치료를 판매하는 Ceragem Calgary Ltd.를 창업

하였습니다. (주소: 1122 10th Ave., S.W.Calgary, AB, T2 R 0B6

전화: B.403-244-7195, Cell. 403-852-9329)

◆박병우 동문(사회대 76, 현 동창회 재무담당)이 그간 운영하던 유학원의 명칭을 'GTC 유학원'으로 변경, 새로 설립하였습니다. (주소: 1311 Glen Abbey Dr., Burnaby, BC, V5A 3Y2 전화: B.604-570-0803, Cell. 604-512-9972 E-mail: info@gtcyuhak.com

Web site: www.gtcyuhak.com)

◆김은중 동문(인문대 80, 현 동창회 총무 담당)이 'CanadaNet 유학원'을 설립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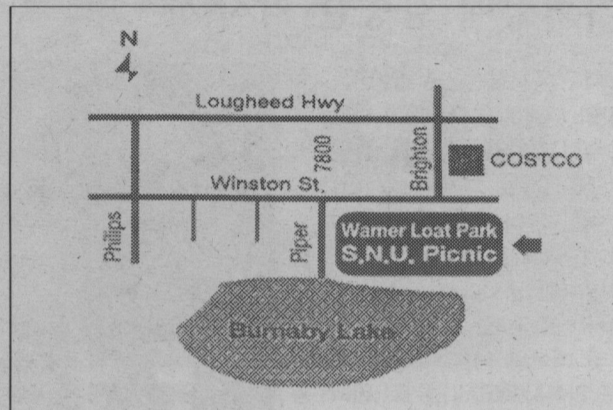
(주소: 2843 Tempe Glen Dr., North Vancouver, Bc, V7N 4K6 전화: 604-988-3679 Cell. 604-970-3672 E-mail: imfo@canadanet.co.kr

Web Site: www.canadanet.co.kr) ◆최정일 동문(문리대 54)이 중국 연변 동포들로부터 영어강사로 초청을 받아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지난달 불의의 사고로 병상에 누워있는 유학생 박지원양의 쾌유를 비는 뜻에서 \$100의 성금을 기부하였습니다.

동창회 야유회 안내

2002년 7월 27일(토), Warner Loat Park



2002년도 서울대 총동창회 밴쿠버지부 하계 야유회를 개최하오니 가족동반으로 많이 참석하여 바베큐 파티와 재미있는 오락 및 놀이를 즐기시고, 준비된 많은 경품과 상품도 타가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참가비는 없으며, 동창회에서 음식 및 음료 일체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장소: Warner Loat Park, 4300 Piper Ave., Burnaby

▶일시: 2002년 7월 27일 (토) 10:00~12:00 Burnaby Lake 일주 자유산책 12:00~16:00 점심식사, 오락 및 친교

▶준비물: 각자 휴대용 의자 및 야외용 자리
▶정확한 참석 인원 파악을 위하여 7월 21일 (일)까지 회장단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회 장 황택구 604-433-8539
- 부회장 유동성 604-435-8937
- 총 무 김은중 604-988-3679
- 재 무 박병우 604-512-9972

자랑스러운 동문들

뉴욕의 李秀- 동문, 올해의 전문가상(MNYRPS Award of the Year) 수상 - 탁구로 정신분열증과 우울증 치료

李秀- (사범대 82년졸, Ph.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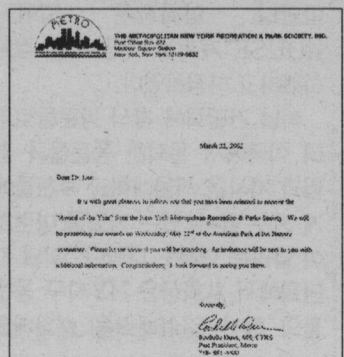
누구나 쉽게 배워 즐기는 탁구기술로 정신 분열증과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정신병동 환자들을 치료하여 화제가 된 동문이 있다.

뉴욕지구 동창회의 이수일 동문(사범대 82년졸, Ph.D, NYU)은 지난 5월 22일 Metro politan New York Recreation and Park Society(MNYRPS)가 선정한 올해의 전문가상(The Professional of the Year Award)을 수상하였다(사진 수상식장에서 李 동문 부부).

그는 현재 Recreation Therapist로 Bronx의 Lebanon Hospital에서 근무중인데 탁구를 통한 정신 질환 치료법에 착안하여 지난 1월부터 3개월동안 약물 치료방법과 비교연구를 통하여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고, 이를

바탕으로 New York University에서 Recreation & Leisure Studies로 "정신과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탁구기술 지도로 우울증 치료에 관한 임상실험 연구"란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 동문의 치료법은 처음에는 의료전문가들로 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얻었으나 이박사가 1주일간의 탁구치료법으로써 남편의 구타 행위로 극도의 정신분열증상과 우울증을 보여 Lebanon Hospital에 입원한 환자인 50대의 흑인여자 환자를 심리적인 안정상태로 단기간에 회복되게 하여 의료진을 놀라게 하여 경제적인 의료비용으로 치료효과가 큰 이박사의 치료법이 인정을 받게 되었



다.

이번에 李박사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한 MNYRPS는 30년 역사를 가진 비영리 단체로 NY 지역의 공원국 및 병원에 종사하는 Recreation Therapist들에 단체로 "삶의 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MNYRPS는 李동문을 수상자로 선정함에 있어, "전문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으며 전문가 동료들의 연구과제를 조언하고 재직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 및 한인사회 단체에서 봉사한 공적"을 인정하였다.

李동문은 현재 리만 College에 생태통계학(Biostatistics)교수로 출강중이며 뉴욕대한체육회 감사와 뉴욕 한인탁구협회장으로 봉사중이고 또 부인 金恩卿 동문(간호대 83년졸)은 Beth Israel Medical Center에 근무중인데 李동문 연락처는 718-901-8226 이다 [자료원: 뉴욕중앙일보 3월 31일자 및 MBC Korea 4월 30일자 보도발췌].

서울대총동창회 순방단 동정

본국 총동창회(제 19대 회장 임광수, 공대 52년졸)는 이번에 개최된 재미총동창회 제11차 정기 평의원회를 축하 격려하고자 임광수 회장과 7분의 임직원(한두진, 윤근환, 공대식 부회장, 박영준 감사, 명태현 관악회 이사, 우인성 기계동문회 회장과 김중준 총동창회 본부 기획관리 부장)들로서 순방단을 구성하여 재미총동창회 평의원회에 참석하였고 이어서 뉴욕지구 동창회와 남가주 동창회를 순방하며 해외지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임광수 총동창회 회장은 동문들의 친선도모를 위하여 시카고 지역 동창회, 뉴욕지구 동창회와 남가주 동창회에 골프대회의 사용될 서울대 총동창회장 골프 순회 우승배를 기증하였고 이번에 총동창회에서 간행한 김재순 명예회장의 연설문집을 비롯한 선물들을 준비하였다.

시카고지역 소식

꿈나무 재단 獎學金 시상식

젊은 예술가와 인문과학, 순수과학, 응용과학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인의 창의적 연구를 지원하고 있는 스티브 강 기념 장학재단(The Steve Kang Young Artists and Scholar Funds; 재미 동창회보 #90호 18면 및 #91호 19면 기사 참조) 장학금 수여식("An evening with the Friends")을 7월 28일 일요일 오후 6시에 The lodge (Hyatt Hotel & Resort) at McDon-

ald office campus (2815 Jorie Blvd, Oak Brook, IL60523)에서 갖으니 뜻을 같이하는 독지가들의 성원을 바라고 있다.

이 시상식을 기념하여 하와이에 첫 한국이민이 도착한 지 100주년 되는 해를 기념하여 현재 하와이 대학에서 출판 할 한국 이민 100주년 기념사를 집필중인 최영호 교수를 초청한 특별 강연이 있고 (8시), 이어 현재 이 재단의 장학생으로 있는 제니 정양과 그룹의

삼중주 연주가 있다(8시 30분). 이날 5시부터는 사진 예술가 김동수, 노재욱씨의 작품 특별 전시가 있다고 한다. 또한 장학기금 재원으로 기부된 출연품에 대한 경매(Silent Auction)도 있다고 한다.

이 장학재단은 2000년에 \$18,000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2001년에는 \$3,000을 9명의 대학원생과 대학생에게 지급하였고 2002년에는 더 많은 금액의 장학금을 지급 할 예정이다.

이 재단은 뜻있는 독지가들의 참여를 환영하며 장학금 출연금은 면세혜택(501(C)-3)이 되며, 7월 15일 이전에 출연하는 경우 이번 행사 안내서에 포함된다고 한다. 재단 연락처 강수상 동문 630-572-9202

시카고 지역 동창회(회장 한재은)

2002년도 행사 계획



- ◇1월 12일(토)제 1차 임원회한재은 회장대
- ◇3월 23일(토)제 1차 이사회Raddison Hotel, Lincolnwood
- ◇5월 11일(토)제 2차 임원회김동희 부회장대
- ◆6월 14일 -16일미주 총동창회 평의원회
- ◆6월 16일(일)춘계 Golf Outing
- ◆6월 22일(토)PicnicBusse Grove #12
- ◇9월 7일(토)학생 동문 환영회
- ◇9월 7일(토)제 3차 임원회, 장기남 수석 부회장대
- ◇9월 일자미정지역사회 봉사활동
- ◇9월 21일(토)추계 Golf Outing
- ◇10월 5일(토)제 2차 이사회
- ◇11월 2일(토)제 4차 임원회, 황치용 부회장대
- ◇11월 30일(토)총회 및 연말 Party

하계 Golf 대회

Net Champion 구경회 동문, Gross Champion 강영국 동문, 여자부 Gross Champion에 Mrs. 이수인

시카고 지역동문회(회장 한재은)에서는 하계 지역동창회 골프대회를 제11차 재미 총동창회 평의원회에 참석한 평의원 및 서울 총동창회 순방단과 함께 평의원회의 개최장인 Oak Brook Hills Resort 호텔의 Willow Crest 골프장에서 가졌다.

이날 부부동반으로 참여한 동문들은 먼길을 떠나야 하는 조를 필두로(아침 6:30부터 Tee off) 모두 16개 팀이 서로의 기량을 겨루며 우정을 나누었다.

모두 건강한 체력으로 실력을 겨루었는데 출신원동 좋은 기록들을 보여주었다.



시카고 정예 여성 골퍼들.

골프대회후 동문들은 코리아 가든에서 시상식겸 만찬을 갖고 친선을 도모하였다. 이 중 서울 총동창회 순방단 일원으로 오신 明泰鉉 동문(사진 위)께서 Hole in One을 하여 노익장을 과시하였고, 모든 동문들의 축하 속에 특별 후원금으로 \$500을 재미 총동창회에 회사하였다.

수상자는 남자부 Gross Champion 강영국 동문(80타), Net Champion 구경회 동문(86-19=67), Net 1등 황치용 동문(84-16=68), Net 2등 김기종 동문(89-21=68), Net 3등 임현재 동문(82-13=69) 등이고, 여자부는 Gross Champion에 Mrs. 이수인(82), Net 1등 Mrs. 이종일(95-33=62), Net 2등 Mrs. 장기남(88-20=68), 3등에 Mrs 박영규(87-18=69)가 차지하였다.

기타 기록 수립자들로는 Longest #5에 Mrs 구경회, Longest #11에 오홍조(LA)동문, Closest to Pin #3에 한재은 동문, Closest to Pin #13 Mrs. 강영국 등이다.

그리고 Guest중 LA의 오홍조 동문(재미 총동창회 수석 부회장)이 Lowest Score 79타를 쳤고 여자부에서도 뜻 동문의 부인이 81타를 쳐서 최고기록을 세워 부부 골퍼의 실력을 과시하였다.

이날 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7명의 동문들이 Sponsor로 기여하였는데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창만, 최일주, 송순영, 송재현, 박영규, 구경회, 이수인, 한재은, 천양곡, 한종하, 김영호, 정병욱, 김해중, 박정일, 노영일, 오병진, 강수상, 김동희, 서상현, 배영섭, 김기종, 이종일, 강영국, 전현일, 장기남, 황치용.

시카고 동문들 총동창회 평의원회 행사 지원봉사

재미 총동창회 제 6대 집행부(회장 이용라, 시카고 지역동창회 고문)본부가 소개한 시카고 지역 동창회의 많은 동문들이 지난 6월 14일(금)부터 16일(일)까지 있는 재미총동창회 행사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하여 많은 동문들이 자원봉사를 하였다.

그 중 행사전날 일찍 도착한 본국 순방단(임광수 총동창회 회장 외의 7인)의 시차 극복 체력단력 골퍼를 위해 한재은 회장과 구경회, 임현재 동문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였고, 심포지움을 위하여 일찍 도착하는 전국 평의원들을 안내하는데 한재은 회장과 음대 동창회의 김선영 동문, 박영규 동문 부부와 황치용 동문 부부가 나와 수고를 하였으며 음대 동창회의 이소정 동문은 작년에 이어 관악후원회 밤에 있는 음악회를 성황

리에 주관 출연하였으며(이 음악회 결과는 다음호에 보도), 심포지움, 평의원회와 환영 만찬회의 명패제작을 위하여 조대현(전 회장) 동문과 장영수 동문께서 수고 하였고 많은 동문 사모님들께서 만찬장 준비와 안내를 담당하였다.

또한 바쁜신 중에도 멀리서 온 평의원회 참석자들을 환영하기 위해 만찬장에 참석하시고 또 부족한 재미총동창회의 살림을 돕고자 찬조금을 내신 동문들과, 기타 눈에 안보이는 크고 작은 일을 흔쾌히 맡으셔서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치는데 수고한 장기남 동문("Mr. Invisible Troubleshooter")대하여 재미총동창회는 시카고 지역 동창회(회장 한재은, 의대 65년졸)의 모든 동문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동창회 하계 आय회

시카고 지역 동창회(회장 한재은)는 지난 7월 22일 토요일 11시부터 Busse Forest Reserve 聖

illage, IL)에서 आय회를 가졌는데 화창한 날씨아래 100여명의 동문가족들이 나와 화기 애애한 가운데 आय회 초저녁까지 가졌다. (자세한 보도는 다음호에)

재미총동창회 시카고지역 평의원 명단

개정된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회칙에 따라 평의원 임기는 3년이 아니고 2년이므로, 시카고 지역동창회를 대표하는 평의원들의 임기를 다음과 같이 다시 한번 바로 잡습니다.

- 01/01/2001 - 12/31/2002 한재은 (회장 당연직)
- 01/01/2002 - 12/31/2003 장기남(수석부회장 당연직)
- 07/01/2000 - 06/30/2003 소진문 (치)
- 07/01/2001 - 06/30/2003 송재현 (의)
- 07/01/2000 - 06/30/2002 최일주 (공)
- 07/01/2002 - 06/30/2004 강화영 (문)

모교소식

서울시, 모교앞 「관악IC」 강행 “교통혼잡·환경훼손 우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관악 인터체인지(IC) 건설문제를 놓고 모교와 대립해오던 서울시가 관악IC 건설을 위해 모교 앞 광장을 확대하기로 결정해 또다시 마찰을 빚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고가도로 건설에 따른 공간 확보를 위해 관악구 신림동 145의 6일대 모교 앞 광장을 1만8백20평에서 2만3천5백10평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또 금천구 시흥동~강남구 우면동 12.4km 구간의 통행시간 단축을 위해 관악산·우면산·대모산에 3개의 터널을 뚫는다.

그러나 모교와 환경단체들은 교통난과 환경훼손이 우려된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우선 모교 정문 바로 앞에 대규모 고가도로, IC, 터널 설치 등으로 대학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교통혼잡, 미관저해, 교통소음 등으로 인한 교육연구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모교 차용철기획실장은 『세계 유수의 어느 대학도 이러한 사례는 없다』고 말하고 『이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통과교통 유인으로 IC진출입부와의 연결도로 및 모교 정문 주변 정체가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모교 장기발전계획에 의해 연구중심단지 및 문화시설로 이용할 계획인 정문 앞 부지와 모교 부속학교를 이전할 후문 낙성대 주변 토지의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모교는 현재 관악캠퍼스 정문 앞 토지 3만7천8백79평과 낙성대 앞 토지 3만5천8백평을 보유하고 있다.

본회는 지난 5월 26일 인천그랜드CC에서 개최된 제4회 동창회·모교 친선골프 모임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접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모교와 동창회가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의결했다.

보건대학원

신임 원장에 白南園교수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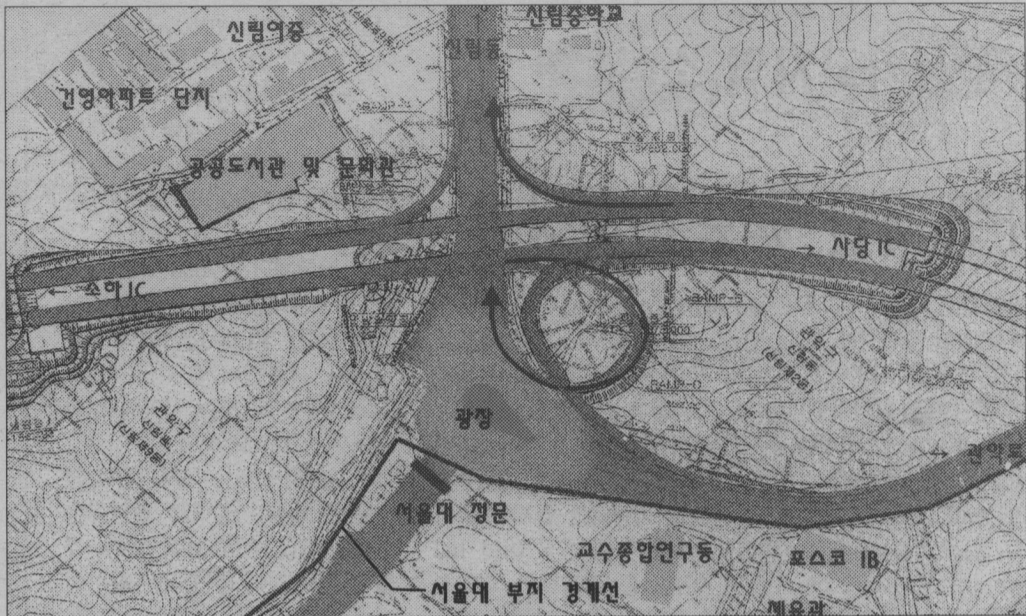
지난 5월 11일 보건대학원 원장에 환경보건학과 白南園교수(사진)가 선임됐다.

신임 白원장은 64년 모교 약대를 졸업한 후 68년 보건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가톨릭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85년 모교에 부임한 이후 보건대학원 부설 국민보건연구소



장, 환경보건학과장 등을 역임했다.



관악IC 평면도

李基俊총장 이임식 개최

60일 이내 후임총장 추천

모교 李基俊총장이 사퇴함에 따라 당분간 李鉉求부총장이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 총장직무를 대행하게 됐다.

李총장은 지난 5월 2일 교육인적자원부에 사직서를 제출, 8일 사직서가 수리됐다. 이에 따라 9일 관악캠퍼스 문화관에서 2백여 명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이임식을 가졌다.

李총장은 이임식에서 『훌륭한 후임총장이 선출되어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도약하는데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李총장의 사임에 따라 후임총장 선출을 위한 절차도 시작됐다. 교육공무원 임용령 12조의 2에 따르면 총장 유고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추천해야 한다. 따라서 늦어도 6월말이면 후임 총장 후보자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추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총장 후보추천에 관한 규정(규칙 913호)에 따르면, 총장후보선정위원회가 총장후보 대상자의 자격기준 설정, 대상자의 추천 및 심사, 5인 이내의 대상자 지명, 전체 전임교수 투표관리 등 총장후보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관장하도록 되어 있다. 위원회는 각 단과대학에서 선임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총장 유고시 직무대행자인 부총장은 1주 이내에 각 단과대에 위원 선출을 요청해야 한다.

각 단과대에서는 위원들을 2주 이내에 선출하고, 위원이 선임된 후 곧바로 위원회가 소집된다. 위원회는 구성된 후 3주 이내에 대상자를 지명해야 하며, 대상자는 심사에 필요한 총장후보

대상자 수락서, 약력서, 후보소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최종총장후보는 전임교수 과반수의 투표를 통한 직선제로 선출되는데, 선거 당일을 기준으로 휴직자와 해외체류자에게는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으며 투표는 관악, 연건, 수원캠퍼스에서 대상자들의 소견발표 후 3일 이내에 실시된다.

관악교수테니스회

2002. 춘계대회 가져

관악교수테니스회(회장 金尙均)는 지난 4월 20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테니스장에서 2002년도 춘계대회를 개최했다.

본회는 이날 테니스대회의 활성화를 위해 금일봉을 전달했다.

이날 경기의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A조 우승: 朴聖炫·安景鉉동문, 준우승: 金東進·吳洙亨동문. △B조 공동우승: 具本哲·柳種睦동문, 許南進·全炯俊동문.

(變)

생활정보

간수 쓰지 않는 부드럽고 고소한 「바이오 두부」 개발

미생물을 이용해 우리 생활을 좀더 유익하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鄭佳鎮(76년 自然大卒)동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모교 자연대 미생물학과 교수이자 (주)마이크로비아 공동대표인 鄭동문은 최근 간수를 쓰지 않고 미생물을 이용해 만든 바이오 두부를 선보여 화제가 되고 있다.

간수를 이용해 단백질을 응고시켜 두부를 만들던 방법에서 벗어나 유산균을 이용해 제조하는 법을 개발한 것이다. 흔히 두부를 만들 때 사용하는 간수는 마그네슘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물질은 성인병의 원인이 되며 두부의 쓴맛을 내게 만든다고 한

다. 이를 사용하지 않는 바이오 두부는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가지고 있다고.

이 바이오 두부를 탄생시킨 (주)마이크로비아는 鄭동문이 2000년 3월 여러 투자자의 도움으로 세운 회사이다. 최초 6억 원으로 시작한 회사는 증자를 거쳐 현재 자본금이 26억원인 회사로 성장했으며, 개발한 품목도 서서히 늘어 바이오 김치부터 시작해 현재 숙취 제거제의 출시를 앞두고 있다. 또 항암제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현재 많은 결실을 보고 있다.

이들 제품의 특징은 모두 미생물을 이용해 개발했다는 것이다. 바이오 김치의 경우 젓갈 대신 강화된 유산균을 이용해 만들

어져 외국인들이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으며 장 기보관이 가능해 수출에도 유리하다고. 또 김



鄭佳鎮 교수 (모교 생명과학부 교수)

“공익 위한 연구소 세우고 싶어”

중된 것은 아니지만 먹어본 사람들의 의견에 의하면 강화된 유산균을 함유하고 있어 장을 깨끗하게 해주며 변비해소와 피부 미용에 좋다고 한다.

그가 처음 창업을 결심하게 된 것은 어류의 백신 연구를 하면서 인연을 맺은 송어 양식장에서 알부터 치료약까지 모두 외국제품을 쓴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이다. 우리 나라에 수많은 미생물 학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발하지 않고 외국제품을 쓴다는 점에 개탄을 한 그는 스스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로 창업을 꿈꾸게 됐다.

鄭동문이 창업을 한 또 다른 목적은 부족한 연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이다. 자신이 하고 싶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나오는 연구비만으로는 항상

모자랐다. 회사 설립 후 연구비로 인한 어려움은 겪지 않고 있지만 학생들에게 충실하지 못해 아쉽다고.

『회사가 본궤도에 오르게 되면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서 좀더 많은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또 앞으로 회사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미국의 막스 플랑크와 같은 연구소를 세워 이익만을 위해 연구하는 일반 기업체 연구소로서가 아닌 공익을 위한 연구를 하고 싶어요』

서울동창회보 2002 6월15일자 10면에서 전재, 사진은 바이오두부 발명자

서울동창회보를 직접 보시겠습니까?
www.snua.or.kr

국내 유일 「어린이병원」 2005년까지 177억 들여 증개축



국내 유일의 어린이병원인 서울대 어린이병원(원장:崔 滉)이 거듭난다.

이미 일부 개보수 공사를 해왔던 서울대 어린이병원은 5월 22일 어린이병원 공사현장에서 임직원 및 건설 관계자 2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증축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의 시작을 알렸다.

국내에서 어린이병원은 수가 구조상 성인에 비해 인력, 시설 투자가 두 배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타병원에서는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국가중앙병원인 서울대병원에서는 공공성을 감안하여 적자를 감수하고 지난 1985년 개원, 운영해오고 있다.

2005년까지 총 1백77억원이 투입될 어린이병원 증개축 공사는 현재 지상 7층 건물에서 1개 층을 증축해 지하 1층, 지상 8층, 총 6천3백24평으로 늘어나며 현재 2백60개 병상에서 3백20개 병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개원 이후 17년이 경과한 어린이병원은 하루 평균 7백명의 외래환자가 진료받고 있다.

SA엔젤스클럽

운영규정 개정

지난 5월 17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에서 본회李世震사무총장, 모교 창업지원센터李俊植소장, 김&장법률사무소全康錫변호사, 모교 벤처이카데미金熙東회장, 한국경제신문朴聖姬논설위원, 강릉대盧榮成교수, 법무법인 지평崔祐榮변호사, 웹월드朴龍鎬사장, 신한회계법인李茂錫대표, 모교 창업지원센터李平浩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S.A. 엔젤스클럽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클럽의 회원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기부금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한편 투자마트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이날 모인 운영위원들은 동문을 중심으로 엔젤클럽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뜻있는 회원들을 중심으로 자체 투자펀드를 조성,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는데 의견을 모았다.

국내기관별 논문발표 1위 교수 1인당 논문수는 4위

지난호(제290호) 14면에 게재된 바와 같이 미국 ISI사가 제공한 2001년 과학논문색인(SCI) 지수에 따르면 모교가 2

천5백91편을 발표해 우리 나라 발표논문수가 18.3%를 차지하면서 세계 40위로 도약했다.

반면 교수 1인당 논문수는 광주과학기술원(5.23편), 포항공대(3.81편), 한국과학기술원(3.73편)이 모교(2.66편)에 비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관별 논문발표 현황

순위	기관명	논문수	총논문 대비 점유율
1	서울대	2,591	18.3%
2	KAIST	1,179	8.3%
3	연세대	1,151	8.1%
4	고려대	757	5.3%
5	포항공대	750	5.3%
6	성균관대	728	5.1%
7	한양대	717	5.1%
8	KIST	514	3.6%
9	경북대	496	3.5%
10	부산대	426	3.0%
11	전남대	424	3.0%
12	울산대	415	2.9%
13	인하대	386	2.7%
14	충남대	325	2.3%
15	광주과학기술원	324	2.3%
16	가톨릭대	314	2.2%
17	전북대	304	2.1%
18	경희대	302	2.1%
19	아주대	299	2.1%
20	이화여대	273	1.9%
21	충북대	243	1.7%
22	한국화학연구원	229	1.6%
23	생명공학연구원	216	1.5%
24	전자통신연구원	184	1.3%
25	경상대	181	1.3%
26	원자력연구원	174	1.2%
27	중앙대	172	1.2%
28	영남대	171	1.2%
29	표준과학연구원	169	1.2%
30	강원대	162	1.1%

대학교수 1인당 논문수

순위	기관명	논문수	교수수	교수1인당 논문수
1	광주과학기술원	324	62	5.23
2	포항공대	750	197	3.81
3	KAIST	1,179	316	3.73
4	서울대	2,591	973	2.66
5	서강대	159	97	1.64
6	고려대	757	592	1.28
7	한양대	717	596	1.20
8	연세대	1,151	964	1.19
9	성균관대	728	616	1.18
10	광운대	121	106	1.14
11	경북대	496	532	0.93
12	부산대	426	468	0.91
13	아주대	299	348	0.86
14	이화여대	273	321	0.85
15	인하대	386	460	0.84
16	전남대	424	530	0.80
17	울산대	415	542	0.77
18	충남대	325	506	0.64
19	경희대	302	498	0.61
20	전북대	304	508	0.60
21	충북대	243	425	0.57
22	중앙대	172	310	0.55
23	건국대	161	362	0.44
24	강원대	162	373	0.43
25	원광대	146	344	0.42
26	영남대	171	416	0.41
27	경상대	181	447	0.40
28	조선대	145	370	0.39
29	동국대	121	319	0.38
30	단국대	124	330	0.38

*교수수는 2000년도 교육인적자원부(이공계 및 의학계 교수수)통계를 기준으로 함.
*지난호 14면에 게재된 모교 SCI 게재 논문수를 「2,589」에서 「2,591」로 수정합니다.

在美동문의 提言

李基億

<문리대 1회 1947년 졸업>

서울대학교가 한 평가단에 의하여 평가를 받았고(한국일보 12/18/01) 또 본 동창회보(02/28/02)에도 보도된 바 있다. 필자는 평가 결과를 본 바가 없고 평가를 받게 된 동기나 평가단의 명단, 그리고 서울대학교 창립 목적(서울대학교령)을 본 적도 없다. 따라서 이 글은 필자의 50년간의 대학 교수 경험과 상식에 의거해서 적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서울대학교가 믿을 만한 평가단에 의하여 "세계 굴지의 대학"으로 평가됨을 희망할 것이다. 특히 그것은 모교나 교육부 당국자들의 염원일 것이다.

서울대학교에 대한 評價와 세계屈指의 대학

미국에서는 단과 대학, 종합 대학, 연구소, 병원 등 많은 공공 기관이 특정한 평가단에 의하여 평가를 받게 되는데(Eternal review) 그 기관의 목적하는 바에 따라 특정한 평가단의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다.

가령,工科 대학은 ABET, 종합 대학은 지역별 고등교육 연합회, 化學科는 미국 화학협회가 심사하는 등 여러 경우가 있으니, 그저 Chicago 대학 총장이 평가위원이라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다. 미리 선정, 합의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評價란 비교하여 판정하는 것인데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는 말인가?

서울대학교가 조속히 세계 굴지의 대학으로 평가되기를 희망

함은 당연하다고 하겠으나. "로마제국이 하루에 성취되지 않았다"는 말대로 母校가 세계일류 대학의 평가를 받기에는 아직 시기가 조라고 본다.

이기준 총장은 세계 40대 대학으로 부상 하야 한다고 한바 있으니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한국정부가 G7회원국이 될 것을 계획한 지 20여 년이 되나 아직도 G7문턱에도 닿지 못하고 있고, 한때 저 떠들석하던 BK21계획도 요새는 無消息이니 龍頭蛇尾가 될것인가?

한 대학교가 세계 일류대학으로 비약하려면 이에 상응하는 근본 조건이 만족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필수요소로는 ①도서관 장서수 ②질적이고 수적인 면에

서 유능한 교수진 ③우수한 학생 집단 ④교수의 연구 및 학생 교육용 시설의 구비, ⑤교수 및 학생의 활발한 연구활동 ⑥학문의 자유가 보장된 학교내 풍토 등일 것이다. 물론 경제적 및 정치적 자유가 연구활동으로서 보장되어 있어야 함은 필요치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조건이 구비되면 모교가 세계 40대 대학이 아니라 세계 굴지(屈指)의 대학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많은 경비와 시간과 비싼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즉 "즉석 일류"란 있을 수 없는 말이다.

모교 18대 총장 조완규 박사는 일찍이 모교발전에 동창들의 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하였으며 그는 특히 재미 동창들의 찬조를

기대하여 재미 총동창회의 결성을 추진하여 지원한 바 있다. 전직 최주호 회장께서는 일본 동경 대학 방문 시찰기에서 서울대학교가 조속히 "우물안의 개구리 격"에서 탈피하여 대 서울대학교로 비약 할 것을 강력 권장한 바 있다.

대학 당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한편 재미 총동창회는 대학 당국과 협력하여 대학개선에 전력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5년 후에 다시 평가단을 초청하여 후일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런 뒤 10년 또 20년 후에 모교가 세계굴지의 대학이 되면 자연히 세계의 선진 여러 나라에서 유학생과 연구원이 몰리게 됨은 당연한 일이다. 재미 총동창회가 전력을 다하여 母校 발전에 크게 기여 할 것을 꾀한다.

동정

수상

▲金炯珠(50년 工大卒·삼안코 퍼레이션 회장)=지난 4월 21일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 기술 훈장인 웅비장을 받음.

▲金貞欽(51년 文理大卒·신문대 객원교수)=지난 4월 21일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 기술 훈장인 혁신장을 받음.

▲姜信浩(52년 醫大卒·동아제약 회장·本會顧問)=지난 4월 21일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 최고훈장인 창조장을 받음.

▲李華榮(61년 工大卒·모교 응용화학부 교수)=지난 4월 21일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 훈장인 도약장을 받음.

▲愼鏞度(61년 文理大卒·모교 사회학과 교수)=지난 4월 17일 한국언론재단에서 사단법인 「4월회」가 주관하는 제3회 4·19문화상을 수상함.

▲柳俊馨(66년 法大卒·永川大捷紀念會 사무총장)=지난 4월 14일 잡실 올림픽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제29회 함경남도 도민의 날 기념식에서 유엔군정전 한국대표, 한미야전사 부사령관, 평화통일자문위원 및 함경남도 도지사 근무공로로 함경남도 도민상(평화통일분야)을 수상함.

▲金春玉(68년 美大卒·한국전업미술가협회 이사장)=지난 4월 12일 동아일보에서 제정한 2002 동아미술제 초대작가상을 수상함.

▲羅燕善(71년 藥大卒·울산대 교수)=지난 4월 21일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 훈장인 진보장을 받음.

▲嚴光錫(73년 文理大卒·SBS 대기자)=지난 4월 26일 한국신문방송인클럽(회장 李炯均)이 수여하는 제6회 한국언론대

상(논설·해설부문)을 수상함.

▲徐維憲(73년 醫大卒·모교 약리학교실 교수)=지난 4월 15일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린 의사신문 창간 43주년 기념식에서 제35회 유한의 학상 대상을 수상함. 또 21일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 훈장인 웅비장을 받음.

▲崔在元(87년 工大卒·부산대 교수)=지난 4월 20일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35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진흥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음.

▲金男珠(99년 醫大卒·모교 병원 전공의)=지난 5월 5~10일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 로더데일시에서 열린 미국안과학회(ARVO) 총회에서 「젊은 의학자상」을 수상함.

▲鄭根謨(59년 文理大卒·호서대 총장)=지난 4월 10일 장영실선생기념사업회 제4대 회장에 취임함.

▲金讚淑(60년 齒大卒·청아치과병원 이사장·本會 副會長)=지난 4월 15일 경기여고 총동창회(慶雲會) 제29대 회장에 선출됨.

▲李鎭高(61년 商大卒·서울산업대 총장)=지난 4월 10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에 내정됨.

▲李元魯(62년 醫大卒·일산백병원 원장)=지난 4월 12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고혈압학회 춘계학술회의에서 회장에 취임함.

▲孫吉丞(63년 商大卒·SK그룹 회장·本會 副會長)=지난 4월 14일 아시아판 다보스포럼인 「보아오 포럼」의 최고 의결기관인 이사회 이사에 선임됨.

▲魏聖復(64년 商大卒·조흥은행 이사회 회장)=지난 4월 10일 한국CFO협회 회장에 선임됨.

▲張在洪(73년 法大卒·산업은행 국제금융실장)=지난 4월

▲李周榮(65년 文理大卒·충남대 교수)=최근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 초대 원장에 취임함.

▲田允喆(65년 法大卒·대통령비서실장)=지난 4월 15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임명됨.

▲尹國炳(66년 文理大卒·한국일보 수석부사장)=지난 4월 1일 코리아타임즈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됨.

▲金信福(68년 師大卒·모교 행대원 교수)=지난 4월 1일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에 내정됨.

▲崔鴻圭(68년 敎大院卒·중앙대 교수)=지난 4월 12일 영국 캠브리지대 공식 초청교수로 부임해 St. John's College에서 1년간 「영국 낭만주의 문학사상의 철학적 배경」에 관해 연구한다.

▲李起澤(69년 齒大卒·前대한치과의사협회장)=지난 4월 3~7일 COEX와 무역전시장에서 열린 제24차 아시아태평양치과연맹 서울총회에서 회장에 선임됨.

▲李一恒(70년 工大卒·인하대 교수)=최근 인하대 정보통신대학원 원장에 취임함.

▲李起浩(70년 商大卒·한국경제포럼 대표)=지난 4월 15일 대통령 경제복지노동당 특보에 임명됨.

▲蔡利植(70년 司大院卒·고려대 교수)=최근 열린 한국경영법률학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선임됨.

▲李壽久(72년 齒大卒·서울중구치과의사회장)=최근 열린 서울시치과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제32대 회장에 선출됨.

▲張在洪(73년 法大卒·산업은행 국제금융실장)=지난 4월

편집주간석

사람에게 人格이 있듯이 학교에는 校格이, 나라에는 國格이 있을 터인데...

대선을 향한 정국이 한쪽은 떠들어서 시끄럽고, 또 한쪽은 간접화법에 沈默만 지킨다고 시끄러우니 시끄러운 것은 매일반이나 이 나라가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걱정이 앞선다. 이렇고도 나라 인가 허탈에 잠긴다.

母校가 처한 저간의 학내사정도 이와 다르지 않다. 도덕적 荒廢는 신뢰의 상실과 정신적 방황을 불러온다. 이런 매일수룩 格을 찾아야 한다.

格은 명예이자, 체신이며 기본이다. 人格을, 校格을, 國格을 바로 세우자.

할 말은 직접 하고, 해서 안될 말은 굳이 하지 않는 길이 格을 세우는 기초이다.

이제 우리 동창회 19대 회장단 등 집행부가 구성되어 우선 해야 할 일은 校格을 바로 잡아 國格을 바로 세우는데 나서는 것이다. 「서울대가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고 합창해야 하기 때문이다.

10일 산업은행 이사에 임명됨.

▲李東煥(73년 醫大卒·순천향대 부학장)=지난 3월 29일 한국모자보건학회 총회에서 회장에 선출됨.

▲金英薰(75년 法大卒·대구도시가스 회장)=지난 4월 10일 한국도시가스협회 제8대 회장에 선임됨.

▲崔奎植(77년 人文大卒·한국일보 경영전략실장)=최근 한국일보 편집국장에 선임됨.

▲朴尙東(2기 EPHPM·동서한방병원장·보건 의료정책 최고 관리자과정 동창회장)=최근 한의학 박사로서는 이례적으로 가톨릭대 의과대학 외래교수로 위촉됨. 또 지난 4월 30일 소피텔엠베서더호텔에서 열린 경희대 총동문회 대의원 총회에서 임기 2년의 제21대 총동문회장에 선출됨.

행사·출간

▲柳達永(36년 水原高農卒·성전문화재단 이사장)=지난 5월 6일 성전문화재단 창립 11주년을 맞아 「柳達永에세이選集」 출간기념회를 가짐.

▲田溶星(50년 文理大卒·변호사)=지난 5월 9일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 오키드룸에서 92회 생일을 맞아 출판기념회를 가짐.

▲李海元(53년 法大卒·공동체

사회포럼 회장)=지난 4월 25일 롯데호텔 팔롬에서 미래산업 鄭文述회장을 초청,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주제로 제28회 조찬특별강연회를 가짐.

▲李信子(55년 美大卒·갤러리 우덕 고문·美大同窓會長)=지난 4월 10일부터 24일까지, 4월 25일부터 5월 7일

까지 2부로 나눠 갤러리 우덕에서 개관 5주년 기념전을 가짐.

▲李東熙(59년 文理大卒·前서울산업대 총장·五成연구소 이사장)=지난 3월 20일 성균관에서 孔紀2553년 석전대제를 기념하여 「새로운 선비정신의 제창」을 주제로 강연을 함.

▲俞東濤(60년 農大卒·한국단미사료협회장·나혜석기념사업회장·수원지부동창회장)=지난 4월 27일 수원 문화예술

회관에서 나혜석 탄생 1백6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가진 후 나혜석거리에서 문화축제를 개최함.

▲崔炳哲(60년 音大卒·가톨릭대 교수·한국 오라토리오 소사이어티 회장)=지난 5월 6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도쿄 오라토리오 소사이어티를 초청해 베토벤의 교향곡 제9번 「합창」을 연합으로 연주함.

▲李壽成(61년 法大卒·한국민속박물관회장)=지난 4월 6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眞伎樂」 공연을 후원함.

미주관악후원회 이사회비 납부 현황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1년 7월 1일 ~ 2002년 6월 28일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관악 후원금 납입현황

(2002년 5월 28일~6월 28일)

종신이사

강영빈, 박경민, 박병기
방은호, 서영석, 심상은
오인석, 오홍조, 윤선홍
이교락, 이기영, 이병준
이세열, 이전구, 정 태
이청광, 전희택, 윤정옥
한흥택, 조시호

300달러이상

뉴잉글랜드(지역 동창회) \$500

300달러이하

노용면(의대 55졸) \$200

이용락(공대 48입) \$200

김순규(문리대 53입) \$200

이재선(공대 57입) \$200

지역 번호	지부명	후원이사(후원금)	납부인원	합 계
01	남가주	임낙균(200) 김성복(200) 심영준(200) 오재인(200) 김종표(200) 한흥택(\$3,000) 이병상(200) 이병준(3,000) 전희택(3,000) 이청광(1,500) 김동석(200) 김성희(200) 서동영(200) 조만연(300) 정인환(200) 오길평(200)	17	13,000
02		김항자(420) 박성민(200)	2	620
03	샌프란시스코			
04	뉴욕(NY, NJ, PA 일부 CT)	노용면(200) 이운순(\$200) 윤정옥(\$3,000) 뉴욕약대동창회 \$1,000 김용재(200)최수용(500) 오태희(250)방준재(250)이준행(500) 한창섭(200) 이운순(200) 이기영(200)김상각(500) 이기행(200) 이명희(200) 이대영(200) 김영덕(200) 조대영(200) 최영태(200)김용락(200) 이문휘(200) 이재원(200) 이재덕(200)	23	11,000
05	시카고 (IL, IN, WI, MO, MI, OH)	이용락(10,200) 김수삼(1,000) 이기영(500) 지명식(300) 노재욱(\$300) 강창만(\$500)조철원(250)김정주(200)김호범(200) 송재현(200) 문병훈(200) 성홍환(250) 최일주(500) 김기태(200) 임현재(1,000) 임근식(500) 소진문(350) 신석균(300) 최길용(300) 강영국(300) 김병윤(200) 최희수(200) 황치용(200) 조대현(200) 정승규(200) 임춘수(500) 장기남(500) 이정일(200) 최호승(200) 시카고 지역동창회(4,000) 송순영(1,000) 한재은(1,000) 구경희(800) 조중행(500) 박영규(300) 전현일(200) 김현옥(200) 시카고지역동문들 전조금(520)	38	28,470
06	워싱턴 DC (MD, VA)	주일(\$200) 곽홍(\$250)변만식(200)문성길(200) 이영목(200)방은호(250)신상균(200) 장효강(200) 전신애(미연방정부 노동성장관실 여성국장 500) 진금섭(200) 권철수(500) 박윤수(1,000)	12	3,900
07	워싱턴주	김성열(200) 김성렬(200)	2	400
08	휴스턴	조시호(3,000) 김정훈(200) 탁순덕(250)	3	3,450
09	달라스	김옥균(200)	1	200
10	미네소타	김필주(\$200) 권승립(200) 김태환(500) 이창재(200)	4	1,100
11	조지아	김예순(\$200) 임수암(\$200) 김용건(200)	3	600
12	아리조나	오덕겸(300) 박성숙(300)	2	600
13	유타	김성완(500)	1	500
14	하와이			
15	오레곤	나재관(200) 김상순(200) 정태훈(200) 조충훈(200)	4	800
16	기타1(서부)			
17	기타2(중부)			
18	기타3(동부 & 캐나다)	정구영(200)	1	200
19	필라델피아	김세경(250) 이정필(200) 김현영(200) 현재원(200) 이상봉(200) 정정수(200)	6	1,250
20	뉴잉글랜드	김순규(200) 이재신(200) 지역동창회(500)김재호(200) 김영호(\$1,000) 정태진(\$200) 김인수(200) 윤상래(200) 변희경(300)	9	3,000
21	하트랜드	김호원(\$300) 하트랜드 지역동창회(\$500) 류광현(200) 이상문(200) 지역동창회(500) 김용환(200)	6	1,900
22	중부펜실바니아			
	특별후원금	임광수 총동창회장(\$5,000) 명태현(500) 총창회 순방단(\$2,000)		7,500
일반 이사 합계			129	\$56,970
종신 이사 합계			5	\$13,500
총 계			134명	\$78,490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백만달러 기금 납입 현황

(2002년 1월 19일 ~ 5월 25일)

Anchor-Donor (2만달러 이상·약정)

- 방은호 (워싱턴 DC · 약 42입)
- 윤정옥 (뉴욕 · 약 50입)
- 김영덕 (뉴욕 · 공 53입)
- 이병준 (남가주 · 상 55입)
- 김병수 (뉴욕 · 상 55입)
- 최수용 (뉴욕 · 상 55입)
- 유창남 (뉴욕 · 의 58입)
- 오인석 (뉴욕 · 법 58입)
- 이전구 (뉴욕 · 농 60입)
- 임낙균 (남가주 · 약 64입)

3,000달러이상

방은호 (약42입) \$5,000

1,000달러이상

300달러이상

300달러이하

母校와 後進을 위한 1백만불 기금 지부별 입금 현황 基金을 출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0년 7월 1일 ~ 2002년 6월 28일

지역 번호	지부명	후원이사(후원금)	납부인원	합계
01	남가주(CA)	한홍택(\$1,000)황석우(100) 정인환(200)권기상(100)한상철(333,400) 이병준(20,000) 심상은(1,000) 조용명(500) 임낙균(500) 이병선(300) 박취서(200) 이종열(200) 이강훈(150) 임택선(100) 김옥권(100) 권기상(100) 이정재(100) 신동국(100) 김일영(100) 유병원(100) 도영미(100) 황석우(100)	22	358,550
		이양숙(200) 박우선(200)	2	400
03	샌프란시스코	김양주(300)	1	300
04	뉴욕 (NY, NJ, PA 일부, CT)	김기훈(\$250)최수용(5,000)김희식(100)진성호(19,400) 추재욱(10,000) 오인석(20,000) 김병수(7,000) 최수용(5,000) 김영덕(5,000) 윤정옥(5,000) 이전구(4,000) 황관일(1,500) 김진승(1,000) 허리훈(1,000) 허선행(500) 이준행(500) 강영선(500) 김용재(500) 이기범(500) 이재진(500) 변찬의(500) 김상각(300) 홍선경(300) 이경림(300) 방준재(300) 주의돈(300) 남상래(300) 조성준(300) 김기훈(250) 박승서(250) 이기철(200) 김연서(200) 동철근(200) 리준국(150) 황진환(100) 조대영(100) 허병렬(100) 심기련(100) 유진철(50)	39	91,600
05	시카고 (IL, IN, WI, MO, MI, OH)	소진문(100) 임훈수(200) 어용락(1,000) 조영재(300) 정태, 최호승(500) 배영섭(200) 전영자(200) 임훈수(200) 강영국(200) 박종수(200) 구자원(200) 이기춘(200) 김윤태(100) 문병훈(100)	15	4,700
06	워싱턴 DC(MD, VA)	방은호(5,000)지역총합회(3,990)조수미 CD 266장 판매대금) 이규섭(150) 방은호(5,000) 박윤수(1,000) 박용길(100) 오인환(200) 김창호(50) 장병규(50) 이선명(50)	9	15,590
07	워싱턴주(WA)			
08	휴스턴(HOUSTON, TX)	박승균(300) 유금용(100) 김충열(200) 박민자(100)	4	700
09	달라스(DALLAS, TX)	김인호(200)	1	200
10	미네소타(MN)	송정원(100) 변우진(100) 김태환(300) 왕규현(100) 변우진(100) 남세현(100)	6	800
11	조지아(GA)	장병건(100)	1	100
12	아리조나(AZ)	박양세(100) 박양세(200)	1	300
13	유타(UT)			
14	하와이(HI)			
15	오래곤(OR)	이태호(100) 익명(300)	2	400
16	기타(서부)			
17	기타(중부)	강영빈(500) 이희백(1,000)	2	1,500
18	기타(동부&캐나다)	한광수(333.33)	1	333.33
19	필라델피아 (PHILADELPHIA, PA)	정정수(500) 서중민(1,000) 이정필(800) 정정수(500) 한혜원(300) 현재원(300) 정홍택(300) 강형진(200) 윤경숙(100) 정구영(100)	10	4,100
20	뉴잉글랜드(MA)	도은희(200) 이재신(3,000) 이금하(200) 정태진(100) 김재호(100)	5	3,600
21	하트랜드	오태요(500) 김명자(500) 이상문(250) 배한홍(100)	4	1,350
22	펜실바니아			
	특별 후원금	간호대동창회(13,560) 모교동창회/모교순방단(3,000) 임광수 서울대총동창회회장(5,000) 한규남(유회1점: 현재 경매 중)	4	21,560
	총 계	당회계년도 모금액 총액 \$24,190 기금위원회 직접 접수분 \$ 1,000 방은호 동문 기여금 \$ 5,000은 기금위원회 직접 접수	129	506,083.33

약정하신 동문들

*2001년 7월1일부터 2002년 4월 25일까지 납입하신 분. 21명

	후원이사<후원금>	납부인원	합계
현금 약정	방은호(워싱턴 DC/\$20,000약정 \$10,000납입) 서동영(남가주/\$100,000:생명보험 중 일부) 윤정옥(뉴욕/\$20,000중 \$5,000납입) 임낙균(남가주/\$20,000약정) 김영덕(뉴욕/\$20,000중 \$5,000납입) 김병수(뉴욕/\$20,000중 \$7,000납입) 최수용(뉴욕/\$20,000중 \$10,000납입) 이전구(뉴욕/\$20,000중 \$4,000납입) 유창남(20,000약정) 강영빈(기타 중부 /\$500중 \$500 납입) 강경식(뉴잉글랜드/생명보험 중 일부)	11명 (7명 납입)	\$260,500 (\$41,500 납입)
기타	방은호(유증) 김태환(유증) 정태	3명	
총 합 계		136명	725,083.33

금년에도 재미총동창회와 동창회보 100호 간행을 후원하여 주신 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동창회는 전 동문의 네트워크를 위해 Data Base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직 응답하지 않으신 동문은 이 설문지를 기입한 후 오려서 동창회 사무실로 우송바랍니다.

재미 동문직업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위한 설문 및 웹사이트 주소록 일반공개 여부 설문 2001. 7. 1 ~ 2002. 6. 30 회보 구독료 납입서

재미 서울대 전 동문들의 직업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인 모교 지원사업 및 동문 지원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설문에 간단히 답하시어 동문의 반송봉투를 이용 설문지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창회보를 받지 않는 주변 동문들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본 설문지 여백에 적어 보내시면 고맙겠습니다.

1. 성명 : 한글 _____ 영문 _____
2. 모교 입학년도 _____ 졸업년도 _____
3. 졸업전공 : _____ 대학 _____ 학과 _____
4. E-mail address : _____
5. New home adress : _____
6. New home Tel. No. _____
7. 직장이름 : _____
8. 직장주소 : Tel. _____ Fax. _____
9. 웹사이트 주소록 일반에 공개 무방 (), 가급적 동문들에게만 공개 원함 ().
10. 사업 종류 (다음 해당되는 항목 또는 복수항목에 서클하여 주십시오.)

가정주부, 가정복지 자문, 간호원, 감정사, 경영간부, 경찰, 수사관, 사설탐정, 공무원, 공인회계사, 군인, 금융자문, 은행원, 기업인, 대학교수, 학교 선생님, 학원강사, 디자이너, 미술가, 서예가, 음악가, 연예인, 작가, 기타 예술인, 검사, 판사, 변호사, 법률보조, 법의학, 보험, 부동산 중개사, 실험실요원, 언론인, 엔지니어, 연구원, 요리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의료보조, 은퇴, 장의사, 종교인, 투자자문, 재정자문, 컴퓨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컴퓨터 프로그래머, 기타 컴퓨터 관련업, 통관사, 체육인, 학생, 건설 건축 관련업, 국제무역, 농업, 수산업, 제조, 통신업, 도매업, 소매업, 건설업, 광고업, 여행업, 인쇄업, 운송업, 기타 서비스 소매, 기타 직업.

11. 위의 사업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취급하시는 분야 또는 전문분야를 간단하게 아래에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의사의 경우) "정신과" : (변호사의 경우) "가정법" : (교수의 경우) "물리학" : (언론인의 경우) "일간신문기자" : (도매업) "의류" 등등

12. 동창회보 일년 구독료 \$ 50은 동창회보 발간 사업 뿐 아니라 모교지원을 위한 업무 및 재미 동문 지원사업을 위하여 긴요한 재원입니다. 재미 총동창회 집행부는 모든 회원들을 위하여 재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높이 유지하겠습니다.

본인은 2001. 7. 1 ~ 2002. 6. 30 구독료 \$50을 함께 우송합니다.

Yes. ()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No. ()

수표 보내실 곳 : SNUAAUSA (SNUAA in the USA)
790 Busse Road, Suite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Tel. (847)981-1464 Fax. (847)981-1465

13. 소속 지역동창회 이름 : () 지역동창회

1

2001. 7. 1. ~ 2002. 6. 30 회계년도 동창회 회보 구독료 \$50.00을 납부합니다. ()

2

미주 관악후원회 3차년도 후원금 납입서

본인은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의 활동재원 확보와 미주동창회보의 지속적인 월간발행을 후원하기 위하여 결성된 「미주관악후원회」 회원임을 명예스럽게 생각하며, 제 3차년도 관악후원회비를 아래와 같이 보냅니다.

●매년 불입 후원이사

- 년 \$ 200이상 (금액명기 \$)
- 년 \$ 500이상 (금액명기 \$)
- 년 \$ 1,000이상 (금액명기 \$)

●일시불 종신후원이사

\$ 3,000이상 (금액명기 \$)

▷이 후원금은 세금 보고서 세금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차 후원금에 대한 세금보고용 영수증은 별도로 송부하겠습니다.
: \$ 250 이상만)

3

1백만 달러 기금 납입서

본인은 영원한 서울대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모교와 후진을 돕기 위한 1백만달러 기금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다음과 같이 기금을 낼 것을 동의합니다.

●총액(금액명기 \$)

- ①일시불 ()
- ②3년 분할 납입 ()
- (\$)씩 ()회 분납

▷이 기금은 면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미 총동창회는 재산을 이 1백만달러 기금에 남겨주실 유언 (A Will) Program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심있으시면 표시해 주십시오.()

Check Payable to :

SNUAAUSA(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Check 보내실 곳 :

SNUAA in the USA

790 Busse Road, Suite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Tel. (847)981-1464 Fax. (847)981-1465
e-mail : snuaausa@snuua.org